

# 여행 대전

Vol.01 Vol.37

## 여성이 행복한 도시, 대전

스 물 여 섯 권 의 여 정



여성이 행복한 도시, 대전 | Vol.01 - Vol.37



- Vol.1-Vol.10 대전광역시청에서 발간
- Vol.11 새로 출범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바란다
- Vol.12 여성이 행복한 도시, 대전에 대한 비전
- Vol.13 여성정책의 Think-Tank, 대전여성가족정책센터 첫발을 내딛다
- Vol.14 지역발전과 여성발전의 공생, 2012년 충선을 바라보다
- Vol.15 여성가족정책의 Vision, 19대 국회의원 당선자에게 듣는다
- Vol.16 여성과 아동이 안전한 도시를 꿈꾸다
- Vol.17 지역공동체가 만드는 여성이 안전한 도시, 대전
- Vol.18 1인 여성가구 200만 시대, 그들의 주거는 안전한가?
- Vol.19 전업주부 자존감, 가사노동 가치 인정에서 출발
- Vol.20 대전의 자율적 공동육아 공동체, 엄마들이 웅쳤다
- Vol.21 여성시의원을 만나다 "시민의 마음을 읽는 생활정치로 보답"
- Vol.22 2016년 충선 유권자가 말하는 여성정책 "사소한 것도 배려하는 도시에서 아이 키우고 싶어"
- Vol.23 육아후직용감한 아빠들을 만나다 "아빠 왜 회사가?"
- Vol.24 1인 가구 500만 시대, 나혼자 건강하게 살려면?
- Vol.25 청년, 청춘에 대해 말하다 "일자리에서 '설자리'로 넘어가는 정책 전환 필요"
- Vol.26 젠더폭력이 이야기하다. '젠더폭력방지법' 계기로 사회적 약자 향한 분노 고민해야
- Vol.27 직장 내 성희롱 예방, '나도 피해자' 고백부터 시작해야
- Vol.28 돈 없어서 연애도 못하는데 결혼과 출산?
- Vol.29 성적 대상화? 익숙하지만 외면하는 것!
- Vol.30 무거운 코르셋을 벼려야 할 때는 언제? 바로 지금!
- Vol.31 혼자의 삶을 선택한 사람들은
- Vol.32 '그들만의 리그' 장벽, '백 명의 래파런스로 부순다
- Vol.33 지불되지 않는 그림자 노동
- Vol.34 평등과 공정을 말하다
- Vol.35 우리들의 '예술'적인 이야기를 들어보시겠어요?
- Vol.36 손내밀어 주시겠어요?

## CONTENTS



<b>발행인</b> 대전광역시장	<b>발행일</b> 2023년 12월 31일	<b>편집위원</b> 류유선, 권순지, 김순조, 서한나, 이유진
<b>편집</b> 이유라	<b>발행처</b> 대전세종연구원 대전여성가족정책센터	<b>디자인·제작</b> 디자인스튜디오 203 대전



<b>인트로</b> 숫자로 보는 여행대전	02
<b>히스토리</b> 히스토리로 읽는 여·행·대·전 '스물여섯 권'의 여정, 무엇을 어떻게 담았을까? 여행대전 Timeline	06 08
<b>기획대담</b> 『여성이 행복한 도시, 대전』을 만든 사람들, 밭간 스토리를 돌아보다	16



<b>백분이 물어보면</b> “여행대전을 말해줘”	26
<b>지역사회 이슈 더하기</b>	
저출생 극복을 위한 '포용과 존중' 세상의 모든 가족과 함께	38
돌봄을 돌보는 곳, 사회서비스원	40
저출생 시대의 혐오	42
대전에도 여성젠더학과가 있습니다	44
배려, 시민이 행복한 도시를 만들다	46
하지만 대전에 여전히 잘 머물고 있습니다	48
우리를 반기지 않는 곳에서 우리의 터전 만들기	50
우리가 해야 할 일 'The Next Right Thing'	52
우리가 걷고 난 자리에는	54
나는 장애인입니다 그리고 여성입니다	56
갑질 업무는 대학인권센터 업무가 아니다	58
그림자 노동에서 사회적 가치를 인정받는 노동으로	60
김정노동자의 마음을 '공유'하세요, 당신의 '좋아요'가 올라갑니다	62
여성과 가족이 행복한 도시를 그리며	64
활동가가 바라본 대전, 그리고 평등한 대전을 위해	66
여성 활동가의 눈으로 본 지역사회	68
오랫동안 머물던 도시, 대전 이곳에서 나는 꿈을 꾸고 있다	70
계속 나아갈 반향	72
글로벌 공존의 도시, 대전	74
폭력 없는 다문화 사회를 향한 여성	76



<b>엔딩_크레딧</b>	
여행대전, 훌륭한 자극제 덕분에	80
92년생 정원에게	82
진짜로 대화하고 있다는 느낌	84
다시 보니 잘 썼다	86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게 하려 했던 시간들...	88
후회 사용법, 틀림없이 달라졌다	90
멈추지 않겠습니다	91

# 참여자 및 기고자 수 **430명**

숫자로 보는 여행대전



# 소개된 기관 및 단체 수 329명

숫자로 보는 여행대전

비胡同 간  
경제소모임  
청춘  
너나들이  
알짬  
어린이  
도서관  
품앗이  
마을 카페  
대전광역  
새일지원본부  
대전여성  
단체협의회  
관평동  
'함지박 공동체'  
경상도  
비胡同 공동체  
'WITH'  
태평2동  
여울림합창단  
커피볶는집  
시드풀  
대전여성  
장애인  
어울림센터  
대전건강  
가정지원  
센터  
넷제로  
공판장  
대전이주  
여성쉼터  
대전도시  
재생지원센터  
중구다문화  
가족지원센터  
민들레건강  
사회적협동조합  
아이코리아  
대전지회  
대전광역시  
약사회  
뉴그라운드  
한국여성  
지도자연합 대전시지부  
청청현  
배재대학교  
페미니즘 소모임  
'90년대생  
유진이들'  
사회적기업  
'보리와 밀'  
도담도담  
맘스클럽  
대전다문화  
가족지원  
센터  
로컬푸드  
살림단  
'최고의 밥상'  
한남 글로벌  
창업&디자인 센터  
베트남 출단  
'베트남 마이 러브'  
대전배재대  
ICT융합새일센터  
대전사회  
서비스지원단  
제로  
웨이스트 샵  
'은영상점'  
전국주부교실  
대전광역시지부  
한줄  
상점  
대덕구청  
서구청  
(사)아트리  
관저동  
시·공·간  
MODU  
대안공간  
'케이트'  
증구청  
동구청  
대전평생  
교육진흥원  
대전여성  
단체연합  
스페이스  
SSEE  
대전새마을  
부녀회  
대전 경제교육  
센터  
대전여성  
새일지원본부  
대전여성  
인력개발센터  
신성동  
마을공동체  
'마실'  
대전여성  
새로일하기  
센터  
에이트  
태평2동  
여울림합창단  
커피볶는집  
시드풀  
대전여성  
장애인  
가족지원  
센터  
관평동  
'함지박 공동체'  
태평2동  
여울림합창단  
커피볶는집  
시드풀  
대전건강  
가정지원  
센터  
넷제로  
공판장  
대전이주  
여성쉼터  
대전도시  
재생지원센터  
중구다문화  
가족지원센터  
민들레건강  
사회적협동조합  
아이코리아  
대전지회  
대전광역시  
약사회  
뉴그라운드  
한국여성  
지도자연합 대전시지부  
청청현  
배재대학교  
페미니즘 소모임  
'90년대생  
유진이들'  
사회적기업  
'보리와 밀'  
도담도담  
맘스클럽  
대전다문화  
가족지원  
센터  
로컬푸드  
살림단  
'최고의 밥상'  
한남 글로벌  
창업&디자인 센터  
베트남 출단  
'베트남 마이 러브'  
대전배재대  
ICT융합새일센터  
대전사회  
서비스지원단  
제로  
웨이스트 샵  
'은영상점'  
전국주부교실  
대전광역시지부  
한줄  
상점  
대덕구청  
서구청  
(사)아트리  
관저동  
시·공·간  
MODU  
대안공간  
'케이트'  
증구청  
동구청  
대전평생  
교육진흥원  
대전여성  
단체연합  
스페이스  
SSEE  
대전새마을  
부녀회  
대전 경제교육  
센터  
대전여성  
새일지원본부  
대전여성  
인력개발센터  
신성동  
마을공동체  
'마실'  
대전여성  
새로일하기  
센터  
에이트  
태평2동  
여울림합창단  
커피볶는집  
시드풀  
대전건강  
가정지원  
센터  
넷제로  
공판장  
대전이주  
여성쉼터  
대전도시  
재생지원센터  
중구다문화  
가족지원센터  
민들레건강  
사회적협동조합  
아이코리아  
대전지회  
대전광역시  
약사회  
뉴그라운드  
한국여성  
지도자연합 대전시지부  
청청현  
배재대학교  
페미니즘 소모임  
'90년대생  
유진이들'  
사회적기업  
'보리와 밀'  
도담도담  
맘스클럽  
대전다문화  
가족지원  
센터  
로컬푸드  
살림단  
'최고의 밥상'  
한남 글로벌  
창업&디자인 센터  
베트남 출단  
'베트남 마이 러브'  
대전배재대  
ICT융합새일센터  
대전사회  
서비스지원단  
제로  
웨이스트 샵  
'은영상점'  
전국주부교실  
대전광역시지부  
한줄  
상점  
대덕구청  
서구청  
(사)아트리  
관저동  
시·공·간  
MODU  
대안공간  
'케이트'  
증구청  
동구청  
대전평생  
교육진흥원  
대전여성  
단체연합  
스페이스  
SSEE  
대전새마을  
부녀회  
대전 경제교육  
센터  
대전여성  
새일지원본부  
대전여성  
인력개발센터  
신성동  
마을공동체  
'마실'  
대전여성  
새로일하기  
센터  
에이트  
태평2동  
여울림합창단  
커피볶는집  
시드풀  
대전건강  
가정지원  
센터  
넷제로  
공판장  
대전이주  
여성쉼터  
대전도시  
재생지원센터  
중구다문화  
가족지원센터  
민들레건강  
사회적협동조합  
아이코리아  
대전지회  
대전광역시  
약사회  
뉴그라운드  
한국여성  
지도자연합 대전시지부  
청청현  
배재대학교  
페미니즘 소모임  
'90년대생  
유진이들'  
사회적기업  
'보리와 밀'  
도담도담  
맘스클럽  
대전다문화  
가족지원  
센터  
로컬푸드  
살림단  
'최고의 밥상'  
한남 글로벌  
창업&디자인 센터  
베트남 출단  
'베트남 마이 러브'  
대전배재대  
ICT융합새일센터  
대전사회  
서비스지원단  
제로  
웨이스트 샵  
'은영상점'  
전국주부교실  
대전광역시지부  
한줄  
상점  
대덕구청  
서구청  
(사)아트리  
관저동  
시·공·간  
MODU  
대안공간  
'케이트'  
증구청  
동구청  
대전평생  
교육진흥원  
대전여성  
단체연합  
스페이스  
SSEE  
대전새마을  
부녀회  
대전 경제교육  
센터  
대전여성  
새일지원본부  
대전여성  
인력개발센터  
신성동  
마을공동체  
'마실'  
대전여성  
새로일하기  
센터  
에이트  
태평2동  
여울림합창단  
커피볶는집  
시드풀  
대전건강  
가정지원  
센터  
넷제로  
공판장  
대전이주  
여성쉼터  
대전도시  
재생지원센터  
중구다문화  
가족지원센터  
민들레건강  
사회적협동조합  
아이코리아  
대전지회  
대전광역시  
약사회  
뉴그라운드  
한국여성  
지도자연합 대전시지부  
청청현  
배재대학교  
페미니즘 소모임  
'90년대생  
유진이들'  
사회적기업  
'보리와 밀'  
도담도담  
맘스클럽  
대전다문화  
가족지원  
센터  
로컬푸드  
살림단  
'최고의 밥상'  
한남 글로벌  
창업&디자인 센터  
베트남 출단  
'베트남 마이 러브'  
대전배재대  
ICT융합새일센터  
대전사회  
서비스지원단  
제로  
웨이스트 샵  
'은영상점'  
전국주부교실  
대전광역시지부  
한줄  
상점  
대덕구청  
서구청  
(사)아트리  
관저동  
시·공·간  
MODU  
대안공간  
'케이트'  
증구청  
동구청  
대전평생  
교육진흥원  
대전여성  
단체연합  
스페이스  
SSEE  
대전새마을  
부녀회  
대전 경제교육  
센터  
대전여성  
새일지원본부  
대전여성  
인력개발센터  
신성동  
마을공동체  
'마실'  
대전여성  
새로일하기  
센터  
에이트  
태평2동  
여울림합창단  
커피볶는집  
시드풀  
대전건강  
가정지원  
센터  
넷제로  
공판장  
대전이주  
여성쉼터  
대전도시  
재생지원센터  
중구다문화  
가족지원센터  
민들레건강  
사회적협동조합  
아이코리아  
대전지회  
대전광역시  
약사회  
뉴그라운드  
한국여성  
지도자연합 대전시지부  
청청현  
배재대학교  
페미니즘 소모임  
'90년대생  
유진이들'  
사회적기업  
'보리와 밀'  
도담도담  
맘스클럽  
대전다문화  
가족지원  
센터  
로컬푸드  
살림단  
'최고의 밥상'  
한남 글로벌  
창업&디자인 센터  
베트남 출단  
'베트남 마이 러브'  
대전배재대  
ICT융합새일센터  
대전사회  
서비스지원단  
제로  
웨이스트 샵  
'은영상점'  
전국주부교실  
대전광역시지부  
한줄  
상점  
대덕구청  
서구청  
(사)아트리  
관저동  
시·공·간  
MODU  
대안공간  
'케이트'  
증구청  
동구청  
대전평생  
교육진흥원  
대전여성  
단체연합  
스페이스  
SSEE  
대전새마을  
부녀회  
대전 경제교육  
센터  
대전여성  
새일지원본부  
대전여성  
인력개발센터  
신성동  
마을공동체  
'마실'  
대전여성  
새로일하기  
센터  
에이트  
태평2동  
여울림합창단  
커피볶는집  
시드풀  
대전건강  
가정지원  
센터  
넷제로  
공판장  
대전이주  
여성쉼터  
대전도시  
재생지원센터  
중구다문화  
가족지원센터  
민들레건강  
사회적협동조합  
아이코리아  
대전지회  
대전광역시  
약사회  
뉴그라운드  
한국여성  
지도자연합 대전시지부  
청청현  
배재대학교  
페미니즘 소모임  
'90년대생  
유진이들'  
사회적기업  
'보리와 밀'  
도담도담  
맘스클럽  
대전다문화  
가족지원  
센터  
로컬푸드  
살림단  
'최고의 밥상'  
한남 글로벌  
창업&디자인 센터  
베트남 출단  
'베트남 마이 러브'  
대전배재대  
ICT융합새일센터  
대전사회  
서비스지원단  
제로  
웨이스트 샵  
'은영상점'  
전국주부교실  
대전광역시지부  
한줄  
상점  
대덕구청  
서구청  
(사)아트리  
관저동  
시·공·간  
MODU  
대안공간  
'케이트'  
증구청  
동구청  
대전평생  
교육진흥원  
대전여성  
단체연합  
스페이스  
SSEE  
대전새마을  
부녀회  
대전 경제교육  
센터  
대전여성  
새일지원본부  
대전여성  
인력개발센터  
신성동  
마을공동체  
'마실'  
대전여성  
새로일하기  
센터  
에이트  
태평2동  
여울림합창단  
커피볶는집  
시드풀  
대전건강  
가정지원  
센터  
넷제로  
공판장  
대전이주  
여성쉼터  
대전도시  
재생지원센터  
중구다문화  
가족지원센터  
민들레건강  
사회적협동조합  
아이코리아  
대전지회  
대전광역시  
약사회  
뉴그라운드  
한국여성  
지도자연합 대전시지부  
청청현  
배재대학교  
페미니즘 소모임  
'90년대생  
유진이들'  
사회적기업  
'보리와 밀'  
도담도담  
맘스클럽  
대전다문화  
가족지원  
센터  
로컬푸드  
살림단  
'최고의 밥상'  
한남 글로벌  
창업&디자인 센터  
베트남 출단  
'베트남 마이 러브'  
대전배재대  
ICT융합새일센터  
대전사회  
서비스지원단  
제로  
웨이스트 샵  
'은영상점'

# 329

**소극장  
'핫도그'**

**대전 여성청소년  
얼티밋 팀  
'DSD'**

**삼수니  
밴드**

**단호한  
언니들의  
디스크  
'단디'**

**마임연구소  
'제스튜스'**

**대전 시립미술관**

**북까페  
'이데'**

**석교마을  
신문**

**청춘  
다락**

**핸비**

**(주)원도심  
레츠**

**유기농  
반찬가게  
'엄마처럼'**

**맞배집**

**회원제독서  
클럽·작은책방  
'유어왓쥬리드'**

**우연  
갤러리**

**하나은행  
콜센터**

**대전시 여성  
족구 동호회  
'스카이엔젤스'**

**대전 청소년  
위캔센터**

**대전 프랑스문화원  
대흥동 분원**

**청춘  
dododo**

**대전인생  
이모작지원센터**

**충남대학교  
여성주의  
실천동아리  
'BIGWAVE'**

**국군  
대전병원**

**보니파시오  
요양병원**

**대전 돌봄과 살림**

**소극장  
'드림아트홀'**

**대덕마더센터**

**대세코딩연구소**

**온누리  
요양병원**

**대전 교차로(주)**

**마루마을  
작은도서관**

**평송  
청소년  
문화센터**

**대전여성  
가족원**

**한국  
조폐공사**

**평송  
청소년  
문화센터**

**(주)신안레져**

**대전여민회**

**대전 청년  
쉐어  
하우스 '꿈꿀통'**

**대전 청년  
취수집 '복합문화공간 AREUM' &  
'갤러리 블'**

**대전여민회**

## 히스토리로 읽는 여·행·대·전

### ‘스물여섯 권’의 여정, 무엇을 어떻게 담았을까?

우리는 주류에서 다루지 않은 대전여성의 서사를 「여성이 행복한 도시, 대전」(이하 여행대전) 안에 거침없이 담아냈다. 여행대전은 대전지역 여성과 가족을 위한 정보를 공유하고, 성평등 문화 확산 및 인식 제고를 위해 매년 2회씩(6월, 12월) 출간해왔다. 2009년까지 대전광역시청에서 만들었던 여행대전은 이후 2010년 11호부터 대전여성가족정책센터에서 13년 동안 발간을 이어왔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여성, 가족의 관심과 이해를 반영하고 문제와 경험을 공유하는 작업이었다. 센터와 함께 한 여행대전 ‘스물여섯 권’의 자취를 기록해보고자 한다. <sup>w</sup>

#### 여행 대전

#### 기획부터 발송까지 **How t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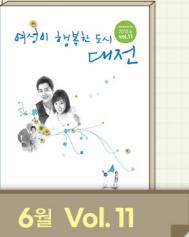


여행  
대전

## Timeline

**Vol. 1~Vol. 10**  
대전광역시청에서 발간

- 대전발전연구원 부설 여성가족정책센터로  
발행 담당 기관 이전



6월 Vol. 11

- 기획대담**
- 새로 출범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바란다
- ISSUE&VIEW**
- 워킹맘을 위한 시간연장 보육



12월 Vol. 12

- 기획대담**
- 여성이 행복한 도시, 대전에 대한 비전
- ISSUE&VIEW**
- 육아휴직제도 무엇이 문제인가?



~2009, 2010

20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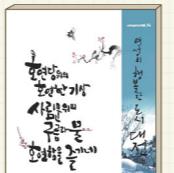
2011

2012

2012

2013

- 3. 14. 대전여성가족정책센터 공식 개소



12월 Vol. 14

**기획대담**

- 지역발전과 여성발전의 공생.  
2012년 총선을 바라보다

**ISSUE&VIEW**

- 여성용 변기 가 더 많아야 하는 이유?

**이야기들**

- '봉'으로 만드는 관저동 아줌마 놀이터,  
품앗이마을 카페
- 여성새로일하기센터, "경력단절  
여성들에게 재취업의 날개를 달아주다"



6월 Vol. 15

**기획대담**

- 여성가족정책의 Vision,  
19대 국회의원 당선자에게 듣는다

**ISSUE&VIEW**

- 취업을 꿈꾸는 여성이라면,  
여성새일지원본부문을 두드려보세요



12월 Vol. 16

**이야기들**

- 일하는 여성이 아름답다.  
여성인력개발센터 재취업 성공  
워킹맘 이야기

**함께하는 생각**

- 서양음악사 속의 여성 음악가들

**이야기들**

- 위풍당당 우먼파워.  
삼수니 밴드가 나간다



6월 Vol. 17

**기획대담**

- 지역공동체가 만드는  
여성이 안전한 도시, 대전

**이야기하나**

- 성별영향분석평가 정책개선 우수사례,  
"우리 대전, 이렇게 달라졌어요!"

**이야기들**

- 건강·생명·  
공동체를 지향하는  
'민들레건강사회적  
협동조합'



12월 Vol. 18

**기획대담**

- 1인 여성가구 200만 시대,  
그들의 주거는 안전한가?

**ISSUE&VIEW**

- 여성의 경력단절, 해법을 묻다

**이야기들**

- 마을부엌에서 어엿한  
사회적 기업으로,  
평화가 익는 부엌  
'보리와 밀'

**여우아놀자**

- 대흥동 교향곡





6월 Vol. 19

**기획대담**

- 전업주부 자존감,  
가사노동 가치 인정에서 출발

**ISSUE&VIEW**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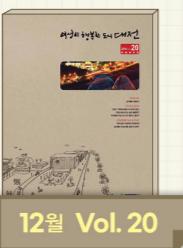
- '여친(女親)도시' 대전 어때요?

**이야기들**

- 청년 사회적 기업 '공감만세'  
• 보드게임으로 통하는 2080 세대공감



2014



12월 Vol. 20

**기획대담**

- 여성 시의원을 만나다  
“시민의 마음을 읽는 생활정치로 보답”



6월 Vol. 21

**기획대담**

- 여성 시의원을 만나다  
“시민의 마음을 읽는 생활정치로 보답”

**ISSUE&VIEW**

- 우리 동네 여성 1인가구  
특성은 무엇일까?

**GENDER TALK&PLAY**

- 일 할래, 육아휴직 할래?

**여우야놀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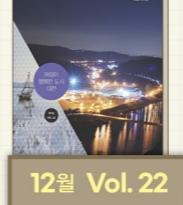
- 대전시여성축구동호회 스카이엔젤스,  
“수유실 이용해 보셨나요?”

**이야기들**

- 석교마을신문,  
“온 마을 아이들이 기자예요”



2014



12월 Vol. 22

**기획대담**

- 2016년 총선 유권자가 말하는 여성정책  
“사소한 것도 배려하는 도시에서  
아이 키우고 싶어”

**이야기하나**

- 청소년 꿈의 등반자,  
대전청소년 'WeCan'센터

**이야기셋**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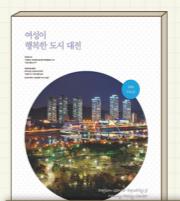
- 신성동  
마을공동체 마실,  
“신성동으로  
마실 오실래요?”

**함께하는 생각**

- 비정규직 차별은  
노동인권 침해?



2015



6월 Vol. 23

**기획대담**

- 육아휴직 용감한 아빠들을 만나다  
“아빠 왜 회사가?”

**ISSUE&VIEW**

- 하루 평균 43명 데이트 폭력,  
가해자 20~30대 절반 넘어

**DATING ♥ ABUSE****GENDER TALK&PLAY**

- “저는 여경이 아니라 경찰입니다”

**이야기셋**

- 대전청년쉐어하우스 '꿈꿀통'



2016



12월 Vol. 24

**기획대담**

- 1인가구 500만 시대,  
나 혼자 건강하게 살려면?

**ISSUE&VIEW**

- 1인가구 25년 만에 3배 급증,  
한국의 가족형태가 변하고 있다

**GENDER TALK&PLAY**

- 양육도 맞들면 낫다

**이야기셋**

- 작은책방, 유어왓츄리드  
You Are What You Read

**함께하는 생각**

- 조연에서 주인공으로,  
영화와 역사 속 여성 과학자들



2016



6월 Vol. 25

**기획대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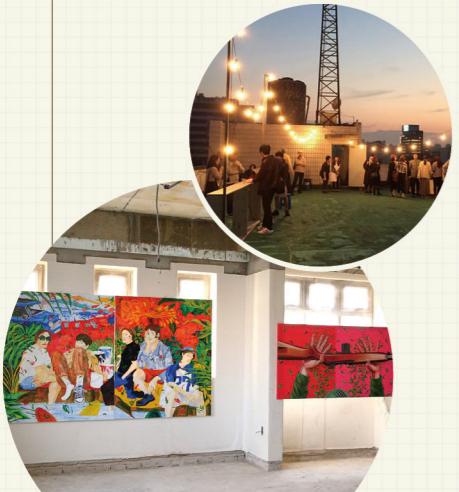
- 청년, 청춘에 대해 말하다  
“일자리에서 ‘살자리’로 넘어가는 정책 전환 필요”

**ISSUE&VIEW**

- 노동사회의 청년은 왜 단일한 범주로 인식되는가?

**이야기하나**

- 새롭게 바뀔 청춘과 공유의 공간, ‘청춘다락’으로 오세요



20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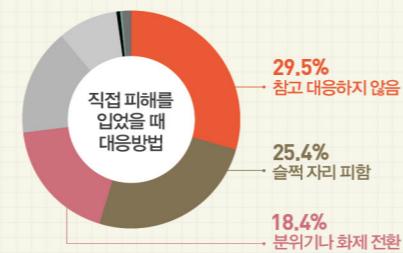
6월 Vol. 27

**기획대담**

- 직장 내 성희롱 예방.  
‘나도 피해자’ 고백부터 시작해야

**ISSUE&VIEW**

- 대전시, ‘직장 내 성희롱’ 실태를 진단하다



12월 Vol. 26

**기획대담**

- 젠더폭력을 이야기하다.  
‘젠더폭력 방지법’ 계기로 사회적 약자 향한 분노 고민해야

**ISSUE&VIEW**

- 디지털 성폭력,  
개인적 법의 침해 행위로 봐야

**GENDER TALK&PLAY**

- 가사분담은 OK, 주방일은 NO?

**이야기하나**

- 대전청년일자리카페 ‘꿈터’,  
“카페에서 취업준비 해봤니?”



2017



Main Theme  
**#성적 대상화를  
둘러싼 갈등**



12월 Vol. 28

**기획대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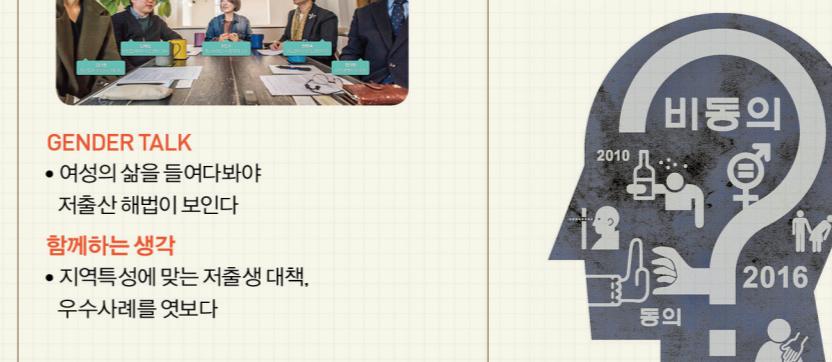
- 돈 없어서 연애도 못하는데 결혼과 출산?

**GENDER TALK**

- 여성의 삶을 들여다봐야  
저출산 해법이 보인다

**함께하는 생각**

- 지역 특성에 맞는 저출생 대책,  
우수사례를 엿보다



Main Theme  
**#지출생**



6월 Vol. 29

**기획대담**

- 성적 대상화?  
익숙하지만 외면하는 것!

**ISSUE&VIEW**

- 우리들의 성폭력 인식은 변화하고 있나?

**GENDER TALK**

- 성적 대상화,  
건강한 사회적 담론이 필요해

Main Theme  
**#탈코르셋**



12월 Vol. 30

**기획대담**

- 무거운 코르셋을 벼려야 할 때는 언제?  
바로 지금!

**GENDER TALK**

- 꾸미지 않을 자유

**문화와 젠더**

- 디즈니 공주들도  
코르셋을 벗기 시작했다



2018

2018

2019

2019

Main Theme  
#비혼

6월 Vol. 31

**기획대담**

- 혼자의 삶을 선택한 사람들

**ISSUE&VIEW**

- 뉴스 빅데이터로 살펴본 '이룩하는 비혼'

**GENDER TALK**

- 반려동물과 함께 출로 산다는 것

**함께하는 생각**

- 대전지역 비혼공동체 '비혼 후 캠'

**문화와 젠더**

- 비혼을 권하거나, 결혼을 권하지 않거나

Main Theme  
#형님문화

12월 Vol. 32

**기획대담**

- '그들만의 리그' 장벽, '백 명의 레퍼런스'로 부순다

**ISSUE&VIEW**

- 통계로 보는 형님문화

**GENDER TALK**

- '형님들'과의 슬기로운 의정생활

**문화와 젠더**

- 왜 최초의 여성 조각가는 법정에 서야 했을까?

Main Theme  
#일해도 가난한 여성

6월 Vol. 33

**기획대담**

- 지불되지 않는 그림자노동

**ISSUE&VIEW**

- 저임금과 무임금 노동, 위기의 여성 노동자들

**GENDER TALK**

- 여성 노인은 갑자기 가난해지지 않는다

**이슈더하기**

- 제로웨이스트

Main Theme  
#10대의 페미니즘

12월 Vol. 34

**기획대담**

- 평등과 공정을 말하다

**함께하는 생각**

- Daejeon Student Disc의 추억
- 청소년 페미니스트 네트워크 '위티', 10대가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이야기

Main Theme  
#예술하는 대전 청년

6월 Vol. 35

**기획대담**

- 우리들의 '예술'적인 이야기를 들어보시겠어요?

**ISSUE&VIEW**

- mlm프로젝트, 바닥에서 만들어가는 청년문화예술의 꽃

**GENDER TALK**

- 걷는 방법이 달라 느리게 걷는 '나'
- 우영우를 만나기까지 50년이 흘렀다

**문화와 젠더**

- '장애'가 장애가 되지 않는 사랑은 가능한가

Main Theme  
#여성과장애

12월 Vol. 36

**기획대담**

- 손내밀어 주시겠어요?

**GENDER TALK**

- 걷는 방법이 달라 느리게 걷는 '나'
- 우영우를 만나기까지 50년이 흘렀다

**문화와 젠더**

- '장애'가 장애가 되지 않는 사랑은 가능한가

2020

2020

2021

2021

2022

2022



『여성이 행복한 도시, 대전』을 만든 사람들

## 발간 스토리를 돌아보다

기획대담은 매호마다 지역사회 이슈를 대담자들과 이야기로 풀어냈습니다.

지금까지 100명이 넘는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 젠더 관점에서 지역의 오늘을 짚어보고, 앞으로의 과제를 발굴해왔습니다. 이번 호에서는 『여성이 행복한 도시, 대전』을 함께 만들어 온 사람들과 발간의 시작점부터 변화를 모색했던 발간의 전환기까지 돌아보고자 합니다.

책을 만들면서 생겼던 에피소드 그리고 비하인드 스토리, 지금부터 함께 들어볼까요?



**김성곤**

- 대전여성가족정책센터 전문연구원  
대전여성가족정책센터 발간 담당자  
(2018~2022년)



**김민영**

- 한남대학교 홍보팀 언론홍보담당  
외부 편집위원(2013~2019년)



**서한나**

- 대전 여성주의 기획자 그룹  
'BOSHU' 공동대표  
외부 편집위원(2021년~현재)



**송정욱**

- 대전세종성별영향평가센터 컨설턴트  
『여성이 행복한 도시, 대전』 발간 초기  
시청 담당자(~2009년)



**이예종**

- 디자인스튜디오 203대전 대표  
『여성이 행복한 도시, 대전』  
디자인 제작(2010년~현재)



**주혜진**

- 대전세종연구원 책임연구원  
대전세종연구원 여성가족정책센터  
내부 편집위원(2010~2020년)



**허용주**

- 대전광역시  
『월간 일류도시 대전』 편집장  
외부 편집위원(2011~2020년)

대전시 대전여성가족정책센터

Ep 1. 1호부터 37호까지 잇—다



**김성곤** 반갑습니다. 대전여성가족정책센터 김성곤입니다. 『여성이 행복한 도시, 대전』(이하 여행대전)이 올해 마지막 발간을 앞두고 있는데요. 처음 창간했던 2005년부터 현재까지 발간한 지 18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지금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함께 애써주신 덕분에 다양한 이야기를 쓸 수 있었습니다. 이번 기획대담을 통해 『여성이 행복한 도시, 대전』이 어떻게 성장해 왔고, 어떤 의미가 있는지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어보려 합니다. 그동안의 소회를 나누면서 시작해볼까요?



**송정욱** 저는 잊힌 사람이었는데, 이렇게 여행대전을 다시 생각할 수 있는 자리에 참여하게 돼서 감사합니다. 오늘 사실 차를 타고 오면서 가슴이 뛰었어요. '벌써 이렇게 시간이 흘렀구나' 생각이 들어서요. 한편으로는 오랜 시간 지속해왔다는 것이 뿌듯하면서 이렇게 정리하는 단계가 왔다는 점이 아쉽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 감정이 섞여 있는 자리네요.



**주혜진** 여행대전의 표지를 살펴보니 기억이 새록새록 나더라고요. 제가 참여했던 시간이 길었고, 생각도 많이 했을 사람 중 한 명일 거 같아요. 재미있는 일도 있었고, 아쉽고 잘못 하지 않았나 생각이 드는 것도 있고요. 또 여행 대전을 발간하면서 필자로든, 대담자로든 거쳐 간 분들을 많이 만났거든요. 그런 분들하고 인연을 맺게 된 것도 좋았어요. 이렇게 마무리하는 과정에도 참여하게 돼서 감사합니다.



**김민영** 저는 기자 생활을 할 때 처음 편집위원으로 참여했습니다. 책자를 만드는 과정을 잘 볼 수 있었던 계기가 됐어요. 지금은 이직을 해서 한남대학교 홍보팀에서 일하면서 여행대전과 비슷한 책자를 발간하는 일을 하고 있는데요. 문득 편집위원으로 참여했던 때가 떠오르는데, 그때를 생각하면 좋았던 기억이 많아요. 그래서 없어진다고 하니 아쉬운 마음이 가장 큽니다.



**이예종** 제가 디자인 회사를 오픈한 게 2010년이에요. 여행대전이 대전시 청에서 대전세종연구원으로 넘어와 만들어질 때 같이 시작했고, 지금까지 함께 해온 거죠. 그래서 저한테 큰 의미가 있는 책자죠. 여행대전을 하면서 일상적인 정보로만 이해했던 것들을 나의 삶과 연결해서 살펴보게 되더라고요. 개인적으로 깊이 있게 생각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됐어요. 그리고 디자

인 작업을 하면서 매호마다 어떤 변화를 줄지 고민했고, 그 흔적들이 책자로 남아 있지만 아쉬운 점도 많아요.

외부  
편집위원

**허용주** 저는 본업이 책을 만드는 사람이고, 제가 발간하는 책 같은 경우는 기사를 쓸 줄 알고, 책을 만들 줄 아는 전문가들이 모여서 만들어요. 그래도 매달 전전긍긍하고 있는데 사실 연구하는 센터에서 책을 낸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처음 여행대전 편집위원으로 참여할 때 '서로 가장 잘 할 수 있는 일에 집중해서 하면 좋겠다'는 조금은 건방진 생각을 한 적도 있어요. 책자 만드는 일이 에너지 소모가 큰 일인데, 이걸 이끌어 가려면 '실무진들이 얼마나 힘들까'라는 생각이 커어요. 차라리 그 에너지를 연구나 정책사업에 더 집중하는 게 나을 거 같았죠.

**김성곤** 맞아요. 저도 담당자로 참여할 당시 책자 한 권이 나오기까지 많은 고민과 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걸 알게 됐어요.

**허용주**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20여 년 가까운 세월 동안 책이 나왔다 는 거에 굉장히 놀랄지도 하고 감사한 일인 거 같아요. '실무진들이 정말 고생 많았다'라고 말하고 싶어요. 편집위원으로 참여했지만 사실 제 본업 이외에 또 하나의 일로만 느껴졌던 누군가 "여행대전에 과연 진심을 담아서 참여했느냐"고 묻는다면 사실 조금 부끄럽습니다. 지나고 나서 드는 생각이지만 조금 더 여성정책에 관심을 가지고 들여다봤으면 책이 나오는데 더 큰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아요.

외부  
편집위원

**서한나** 저는 센터에서 지역 여성의 삶에 관한 잡지를 만든다는 것 자체가 활동가로서나 시민으로서 감사했어요. 편집위원으로 논의 과정에 참여하면서는 기관에서 발행하는 매거진임에도 불구하고 첨예한 이슈를 잘 담아내려고 노력하시는 게 느껴져서 든든했고요. 이제 여행대전을 마무리하고 새로운 시작을 한다고 하니 그다음이 기대되기도 해요. 그동안 책 만드느라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모르는 곳에서 여행대전을 읽고 여러 생각을 하셨을 분들이 분명 있을 거라고 봅니다.

**김성곤** 전반적으로 다들 뿌듯함과 아쉬움을 동시에 느끼시는 거 같아요. 저희도 마찬가지인 거 같아요. 대전 지역에서 여성을 위한 매거진을 만들어 냈다는 뿌듯함을 가지고 있어요. 특히 타 지역 기관들에서 여행대전을 많이 참고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을 때마다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마지막 발간이라고 생각하니 아쉬움이 더욱 크네요.

## Ep 2. 최고의 순간들



**김성곤** 그럼 지금까지 발간된 여행대전 중 최고라고 생각하는 호를 한번 뽑아볼까요?

**이예종** 사실 최근 호가 기억이 많이 나더라고요. 저는 '형님문화'에 대해 다뤘던 32호가 가장 인상 깊었어요. 내용적인 면에서 베스트라고 생각했죠.

**주혜진** 이때가 외부 편집위원을 청년으로만 구성해서 함께했던 시점이에요.

**이예종** 이전과 달리 내용적인 변화가 많이 있던 호라서 선택했어요. 디자인 측면에서는 16호가 가장 기억에 남아요. 이때부터 디자인에서 다른 시도를 많이 해보려고 했거든요.



**허용주** 참여한 지 시간이 좀 지나서 어떤 콘텐츠가 들어갔는지 명확히 떠오르지 않더라고요. 그래도 곰곰이 기억을 되짚어 보니 '육아휴직 한 아빠들이 이야기'가 실렸던 23호가 생각나더라고요. 이 호가 나왔던 2016년 무렵부터 아빠들의 육아휴직 사용이 중요하다고 많이 논의되었지만, 사회적으로 누구나 공감하고 쉽게 육아휴직을 갈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니었던 걸로 기억해요.

**김성곤** 아빠가 육아휴직을 한다는 건 여전히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래도 이전과 달리 바라보는 시선이 조금은 나아지지 않았나 생각해요.

**허용주** 사실 이런 기획대담 한 번 있다고 해서 아빠들이 직장에서 눈치 안 보고 육아휴직을 갈 수 있는 환경이 바로 이루어지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런 노력이 모여 보다 더 긍정적인 변화로 나타난다고 봐요. 현재 아빠들의 육아휴직 환경은 급격하게 좋아지고 있다고 느껴져요. 그때 당시 아빠 육아휴직 콘텐츠를 했다는 게 지금 생각해 봐도 의미 있었다고 생각돼요.

**서한나** 시의적절한 주제였던 거죠. 매거진의 목적이 정보 제공 외에 이슈 확산도 있으니까요.

**허용주** '비혼'을 테마로 2020년에 나온 31호도 생각나요. 시간이 지나고 미래 사회로 갈수록 사람들이 공동체 얘기를 더 많이 하거든요. 혼자 사는 사람이 많아지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예전에는 동네가 한 조직이 되고 가족 자체가 하나의 공동체가 돼서 그 안에서 어울려 살 방법을 자연스럽게 체득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1인 가구 얘기가 평범하게 나올 정도의 시대가 되면서 사람과 사람 간 유대나 공동체 형성이 중요해진 거죠. 이런 부분을 다뤘다는 점이 시의적절하고 유의미했다고 봐요.



**김민영** 제가 참여하지는 않았지만, 흥미롭게 읽어본 게 '일해도 가난한 여성'을 테마로 한 33호에요. 콘텐츠들이 체계적으로 잘 구성되어 있더라고요. 여성 노인의 빈곤, 지불되지 않는 그림자 노동, 여성 노동자들이 경험하는 차별 등 촘촘하게 콘텐츠를 구성하고 통계 자료와 현장의 목소리도 담았다는 게 좋았어요. 이런 부분을 직접적으로 잘 알지 못했는데 알게 된 점도 있어서 재미있게 읽었던 호예요. 또 기관지에서 이런 부분까지 들여다볼 수 있는 여유가 생겼다는 것에 놀랄기도 했어요.



편집위원으로 참여하면서 여성정책의 내용 뿐만 아니라 만들어지는 과정을 깊이 있게 알게 됐어요. 또한 여행대전이 트렌드를 반영해왔다는 점, 여러 사람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는 점에서 기자로서 도움이 많이 됐어요.

**서한나** 33호는 제가 편집위원으로 참여했습니까.(웃음)

**김민영** 그리고 개인적으로 두 번째로 좋았던 호는 제가 참여했던 17호입니다.(웃음) 사실 기관에서 이런 걸 만들면 좀 일반적이고 흔한 이야기로 풀어내거든요. 그런데 17호는 뻔하지 않은 콘텐츠라서 기억에 남더라고요. 당시에 '여성 안전', '사회적 자본'에 대해서 신선히 다뤘다고 생각해요.

**송정옥** 저는 하나를 뽑기가 어렵네요. 5호부터 9호까지 제가 담당했던 이후 센터에서 만들면서 나온 책자들이 다 인상적이었거든요. 여행대전은 처음에 특수 시책으로 시작되었어요. 당시 공공기관에서 양성평등이라는 큰 주제로 내용을





기관에서 내는 잡지임에도 불구하고 여성 노동, 탈코르셋 등 깊이 있고 여성주의적으로 중요한 테마를 다뤘잖아요. 그런 것들이 굉장히 도전이었다고 생각해요.

구성하는데 상당한 부담감이 있었어요. 표지, 기획 대담의 주제 선정까지도 제약이 많았죠. 일반 행정직 공무원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책자를 발간하다 보니 관련 제도나 정책에서 주제를 찾았던 거 같아요.

김성곤 한계점이 많았군요.

송정옥 네. 책도 잘 안 읽는 제가 잡지를 얼마나 열심히 봤는지 몰라요.(웃음) 5호부터 외부 편집 위원이 합류하면서 내용에 깊이감이 생겼어요. 시작은 미미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다양한 분야의 편집위원들이 참여해주시고 다채로운 내용들로 구성해주면서 탄탄하게 자리매김한 거 같아요.

김성곤 미미했다고 하셨지만 여행대전의 토대를 만드신 거니까 큰 역할을 해주셨다고 생각됩니다.



**서한나** 저도 다 기억에 남지만 특히 최근에 만든 것들이 좋았어요. 형식적으로 내는 발간물이 아니라 원가 이야기를 담으려고 하는 게 느껴졌거든요. 시대의 흐름과 같이 가려고 하는 주제 선정부터 구성까지 좋았어요. 또 기획대담은 늘 패널을 다양하게 섭외하려고 노력하셨던 거 같아요.

**김성곤** 그런 점을 모두 잘 담았던 호를 꼽으신다면요?



**주혜진** 저는 '비혼'에 대해 다뤘던 31호가 내용이 밀도 있어서 특히 좋았어요. '비혼'이라는 키워드를 빅데이터로 들여다본 것부터 시작해서, 실제로 대전에서 비혼여성들이 어떻게 활동하고 있는지까지 구성했다는 점에서도. 비혼주의와 비혼주의자를 머릿속으로만 상상하는 걸 넘어서, 실제로 비혼을 결심한 사람들이 현실에서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까지 볼 수 있는 콘텐츠로 확장하신 점이 좋았어요.

**김성곤** 그렇다면 반대로 최악의 호가 있을까요? 제가 최악이라고 표현 했지만 테마 자체가 최악이라기보다 가장 힘들게 만들었던 호를 고를 수 있을 거 같아요.

**이예중** 저는 12호였어요. 12호가 겨울을 상징하는 눈 속의 매화와 당시 토끼의 해를 맞이한다는 의미에서 토끼를 넣은 표지였는데요. 이때 표지 작업이 상당히 어려웠어요. 의견 조율 과정이 길어지면서 의도와 조금은 다른 표지가 탄생했죠. 저를 괴롭게했던 토끼입니다.(웃음)

**주혜진** 아, 기억나요. 대표님하고 오랫동안 얘기했죠.(웃음)

**김민영** 표지하니까 생각나는데요. 25호부터 27호 표지 생각나세요? 정말 파격적이었어요.

**이예중** 여행대전 글자를 해체해서 표지 디자인했던 거요?

**허용주** 지금 봐도 정말 세련된 디자인이에요.

**김민영** 저희가 참여하는 게 마지막 호잖아요. 최악의 호는 이번 호 아닌가요.(웃음) 유종의 미를 잘 거둬야 할 텐데 말이죠. 편집에 참여해 본 사람으로서 어떻게 목차를 짜고 섭외하고 쓰는지 다 알고 있는데 최악의 호가 있을까 싶어요. 기획하는 사람이나 만든 사람의 수고를 생각하면 없어요.

-  95점 • 김민영
-  100점 • 서한나
-  85점 • 송정옥
-  97점 • 이예중
-  99점 • 주혜진
-  93점 • 허용주

**허용주** 담겨 있는 내용이 시민들한테 잘 전달되는지는 미미하게 느껴질 수 있어요. 하지만 어디에서도 하지 않는데, 우리는 여성과 관련된 책자를 만들고 있다는 점이 긍정적인 이미지를 홍보하는 데 효과적으로 작용할 수 있어요. 그런 점을 생각하면 정말 36호까지 훌륭하게 이뤄낸 거죠. 다른 지자체 기관에서 이렇게 한 가지 매거진을 오랫동안 낸 경우가 있나요?

**김성곤** 공공기관에서 여성 관련 내용으로 이렇게 오랫동안 발행한 경우는 못 본 거 같아요.

**허용주** 20여 년 가까운 시간을 발행해왔다는 것 자체가 상징적인 메시지를 주는 거죠. 값진 결실이지 않나 생각됩니다. 물론 출판사나 언론사가 아니기 때문에 내용상으로 꼼꼼하게 체크 안 된 부분들도 있었고 의도와 다르게 결정권자의 결정에 따라야 하는 한계가 분명히 있었죠. 뭐 이런 걸 마이너스라고 친다면 93점 어떨까요?(웃음)

**송정옥** 제가 처음 맡았을 때 다른 지자체에서 비슷한 걸 발행하고 있나 살펴봤고 없다는 걸 확인했죠. 그러면서 대전시만의 특화된 사업으로 진행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 저는 책을 어떻게 만드는지도 모르고 다른 업무가 과중 된 상태에서 병행하는 게 힘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했던 부분이 만족스럽지 않습니다. 제가 담당했던 것을 기준으로 자부심을 살짝 보태서 85점 주겠습니다.(웃음)

**김민영** 제가 기자로 일하면서 참여할 때는 감동이 크게 없었어요. 기관에서 이런 잡지도 발간하는구나 정도였죠. 그런데 제가 기관으로 이직하고 매거진을 만들다보니까 내가 원한다고 해서 모든 내용을 담을 수 없는 걸 느낀



### Ep 3. 여행대전, 제 점수는요?

**김성곤** 지금까지 나온 '여행대전'에 대한 소소한 평가를 해볼까 해요. 이번에 나올 호가 37호인데요. 36호까지 고려해서 점수를 주신다면 100점 만점에 몇 점을 주고 싶으신가요?(웃음)

**허용주** 재미있는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몇 점이 나오는지 물어보시는 거 맞죠?(웃음) 저는 책이 발행된다는 건 크게 두 가지 목적이 있다고 봐요. 여성 가족정책센터에서 발간하는 거니까 다양한 여성과 가족의 삶에 대한 이야기, 또는 관련된 정책을 알리는 것과 같은 정보 전달이 첫 번째 목적이라고 봐요. 두 번째 목적은 대전시에서 여성과 가족에 특화된 책자를 만들고 있다는 메시지를 던져주는 거죠. 이게 어떻게 보면 더 큰 효과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김성곤** 중요한 지점이네요.

무게감 있는 주제를 다룰 땐 주변에서 우려도 많이 했지만, 그 시기에 필요한 이슈를 다루는 게 중요했어요. 물론 한 주제로 여러 콘텐츠를 구성하는 게 쉽지 않았어요. 아쉬움도 있지만, 재미있는 작업도 많이 했어요.



거죠. 그런데 여행대전은 여성, 가족 이슈라는 큰 줄기를 가지고 지속적으로 구성해 나갔다는 점이 대단하다고 봐요. 시도 자체에 높은 점수를 주고 싶어요. 95점이요.

**이예종** 오랜 기간 함께 작업해 온 사람으로서 제가 점수를 매기는 게 맞나 싶어요. 오히려 평가 받아야 하는 거 아닌가 생각했어요. 여행대전을 만들면서 가장 감사한 부분이 주제에 맞는 다양 한 디자인을 시도할 수 있었다는 점이에요. 이런 시도를 지지하고 의견 조율해 준 센터 덕분이죠. 저는 97점 드리고 싶네요.(웃음)

**서한나** 저는 처음부터 100점 주려고 했어요. (웃음) 이예종 대표님의 말씀처럼 대담에 참여한 패널들의 이야기나 필자들의 글을 받을 때도 최대한으로 자율성을 지켜주려고 하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기관에서 내는 잡지임에도 불구하고 여성 노동, 탈코르셋 등 깊이 있고 여성주의적으로 중요한 테마를 다뤘잖아요. 그런 것들이 굉장한 도전이었다고 생각해요.

**주혜진** 편집위원들께 자율성을 충분히 드려야 멋진 게 나온다고 봐요. 무게감 있는 주제를 다룰 땐 주변에서 우려도 많이 했지만, 그 시기에 필요 한 이슈를 다루는 게 중요했어요. “독자에게 계속 말을 걸어 왔다”는 큰 칭찬을 들었는데, 기쁩니다.

**서한나** 기획할 때 어떤 주제를 할지부터 세대별로 인터뷰를 할지, 다양한 패널을 어떻게 섭외할지 고민하는 모습이 같은 지역에 사는 시민으로서 든든하다고 느껴졌어요. 할 수 있는 선에서 놓치는 거 없이 해야 한다는 마음과 방향성이 책의 구석구석 보여요. 물론 어떤 부분은 아쉬운 점이 있을 수 있지만 이러한 노력이 분명히 이 책을 본 사람들에게 전달될 거예요.

**주혜진** 한 주제를 가지고 기획대담부터 여러 세부 콘텐츠를 구성하는 게 쉽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 내용이 너무 다양해지거나 기존의 컨셉하고 조금 다른 방향으로 갈 때도 있었죠. 또 네트워크를 다 동원해서 지면을 채워야 하는 어려움도 있었고요. 아쉬움도 있지만, 재미있는 작업도 많이 했어요.

**허용주** 다른 발간물들하고 다른 걸을 다루고 싶은 바람이 책에 담긴 것 같아요.

**주혜진** 맞아요. 원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싶었어요. 연구원에서 내는 연구 보고서나 브리프와는 다른 걸 해보자는 거였으니까요. 저는 2020년까지 했고, 21년부터 새로운 내부 편집위원들이 하고 있는데, 계속해서 새로운 콘텐츠를 발굴하고 다양한 시도를 해왔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 점수는, 저의 과오 1점을 빼고 99점입니다.(웃음)

**김성곤** 다들 점수를 후하게 주신 거 같은데요?(웃음) 사실 저희가 평가는 아니고 평가 대상자라고 생각해요. 그래도 자체적으로 점수를 매겨보면서 여행대전을 만들어 온 시간을 떠올려보고 그간의 노력을 독자들이 공감해주시지 않을까 하는 마음이었어요.

**송정옥** 충분히 알아주실 거 같아요.

여행대전의 내용이 저의 일상에도 영향을 미쳤죠. 한 가지 예를 들면, 직원들의 육아휴직 사용에 있어서 생각이 달라졌죠. ‘법이 있으니까 해야지’라는 데서 그치지 않고 노동자의 관점에서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여행대전을 통해 배우고 이해하는 계기가 됐고, 그게 제 삶에 반영되더라고요.



## Ep 4. 슬기로운 엔\_딩, 그리고 Next

**김성곤** 그럼 이제 다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행대전이 삶이나 직장에 변화를 가져온 점이 있을까요? 역할과 참여한 기간은 다르지만 여행대전은 각자에게 어떤 의미와 변화를 줬을지 궁금합니다. 여행대전을 참여하기 전과 이후 달라진 점, 도움이 되었던 점, 자신이나 지역에 어떤 영향을 미친 거 같은지, 또는 어떤 변화를 가져왔는지 자유롭게 얘기해주세요.

**주혜진** 개인적으로 성장하는 계기가 됐다고 생각해요. 발간물하면서 정말 많이 배웠어요. 마음에 안 든다거나 잘못됐다고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계셨거든요. 그런 말을 들으면 다음 호에 대해 생각이 많아져요. 물론 그렇다고 여행대전의 방향성이 크게 달라지는 않지만 표현 방법을 고민하게 되더라고요. 조금 더 여러 사람에게 다가갈 수 있는 방법, 생각할 수 있는 힘을 길렸어요.

**김민영** 여성 기자로서 젠더 이슈에 대해 이야기를 하면 사람들이 “여자라서 그렇다”고 이야기 할까봐 사실 여성 이슈를 일부러 외면했던 거 같아요. 그런데 여행대전에 참여하면서 여성 정책의 내용뿐만 아니라 만들어지는 과정, 정

책에 영향을 받는 사람 등 깊이 있게 알게 됐어요. 또한 여행대전이 트렌드를 반영해왔다는 점, 여러 사람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는 점에서 기자로서 도움이 많이 됐어요.

**이예종** 저는 여성이자 회사를 운영하는 사업주로서 달라진 거 같아요. 여행대전의 내용이 저의 일상에도 영향을 미쳤죠. 한 가지 예를 들면, 직원들의 육아휴직 사용에 있어서 생각이 달라졌죠. ‘법이 있으니까 해야지’라는 데서 그치지 않고 노동자의 관점에서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여행대전을 통해 배우고 이해하는 계기가 됐고, 그게 제 삶에 반영되더라고요.

**김성곤** 디자인 측면에서는 변화되거나 달랐던 점이 있을까요?

**이예종** 처음에는 일반 기관의 발간물들과 비슷하게 작업했던 거 같아요. 즉, 디자인을 하는데 꾸미기에 집중해서 내용보다 그래픽을 앞세우는 거죠. 클라이언트들이 보통 그런 요구를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여행대전을 작업할 때는 오히려 내용에 집중해달라고 하셨어요. 의외였죠. 그래서 다양한 요소를 사용하지 않아도 임팩트 있는 디자인이 나올 수 있었던 거 같아요.

**서한나** 저는 2030 비훈 여성 100명 정도와 커뮤니티를 하고 있어요. 청년 여성들, 그중에도 비훈 여성들은 자신의 발언이 공적인 자리에서 받아들여지는 경험을 할 기회가 별로 없고, 긍정적인 피드백을 받는 경험도 적은 편이에요. 여행대전의 기획대담 코너를 통해 페미니스트 청년들의 발언이 사회적으로 받아들여지는 경험을 하게 된 것 같아 그 점이 가장 큰 변화라고 생각돼요.

**김성곤** 서한나 대표님은 작가로 데뷔하는데 도움은 안되었나요?(웃음)

**서한나**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웃음)



일상적인 주제라 하더라도  
조금 더 깊게 들여다보려고 했죠.  
그런 점에서 어떤 문제, 분야,  
또는 정책에 대해 시각을  
넓힐 수 있는 기회가 됐어요.



제가 전혀 관심을 두지 않았던  
여성 인권, 여성의 삶에 대해서  
누군가는 매일매일 그걸 밥 먹듯이  
고민하고 연구했기 때문에  
우리 삶이 조금은 나아진 거  
아닌가 싶어요.

**허용주** 제가 10년 정도 편집위원으로 참여했다고 해서 삶에 엄청나게 큰 변화가 있지는 않아요. 그래도 생각을 달리하게 된 점이 있어요. 연구나 학문에 대한 인식 변화예요. 정책에 있어서 현금을 지원하는 것이 가장 확실하고 빠르게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 차원에서 저를 포함한 시민들은 연구, 학문이라는 게 멀게 느껴져요. 도대체 얼마큼 연구해서 '실생활에 도움이 될까'라는 측면에서 보면 정책연구에 대해 공감하기 어려웠었죠.

**송정옥** 대부분 그럴죠. 일상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되지 않죠.

**허용주** 그런데 여행대전하면서 연구물도 많이 접하고 그 과정도 알게 되면서 '공짜로 얻어지는 거는 없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죠. 제가 전혀 관심을 두지 않았던 여성 인권, 여성의 삶에 대해서 누군가는 매일매일 그걸 밥 먹듯이 고민하고 연구했기 때문에 우리 삶이 조금은 나아진 거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내 삶과는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했던 연구나 학문적인 부분에 대해 조금은 더 진지하게 생각하게 됐어요. 왜 연구가 선행되어야 하고 중요한지, 여기에 돈을 써야 하는 이유가 분명히 있다는 걸 알게 됐죠.

**김성곤** 여행대전을 통해 시민들이 조금 더 쉽게 이슈와 정책을 접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만들었던 사람 중 하나로서 매우 공감합니다.

**주혜진** '한 가지 주제에 대해 이렇게나 많은 이야기가 있어'라는 걸 보여주는 게 중요하죠. 비혼이든 그림자 노동이든 어떤 화두에 대해 대부분 정책이나 법 외에는 기억을 못 하잖아요. 근데 여행대전을 통해서 이슈와 관련된 사람들이 다양하게 존재하고 각자의 경험이 다르다는 것을 알게 해준 것 같아요.

**김민영** 맞아요. 단순하게 주제 하나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다양한 활동과 커뮤니티가 있을 수 있고, 여기에 관여하는 사람이 많고 연결되는 지점이 있는 거죠.

**송정옥** 콘텐츠를 기획할 때 제가 먼저 그 분야를 알아야 하니까 정말 많이 찾아보고 읽었던 거 같아요. 일상적인 주제라 하더라도 조금 더 깊게 들여다보려고 했죠. 그런 점에서 어떤 문제, 분야, 또는 정책에 대해 시각을 넓힐 수 있는 기회가 됐어요.

**김성곤** 마지막으로 '여행대전'과 같은 발간물을 낸다면, 어떤 이름으로 무슨 내용을 담으면 좋을까요? 또는 발간물이 아닌 대전여성가족정책센터가 새롭게 진행해보면 좋을 만한 사업이 있다면 말씀해주세요.

**서한나** 대전지역 여성 생애구슬사 사업도 좋은데요. 단계적으로 하면 좋을 거 같아요. 우선 채록자 교육 및 양성 사업을 해도 좋고요. 아니면 기획대

담 콘텐츠만 영상이나 웹 형태로 만드는 것도 좋은 거 같아요. 온라인으로 정보를 접하는 게 쉬워졌으니까요.

**김민영** 저도 비슷한 생각이에요. 다양한 분야와 위치에 있는 대전지역 여성에 대한 백서를 내보는 거죠. 이처럼 아카이브 구축에 새로운 사업 초점을 맞추는 것도 좋은 거 같아요. 연구원이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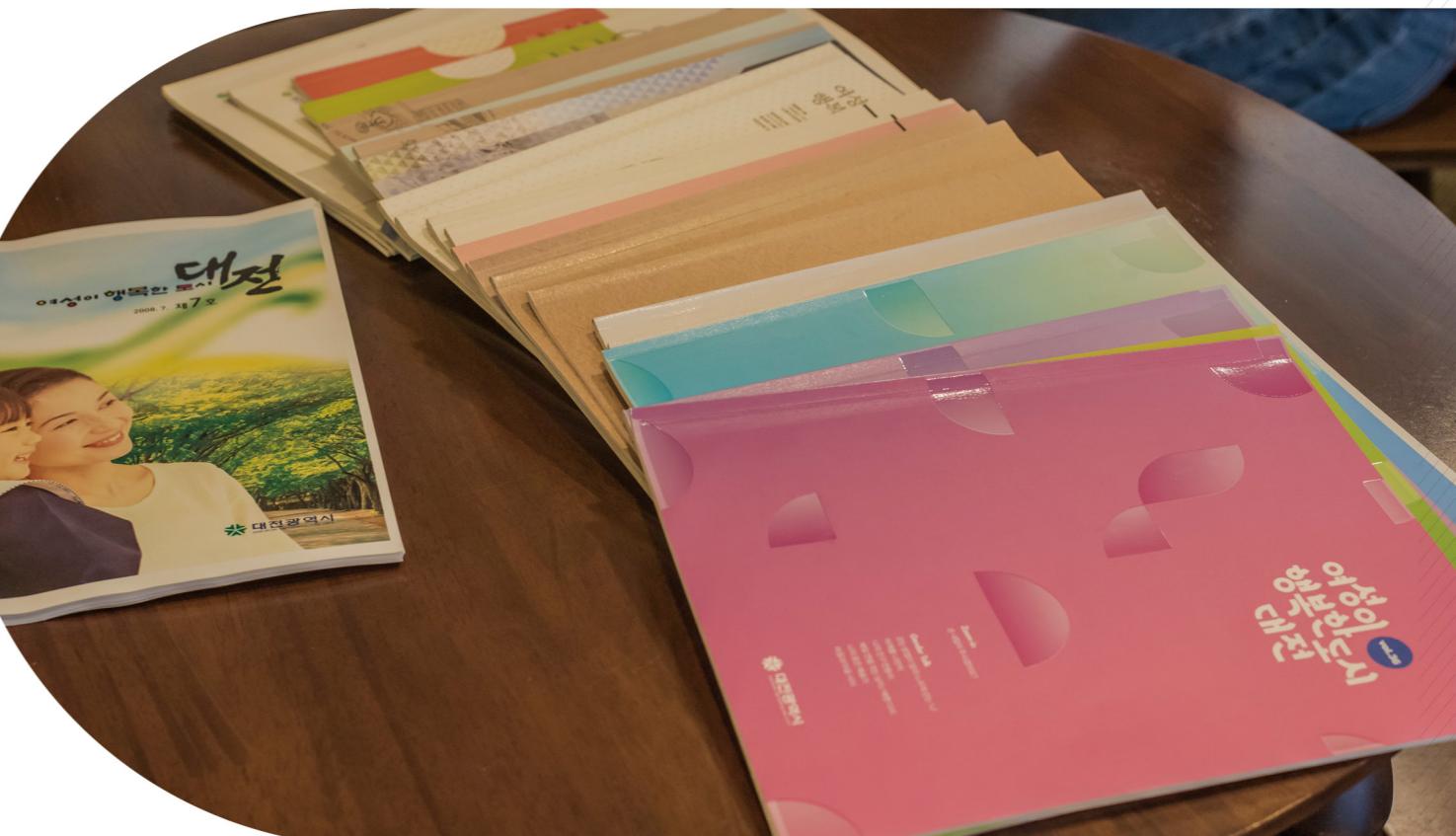
**이예종** 청소년부터 노년 여성까지 이들의 이야기를 인터뷰해서 시리즈로 내보는 것도 좋을 거 같아요. 지금까지 어떤 내용을 알려주기 위한 발간물이 있다면, 그와 다르게 하고 싶은 이야기를 들어주고, 응원하고, 기록하는 매체가 되어보는 거죠.

**송정옥** 그런 생각을 못 했는데. 이예종 대표님 제안 무척 좋네요.

**주혜진** 대전 여성이 누구인지, 어떤 사람들인지, 그들의 경험과 삶을 이해하고 기록하는 작업을 해보면 좋겠네요.

**허용주** 다들 말씀하신 것처럼 기존의 여행대전 일부 콘텐츠만 따와서 내용을 구성하거나 대전 여성에 대한 기록도 좋은 거 같아요. 다만 저는 온라인 형태의 제공보다 지금의 책자 형태를 유지하는 걸 제안하고 싶어요. 다만 지금보다 조금 더 품을 덜 들이고 판형을 바꾸는 방식으로 역사성을 유지하는 오프라인 책자로 가는 것이 유의미하다고 보아요. 한 권의 실물 책이 주는 따뜻함과 중요함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김성곤** 이상으로 대담을 마치고자 합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이 자리를 통해 여행대전의 역사 를 되짚어 보고, 각자의 생각과 경험을 공유한 것 같아요. 앞으로도 대전여성가족정책센터에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주세요. 감사합니다.



## “여행대전을 말해줘”

『여성이 행복한 도시, 대전』(이하 여행대전)은 기고와 대담, 인터뷰를 통해 끊임없이 다양한 사람들과 소통해왔다. 이들이 말하는 여행대전의 의미, 소감, 소회 그리고 대전 혹은 성평등에 대한 생각을 담기 위해 4행시 또는 글짓기 이벤트를 진행했다. 100명에게 묻고 40명이 답했다. 여기 그들의 이야기를 모았다. 

여기는 다채로운 아름다움이 가득한 대전  
행복, 기쁨, 자연, 소통이 함께 하는 대전  
대전을 만끽해 보세요  
전국의 친구들아, 대전으로 모여라!!!

이인원

장애와 여성장애인, 그리고 우리의 이야기를  
드러 낼 수 있는 기회와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감사했습니다.  
다양성이 존중되어 함께 누릴 수 있는 대전이 되길 소망합니다.

문진영

여전히 대전이 노잼 도시로 알려져 있다고  
행여나 정말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겠죠?  
대전은 실제로 대한민국 도시  
전체를 놓고 보아도 볼거리, 먹거리, 즐길거리 풍부한 여행할만한 도시

구기희

여성의 행복한 이야기  
행주치마 벗어던지고 자신을 찾은 이야기  
대전에서 오래 듣고 싶은데요  
전례없는 기회로 다시 돌아오지 않을까요?

공연화

여행대전이 어느덧 마무리된다니 아쉽네요  
행(항)상 우리곁에 있을거라고 생각했는데~  
대전 여성들의 삶과 소식이 담긴 또다른 소식지를 기다려봅니다  
전 꼭 기다리겠습니다♡

배지연

여성들이  
행실을 단속하지 않고 도전에 나서는  
대전  
전생 후생 통틀어 대전이 최고!

현지수

여성으로서 갈 수 있는  
행선지가 결혼이나 출산  
대신 다른 곳도 있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전부 여행대전 덕분입니다! 감사합니다

조수은

여행대전과의 이별이라니 정말 아쉽습니다  
행복한 대전을 위한 여성에 함께 할 수 있어 영광이었습니다  
대변자로서 여성의 목소리를 내주어 감사합니다.  
전달될 수 있다면 여행대전의 버전2를 기대합니다!

신윤실

여성과 아이가  
행복하게 느끼는 대전이면  
대전으로  
전입 인구가 대거 유입될 것 입니다

구미경

여행대전과 함께한 지 10여 년 정도 된 것 같네요.  
늘 기다려지고 또 지역의 성평등 이슈와 함께  
다양한 사람들의 생각을 나누고, 지역 단체들의 활발한 소식까지  
든든한 친구였었는데 마지막 발간이라니...  
마지막이라는 말은 늘 가슴 한켠이 아려오는것 같아 아쉽습니다.  
마지막 발간이 영원한 안녕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길 바라며  
멀리서 응원하겠습니다

김지찬

여유만만  
행복이 넘치는  
대전으로 오세요  
전지적 '꿀잼 도시'로

박태구

여기가 우리가 찾던  
행복 핫플이에요  
대전을 출발해  
전국 곳곳으로 가~유~

원구환

여행대전이 걸어온 여정에 함께할 수 있어 행복했습니다.  
함께했던 여행의 장은 이렇게 마무리되지만,  
각자의 길에서 걷다 보면 더 평등해진 도시에서 재회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심혜린

여러부~~운  
행복이 꿈꾸고 사랑이 자라는  
대전을 아시죠?  
전국의 고운님들~ 여기, 이곳, 대전으로 살려 오실거죠?ㅎㅎ

김예경

여러분!  
행복하세요~  
대전은 여성, 남성  
전부가 행복한 도시입니다

김현영

여행을 떠나요  
행복한  
대전으로  
전속력으로 밟아~!

전현주

여기서 시작한 대화가  
행동으로 이어졌다  
대전, 내가 사는 도시의 성평등을 위한 노력은 다음으로  
전달되고 이어질 것이다

김재섭

여성이 행복한 도시를 위해 노력한 많은 이들의 노고를 압니다  
성평등한 대전을 위한 마음  
대전시민들의 마음을  
전해주신 감사한 여행대전, 아쉽지만 더 좋은 만남으로 다시 만납시다.  
그동안 수고 많으셨어요 항상 기억할게요!

안소진

여러분~  
행복이 별거 있나요?  
대화로 서로 생각나누며 이해와 배려하는 삶!  
전보단 앞으로가 기대되는 대전입니다!

최한결

여기에 있습니다  
행동하는 여성들  
대성하는 여성들  
전국 여성들 대전으로 오세요

임은아

여기까지 달려오신  
행보에 박수를 드려요. 여행대전이 심은 씨앗이 언젠가 꽃으로 피어  
대전의 여성들뿐만 아니라  
전세계의 여성들이 행복해지는 그 날이 오기를 바라요

김한솔

여성가족정책센터 직원 여러분!  
행복한  
대전 여성 주민을 만들어 주기 위해 열심히 노력해 주셔서  
전(정)말 감사합니다!

구정원

여러분~  
행복하세요?  
대전에 사는  
전최고랍니다~  
유영진

내가 처음 이사와 살기 시작한 30년 전만 해도 대전은  
여러면에서 더욱 발전이 필요한 도시였어요. 전통과 역사의 그늘 뒤에  
특히 여성을 위한 문화나 정책은 보이지 않았지요. 그런 가운데 '여행대전'은  
꾸준한 계몽과 배려로 대전의 여성들을 행복하게 해주었는데, 아쉽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고마웠습니다. 더 발전된 모습으로 찾아와 주세요

이영순

여기에서 계속 살고 싶은 여성들이 있을 때  
**행복**이라는 미래를 상상하는 여성들이 있을 때  
 대전의 그 마음들을 담아왔던 여행대전이  
 전(정)말 그리울 거예요. 새로운 모습으로 꼭 만나요!  
 권사랑

여성이 행복한 도시를 위해 노력한 많은 이들의 노고를 암니다  
 성복한 도시  
 대전으로  
 전국의 여성들이 모두 안전해지는 그날까지!  
 오정임

여성의 삶, 그리고 소외받는 모든 소중한 삶들을 조명해주는  
 따뜻한 잡지 '여행대전'을 통해 공감과 위로를 받았고,  
 때로는 가르침도 받았습니다. 차별과 불의에 주목하는  
 이 든든한 마음들이 계속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대전에 거주하는 여성으로서, '여행대전'과 대전여성가족정책센터에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최지원

여성은 남성의 반대라고 편을 갈라야 할 대상이 아니며,  
 우리 사회가 존중하지 않았던 다양성을 상징합니다  
**행동**을 통해 바꾸고 회복시켜야 할 가치와 제도 뿐 아니라  
 편견과 차별, 혐오도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  
 대결이 아닌 대화로, 경쟁이 아닌 협력으로 사라져 가는  
 도시의 공동체가 대전 지역에서부터 회복되었으면 합니다  
 전쟁 같은 삶이 아니라 평화라고 느낄 수 있는 일상이  
 성별, 나이, 직업 등의 조건에 의해 나뉘지 않길 바랍니다

문성남

여성의 안전과  
**행복**, 평등이요? 요즘 세상 정도면 살만 하지 않나요?  
 대체로 관심 없습니다. 여성폭력, 스토킹이요?  
 전 그런 거 상관 없는 사람이에요. (sarcasm)

이 든

여행대전 고생 많으셨어요!  
 성평등을 위한  
 또 다른 이야기들을 담을  
 기회가 계속 이어졌으면 좋겠어요

정현

여성과 아이 모두 활짝 웃으며 살아가는  
 행복하고 안전한 우리 나라가 되기 위해  
 대전이 앞장서주세요  
 전국 최고 여행대전을 응원합니다

권소연

여성이  
행복한  
대전에서  
전살고 싶습니다  
박세윤

여성의 성취와 열정의 무대가 될 수 있는 곳  
행복을 친구와 함께 나눌 수 있는 곳  
대전이 되기를 바라며  
전하는 여성의 말에 귀 기울이는 여행대전  
안다해

나는 대전에서 계속 살고 싶은 여성 청년이다.  
하지만 대전이 지금처럼 계속해서 성차별적인 도시로서 기능한다면,  
이후에도 이 생각이 이어질지 모르겠다.  
대전이 지금보다 더 성평등한 도시가 되면 좋겠다.  
나와 내 친구들이 마음놓고 웃으면서 살 수 있길 바란다

정혜용

여성에게  
행동하고  
대답하는  
전지적 대전 시점이 필요해!  
박지우

여기 지금  
행복이 가득한 도시  
대전으로 놀러오세요. 가족 친구에게  
전화해~ 같이 놀러가자! 유잼도시 대전으로  
김장미

여성들의 궁극적 목표는  
행복이다. 부자되기,  
대박나기, 다들 원하는 바 이루고  
전부 다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송영서

여성과 남성, 아이와 노인, 모든 시민이  
행복한  
대전을 위해 노력한 그 마음은 ‘여행대전’을 통해  
전달받았습니다  
김유정

여행은 대전으로 오세요  
행복한 여행이 될겁니다  
대단한 행복은 아닐지 모르지만  
전대전을 정말 추천합니다! 여성에 행복한 도시, 대전♡  
정말 맞는 말인지 확인하려 대전으로 놀러오세요^^

서경숙

여행가자구요~  
행복하고 즐겁게~~ 가족들과 함께 어디로?  
대전으로 놀러가요! 과학의 도시 대전으로!  
전국 각지 여행계획 있으신 분들! 고민하지 말고 오세요!  
심나영

# 지역사회 이슈 더하기

대전의분야별 전문가, 활동가, 기관 및 단체 실무자 20명의 이야기를 실었다.

젠더 관점에서 바라본 대전, 주목할 만한 지역사회 이슈,

그리고 시민이 행복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남겨진 과제 등 이들의 경험과 생각을 공유하고자 한다.



38 김혜영  
대전광역시기독센터장



40 박란이  
대전광역시사회서비스원  
복지협력부장



42 정여주  
청운대학교  
사회복지학 교수



56 문진영  
대전여성장애인상폭력  
상담소 활동가



58 이주현  
KAIST 인권윤리센터  
부센터장



60 김난희  
HR연구센터 대표노무사



62 홍준기  
대전광역시  
노동권익센터장



44 김명주  
충남대학교 여성젠더학과  
주임교수



46 백효진  
한밭대학교 도시공학과  
연구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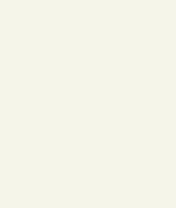
48 임다은  
로컬샵·동네책방  
'마물다가게' 대표



64 김세연  
대전여성단체협의회  
사무처장



66 전한빛  
대전여성단체연합  
사무처장



68 박이경수  
대전여성단체연합  
정책위원장



50 권사랑  
대전 여성주의 기획자 그룹  
'BOSHU' 공동대표/대전비혼여성  
커뮤니티 '비혼후캡' 운영자



52 권인호  
(주)윙윙 로컬커먼즈 이사



54 임유진  
대전 에코페미니즘 커뮤니티  
'피스어스' 대표/  
싱어송라이터 '유진술'



70 이은비  
(주)아트먼트 대표 / 미술사



72 한은성  
소외된 모든 것을  
조명하는 팀 '오토' 연극인  
/연극치료사



74 김윤희  
대전시 외국인주민  
통합지원센터장



76 박민정  
대전기아대책이주여성  
쉼터 소장



## 저출생 극복을 위한 '포용과 존중' 세상의 모든 가족과 함께

김혜영\_대전광역시가족센터장

"가족은 나의 대지이다. 나는 거기서 나의 정신적인 영양을 섭취하고 있다"고 펠 벅(Pearl Sydenstricker Buck)은 이야기했다. 가족이란 태어나서 처음 맞이하는 작은 사회로 개인이 태어나 살아가다 마감하는 종착지이기 때문에 인생의 방향을 결정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가족은 사회를 구성하는 기본단위이면서, 사회의 연결망을 이룬다. 개인이 가족을 이루고 살아내는 유기적인 관계성은 사회의 존속과 균형을 이루는 필수적인 행위라 할 수 있다. 그러므로 '건강한 가정'은 개인의 행복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이며 '건강한 사회'를 만드는 밑거름이 된다.



가족친화문화조성사업 '온(On)가족 행복 캠프'

### 가족센터, 예방부터 개입까지

가족센터는 여성가족부가 시행하는 가족정책의 주요 전달 체계로서 다양한 가족지원 정책을 제안 및 실행하기 위해 설립된 대표 기관이다. 2006년 대전광역시 가족센터는 지역주민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가족 안정성 강화 및 가족관계 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건강 가정지원센터라는 이름으로 출발했다. 2008년에는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정착과 적응, 사회·경제적 자립, 가족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가족 및 자녀 교육·상담, 통·번역 및 정보제공, 역량강화 지원 등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함께 운영하기 시작했다. 2016년에 들어서면서 가족의 유형에 따라 이원화된 서비스를 통합하기 위해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 센터'로 변경했으며, 지난해 센터명을 '가족센터'로 변경하여 특정 가족만이 이용한다는 편견을 줄이고 다양한 유형의 모든 가족에게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대전광역시 가족센터는 다문화, 한부모, 1인 가구 등 다양한 가족을 포함하고 자녀에서 부모 및 노인 세대까지 전 세대에 걸쳐 가족 구성원의 욕구를 고려한 수용자 중심의 가족통합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교육상담팀, 공동체문화팀, 특성화사업팀, 통합사례관리팀, 아이돌봄팀으로 운영되고 있다. 각 팀은 다양한 가족 유형을 대상으로 '예방'과 '개입'으로 나뉘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생애과정별로 다양하게 발생하는 가족의 문제를 예방하기 위하여 예비부부 및 예비부모 교육부터 건강하고 안정적인 임신, 출생, 양육환경 조성을 위한 부모 역할지원, 아버지 역할지원, 맞벌이 가정지원, 아이돌보미 파견 서비스 등을 갖추고 있다. 양육친화적인 사회환경 구축하기 위한 공동육아나눔터와 돌봄공동체는 물론 가족이 함께 할 수 있는 체험 프로그램과 가족봉사단도 운영하고 있다.

개입적 서비스로는 취약, 위기가정이 겪는 복합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경제, 의료, 법률 등 지역자원과 연계해 지속적인 사례관리를 실시하고 있다. 이밖에 다문화, 1인가구, 한부모, 미혼모, 공동체 가족, 암 생존자 가족, 장애 가족 등 다양한

가족의 생애주기와 발달과업을 파악하여 욕구에 맞는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진행하고 있다.

### 가족 형태의 변화와 국민 인식

가족 형태가 빠르게 변화함에 따라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지원이 필요한 가족을 선제적으로 발굴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가족 다양성'에 대해 먼저 이해해야 한다. '가족 다양성', '다양한 가족'은 현대 사회의 가족 변화를 표현하는 대표적인 말 중 하나이다. 비혼, 혼인, 이혼, 재혼, 입양 등 가족 구성이 다양해지고 부모·자녀라는 혈연 중심의 관점에서 형성되고 유지되어 온 가족의 표준이 점차 달라지기 시작했다.

여성가족부(2020) 조사에 의하면 국민의 10명 중 7명은 "혼인, 혈연 관계가 아니어도 생계, 주거를 같이하면 가족이란 데 동의하고 있다"고 했지만 가족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는 현장에서는 조사 결과와 다르게 다양한 가족에 대한 편견이 여전히 존재한다.

한부모 사업이 1955년부터 시작되었고 확대되었음에도 여전히 미혼모나 한부모는 서비스를 제공받는 것에 대하여 소극적이며 자신의 신분이 노출되는 것을 우려한다. 이는 우리나라에서 다양한 가족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라고 할 수 있다. 서구권에서는 혼인 유자녀 가족, 혼인 무자녀 가족, 한부모가족, 1인 가족, 조손가족, 동거커플 가족, 공동체 가족 등 가족의 범위를 다양하고 폭넓게 인정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혼인 유자녀 가족만을 정상가족으로 규정하고 있다. 다양한 유형의 가족들이 존재하고 그 가족이 비정상적인 것이 아니라 그저 다양한 가족 유형의 하나로 인식시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대한민국 민법에서 가족을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직계혈족의 배우자'로만 규정하고 있는 것을 확대, 개정할 필요가 있다. 다양한 가족 형태가 차별과 편견 없는 시선으로 존중받을 수 있기 위해 인식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다차원적인 가족의 삶을 실효성 있게 지원하기 위해 대전시는 시민을 대상으로 '다양한 가족에 대한 인식 및 실태 조사'를 추진해야 한다. 이를 기반으로 대전시에서는 다양한 관계를 법적으로 수용하고 지원하는 제도를 마련함으로써 가족 유형별로 촘촘하고 탄탄한 정책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가족 형태가 확장되어가는 현실에 맞추어 가족 정책을 세우고, 서비스를 지원함으로써 아이를 낳아 기르며 오랫동안 머물고 싶은 건강하고 행복한 대전시가 되어야 한다. W



가정 형태에 상관없이 똑같이 제공한다. 키우는 어른이 아니라 태어난 아이를 중심으로 제도를 설계했기 때문이다. 그 덕에 출생률 하락을 면치 못하던 프랑스의 합계출생률은 2020년 기준 1.8명으로 유럽 최고 수준이 되었는데, 그해 프랑스 비혼 출생 비율은 62.2%였다. 이렇듯 다양한 형태의 생활공동체를 법과 제도로 인정한 것은 출산율 상승에 지대한 기여를 하고 있다.

2023년 7월 기준 우리나라의 출생률은 0.7명으로 급격한 하락률을 보이며 큰 위기에 당면해 있다. 다양한 가족에 대한 법적 제도를 확장하고 선입견을 내려놓는 포용적 문화가 인구 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절실히 필요하다.

다양한 가족 형태가 차별과 편견 없는 시선으로 존중받을 수 있기 위해 인식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다차원적인 가족의 삶을 실효성 있게 지원하기 위해 대전시는 시민을 대상으로 '다양한 가족에 대한 인식 및 실태 조사'를 추진해야 한다. 이를 기반으로 대전시에서는 다양한 관계를 법적으로 수용하고 지원하는 제도를 마련함으로써 가족 유형별로 촘촘하고 탄탄한 정책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가족 형태가 확장되어가는 현실에 맞추어 가족 정책을 세우고, 서비스를 지원함으로써 아이를 낳아 기르며 오랫동안 머물고 싶은 건강하고 행복한 대전시가 되어야 한다. W



## 돌봄을 돌보는 곳, 사회서비스원

박란이\_대전광역시사회서비스원 복지협력부장

사회서비스원의 설립이 화두가 되었던 시기, 사회복지현장에서는 여러 갑론을박이 있었다.

정부는 사회서비스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종사자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 '사회서비스원'을 설립한다고 하였으며 17개의 광역시·도에 사회서비스원이 설립되기 시작했다. 보육, 요양, 재가서비스 등으로 대표되는 사회서비스는 시민에게 직접적으로 돌봄을 제공하는 영역이기 때문에 우리의 생명과 직결되며 우리의 삶을 유지하는데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 할 수 있다. 정부는 그동안 민간에 지나치게 의존한 결과 시설 운영에 대한 신뢰도를 담보할 수 없고, 서비스의 질 또한 확보할 수 없기 때문에 이를 개선하기 위해 사회서비스원을 설립하여 '서비스의 공공성 및 좋은 일자리 창출과 서비스 품질을 제고하겠다'고 하였다.

### 사회서비스와 사회복지는 같다?

그렇다면 사회서비스는 무엇일까? 사회복지와 같은 것일까? 다른 것일까?

사회서비스의 법적 정의는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에 언급되어 있다. 사회서비스란 도움이 필요한 모든 국민에게 복지, 보건의료, 교육, 고용, 주거, 문화, 환경 등의 분야에서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고 상담, 재활, 돌봄, 정보의 제공, 관련시설의 이용, 역량개발, 사회참여 지원 등을 통하여 국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지원하는 제도라고 설명한다. 즉 개인 또는 사회 전체의 복지증진 및 삶의 질 제고를 위해 사회적으로 제공하는 서비스로 사회복지, 보건의료, 교육, 문화, 주거, 고용, 환경 등을 폭넓게 포함하며, 노인, 아동, 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한 돌봄 서비스를 총칭하는 것 이기도 하다. 따라서 사회서비스는 사회복지와 포함하는 보다 큰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 열악한 돌봄 시장에 유입된 여성들

우리나라는 2000년대 들어 장기요양보험 등 다양한 공적 사회보장제도가 확대되었다.

이는 저출생, 고령화 등으로 1~2인 가구의 증가, 여성의 노동시장 진입 증가 등으로 더 이상 돌봄의 책임을 가정에 지게 할 수 없으며, 돌봄에 대한 사회적 책임이 국가에 있다는 인식이 확대되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돌봄은 자연스럽게 시장에서 돈으로 거래해야 하는 상품이 됐다.

사실 그동안 우리 사회는 돌봄을 그리 중요하지 않은 일로 가치 저하해 왔으며 돌보는 일은 전문가가 아니어도, 많이 배우지 않아도 누구나 할 수 있는 일로 치부되어 상품시장에서 그 값이 제대로 매겨지지 않았다. 이로 인해 돌봄은 가정의 담벼락을 넘어 시장에서 조차 저임금의 일자리가 되었고 그 끝은 고스란히 여성의 일자리가 되어 많은 여성이 열악한 돌봄 시장에 유입되었다.

보육교사, 장애인활동지원사, 요양보호사, 생활지원사, 아이돌보미 등 우리가 주변에서 가장 많이 보거나 만날 수 있는 사회서비스 종사자들 대부분이 여성이라는 점에서 드러난다.

이러한 돌봄의 현실은 코로나19 팬데믹을 경험하면서 수면 위로 드러나게 되었다. 어린이집과 학교가 문을 닫고 노인 및 장애인 시설들이 감염의 위험으로 폐쇄되면서 당장 돌봄을 받아야 하는 영유아, 아동, 노인, 장애인 등 가족 구성원들의 돌봄이 사회적으로 가시화되고 이슈화됐다. 역사적으로 돌봄은 사회의 구조적 문제를 고스란히 안고 있다. 빈부, 젠더, 계급, 노동, 교육 등 전통적인 권력의 역학 관계가 돌봄 노동 속에 존재해 왔기 때문에 사회적으로도 돌봄의 가치가 가볍게 취급되어왔다. 그동안 우리나라에서 돌봄은 경제적으로 부유한 사람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을 고용하는 것처럼 치부되어, 유모, 가



## 성폭력 예방 및 근절 합동 캠페인 "위기를 넘어 희망으로"

천광역시, 대전경찰청, 대전여성폭력방지상담소·시설협의회, 대전광역시사회서비스원, 대전교통공사, 여성긴급전화1366대전센터



연대활동

정부, 파출부, 집사, 베이비시터 등 다양한 이름과 역할로 여성의 또 다른 일자리가 되어 존재해 왔다.

### 지속 가능한 돌봄 생태계 마련

사회서비스원은 이러한 돌봄을 돌보는 기관이다. 사회서비스원은 돌봄의 공공성뿐만 아니라 돌봄 종사자의 처우, 돌봄 종사자의 안전 등을 돌보며 돌봄의 가치가 충분히 인정될 수 있도록 하는 책무를 안고 있다.

대전시사회서비스원은 대전복지재단이 확대·전환되면서 민·관협력이 매우 활성화되어 이를 통해 다양한 돌봄을 지원한다. 돌봄 환경에서 발생 가능한 폭력, 폭언 등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여성긴급전화 1366 등과 협력하여 안전한 돌봄 체계를 구축하였고, 일·가정 양립 및 양성평등 문화 확산을 위해 서비스원에서 운영하는 교육에 양성평등 강의를 배치했다.

또한 돌봄 종사자의 소진을 예방하기 위해 보육교사,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사례관리사 등 쉼이 필요한 종사자가 심신의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도우며, 돌봄서비스 중에 발생 가능한 심리적 고충을 지원하기 위한 1:1 심리상담을 전문 기관과 연계하여 지원한다. 그 외에도 종사자의

휴가 등으로 생기는 공백을 지원하는 대체인력 지원사업 및 사회복지종사자 처우 개선 연구, 지역사회통합돌봄체계 구축 등을 통해 대전이 지속 가능한 돌봄 생태계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 돌봄이 잘 돌보지는 '돌봄 도시 대전'

2025년 초고령사회 진입을 눈앞에 두고 있는 대전은 더 많은 돌봄 서비스와 돌봄 종사자가 요구될 것이며 영유아부터 장애인, 노인 등 향후 돌봄의 수요 또한 더 확대되고 중요해질 것이다. 이제 사회서비스원은 돌봄의 틈새와 사각지대를 메우고 돌봄 종사자의 처우와 안전을 돌보는 역할 뿐 아니라 모든 시민이 돌봄에 별목 잡하지 않는 대전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데에도 더욱 집중해야 할 것이다.

우리는 요람에서 무덤까지 어느 누구도 돌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사람은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걸음마를 뗄 때, 어린이집에 갈 때, 학교에 갈 때, 아플 때 등 끊임없이 돌봄의 연속인 삶을 살아간다. 누구나 돌봄의 주체가 될 수 있고 돌봄의 대상도 될 수 있는 이 사회에서 돌봄의 가치가 인정되고 돌봄이 잘 돌보지는 따뜻하고 아름다운 '돌봄 도시 대전'을 기대해 본다. [W](#)



## 저출생 시대의 혐오

정여주\_청운대학교 사회복지학 교수

사회에서 마주치는 다양한 사람 중에는 상식적이지 않은 행위 등으로 얼굴을 징그리게 만드는 이들이 있다.

그때마다 불쾌감을 느끼게 되지만 일반적으로 일부 노인의 문제를 노인 전체의 문제로,

일부 학생의 문제를 학생 전체의 문제로 일반화하지 않는다.

그러나 일부 여성의 문제는 모든 여성의 문제로 일반화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다.



### '맘충'과 '노키즈존'

우리 사회에 어느 사이엔가 '된장녀', '김치녀', '김여사' 등의 여성들을 비하하는 여러 단어를 쉽게 사용하고 있다. 이러한 용어 중 특별히 '맘충'은 엄마를 뜻하는 '맘(mom)'과 벌레를 뜻하는 '충(蟲)'이 결합한 것으로 아이가 있는 여성의 몰지각한 행위를 일컫는 비속어로 쓰이고 있다. 아이가 있는 일부 여성의 비도덕적인 행동을 봤을 때, 그 여성처럼 모든 이들이 비난의 대상이 돼야 하는 것 아니라 비도덕적인 행동을 한 그 여성 개인의 문제로 생각해야 한다. 그러나 지극히 예외적인 상황에서만 사용하던 이 단어는 최근 아이를 둔 여

성을 향해 무차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것 같다. 공공장소에 아이를 데리고 오는 젊은 엄마를 '맘충'이라 부르며 조롱하는 언어로 쓰이는 듯하다. 여기에 더해 최근 점점 증가하고 있는 '노키즈 존'은 아동 혐오와 더불어 아동과 함께 하는 여성에 대한 비하의 뜻이 강하다. 이러한 '노키즈존'이 드세하는 배경에는 아동을 독립적인 인격체로 대우하지 않는 사회 풍토가 있다. 아이는 어른에게 딸린 객체이기에 어른의 의지로 통제 가능한 존재라는 인식이다. 장애인 출입 금지, 성 소수자 출입 금지, 유색인 출입 금지의 잘못된 점을 지적할 수 있는 사람들이 어린이 출입 금지 구역이라

“

많은 여성들은  
붕괴된 사회에서 집에  
홀로 갇혀 독박 육아를 하고,  
아이를 데리고 집 밖으로  
나오면 '맘충'이 되지 않기 위해  
전전긍긍할 수 밖에 없다

”

이들 전체가 입장을 거부당하는 이 상황에 대해서 아무도 문제 제기를 하지 않았다. 아이를 데리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많은 부모들은 출입에 제한을 겪게 되고, 이러한 상황 또한 당연히 받아들여지고 있다.

'맘충'과 '노키즈존'에 대한 논란은 결혼을 앞둔 미혼여성이나, 곧 출산하는 기혼여성들에게도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다. 이러한 논란이 또 하나의 여성혐오 현상으로 번져면서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사회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아이를 데리고 다니는 아빠에 대한 '파파충' 혹은 '아저씨충' 같은 용어는 없다. 이는 여성에 대한 또 다른 비하를 의미한다.

### 저출생 현상의 근본 대책을 고민해야 할 때

지난 9월 5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출생률, 출생아는 전년보다 각각 0.81명에서 0.78명으로 떨어졌다고 보고되고 있다. 17개 시·도로 보면 16개 지역에서 저출생 현상이 심화됐으나, 대전의 출생률, 출생아는 각각 0.84명으로 전년과 비교해 0.03명 떨었다. 2015년 1.28명 이후 계속 내려가던 대전의 출생률이 오른 건 7년 만이 이라고 하는데 이에 대해 파격적인 출산 지원책 도입이 주요 요인으로 꼽힌다. 대전시는 지난해 1월부터 대전형 양육기본수당을 시행, 생후 36개월까지 매달 30만 원씩 최대 1,080만 원을 지급하고 있다.

하지만 대전의 출산율 반등을 같은 생활권인 세종의 급락과 연결 지어 보면 긍정적으로 평가하기 어렵다. 세종 거주자 중 아이를 낳으려는 가구가 대전형 양육기본수당을 받기 위해 대전으로 이사하거나 주소지만 옮겼을 가능성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되고 있기 때문이다. 세종은 출산 직후 주는 축하금 120만 원 외에 대전처럼 매달 고정 지급하는 수당이 없다. 실제 세종 출산율은 지난해를 기점으로 출생률이 1.12명으로 전년 대비 0.16명 내려갔다. 이에 출산지원금이 대전 출생률을 올렸을지언정, 전체 저출생 완화에는 기여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같이 특정 지자체가 출산지원금을 쏟아붓자 인접 지역 출생률이 떨어진 건 대전만의 이

야가 아니다. 2021년 광주광역시가 출산지원금을 늘리자 광주 출생아는 늘었으나, 인근 시·군이 출생아가 줄었던 예가 있다. 결과적으로 대전에서 양육수당을 36개월까지 주는 게 단기적으론 인접 지역 출생아를 끌어들일 수 있어도 근본 대책으로 보긴 어렵다.

### 누군가를 배제하지 않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야

대전시에서는 올해부터는 난임부부 지원에 있어 소득 기준 폐지, 신규 사업 추진 등 출생률을 높이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으나 출생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특정 지자체에서의 노력만으로는 해결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국가 차원에서 출생률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정책과 함께 출산에 대한 사회문화적 의식을 변화시킬 수 있는 다양한 노력이 필요해 보인다. 또한 우리 지역은 대전광역시 여성가족정책의 효과적 실현과 추진을 지원하는 대전여성가족정책센터가 운영되고 있는 만큼 다양한 정책과제를 통해 실질적인 대전형 사업의 운영이 필요하다.

유럽 대다수 국가에서는 '맘충'과 같이 여성을 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할 경우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젠더 폭력을 처벌하는 법을 시행하고 있는 벨기에에는 이 법에 따라 여성혐오를 의미하는 말로 젠더 폭력을 저질렀을 경우 최대 징역 1년, 1,000 유로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한다.

아프리카 속담에는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말이 있다. 부모만 아이를 키우는 것이 아니다. 사회적인 존재로 성장해 가기 위해 아이는 많은 성인의 도움이 필요하다. 저출생 문제에 대해 심각성을 이야기 하지만 아이들은 피해 주니까 나오지 말라는 '배제의 존재'로 처우한다면 우리 사회는 저출생 문제를 진정으로 해결할 수 없을 것이다. 많은 여성들은 붕괴된 사회에서 집에 갇혀 독박 육아를 하고, 이를 데리고 집 밖으로 나오면 '맘충'이 되지 않기 위해 전전긍긍할 수 밖에 없다. 이를 배제할 것이 아니라 성평등과 관련한 다양한 인식이 우리 사회에 스며들 수 있도록 각종 노력이 필요할 때이다.



## 대전에도 여성젠더학과가 있습니다

김명주\_충남대학교 여성젠더학과 주임교수

충남대학교는 2021년 3월 여성젠더학과(대학원 협동과정) 석사과정을 설립했고, 2년 후 2023년 3월 박사과정도 개설했다. 충남대 여성젠더학과에는 현재까지 석사과정에 18명, 박사과정에 2명이 입학했다. 첫 시도치고는 꽤 성공적이다. 여성젠더학 협동과정은 신생 대학원 프로그램이지만,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겸무 교수의 수는 현재 14명, 교수 규모만 보면 서울대 다음 전국 2위다.



### 지역에서 여성학하기

한국 대학의 여성학과는 1990년대부터 2005년 까지 전성기를 이뤘다. 2005년 마침내 호주제를 폐지하는 역사적 성과를 이뤄냈으나 이후 페미니즘 운동은 동력을 상실했고 학계의 여성학도 주춤했다. 급기야 2007년 말 숙명여대에 이어 성신여대의 여성학과가 폐지되면서 여성학과는 암흑시대에 돌입했다. 그러나 2016년 '강남역 살인 사건'이 발생했다. 이 사건은 남성에 의한 한 여성의 폭력적 죽음이 개인을 넘어 사회적 트라우마

로 자리 잡았고 여성에 대한 폭력과 차별을 집단적으로 각성하게 만든 획기적 사건이었다. 이후 대중 페미니즘, 페미니즘 리부트의 발단이 됐다. 즈음 대학은 이미 신자유주의적 경영으로 트렌드가 급격히 전환되었고, 자유나 평등보다는 실질적으로 돈이 되는 분야와 사업을 선택하고 그에 집중하던 터였다.

한국의 대학 여성들이 여성학의 필요성을 절감하면서도 현실적 불가능성에 개탄할 뿐 차마 나서지 못하던 사이, 충남대가 여성젠더학과를 설립했다는 소식이 들려오자, 각계각층에서 "감

각종 비판에 귀 기울이되 우리는 타당하다고 최종 판단한 목표를 향해 뚜벅뚜벅 걷는다.

”

을 도입하는 연구에 도전하며, 지역 페미니즘 운동의 현실적 쟁점을 발굴하여 연구한다. 뿐만 아니라 대전/충남/세종 지역 지자체의 여성 정책 수립을 위한 토대 연구를 지원하고 여성가족정책 센터와 같은 타 연구기관과 공동연구도 모색한다. 또한 대전지역의 여성단체들과 긴밀한 연대를 통해 구체적 실천과 활동에 협력하고자 한다. 그리하여 충남대학교 여성젠더학과는 모든 여성/인간/비인간이 공정하게 대우받는 사회를 창조하는 데 기여하고, 여/남, 인간/비인간의 상호 의존성에 대한 의식을 고양하며, 전 지구적이고 지역적으로 연결하여 적극적인 협력과 협동을 실현하려는 원대한 비전을 지닌다. 여성젠더학과의 핵심 가치는 여성 개인의 임파워먼트, 사회적 연대, 상호존중이다.

히? 어떻게?"라는 비아냥, 의심, 공격이 쏟아졌다. 물론 칭찬도 있긴 했다. 의심과 공격은 웬만큼 예상된 바였으나, 각각의 수위와 강도는 예상 밖으로 높고 강력해서 칭찬은 거의 들리지 않았다. 주임교수 연구실, 학과 사무실, 대학원장실, 심지어 총장실에까지 설립 전 무려 한 달 동안 항의 전화가 빗발쳤다. 대학교 정문에는 교대로 일인 피켓 시위가 열리고, 우리의 설립을 반대하는 유튜브 방송이 몇 개 만들어지고 유통됐다. 그래도 참을만했다. 가장 충격적인 사건은 학내 기독교수회 일부 교수들이 소심하게 내민 소위 '성명서'였다. 정당한 일을 반대하는 일부 교수들은 스스로 부끄러웠던 모양이다. 그래서인지 성명서엔 어떤 이름도 없었다. 일부 교수의 무지와 완고함에 기가 막혔다.

### 여성주의 담론 생산에서 실천까지

비아냥, 의심, 공격에도 불구하고 충남대 여성젠더학과는 명확한 미션과 비전, 핵심 가치를 설정하고 출발했다. 우리의 기본 미션은 페미니즘 교육, 연구, 실천이다. 여성젠더학과는 14명 교수들의 공신력과 전문성 있는 페미니즘 교육을 통해 지역 페미니즘 전문가를 양성하고, 지자체 공무원의 재교육, 평생교육 차원의 시민 의식 교육, 학부생에 대한 페미니즘 교양교육을 미션으로 삼는다. 또한 대중 페미니즘의 부활에 대한 양분화된 페미니즘 담론을 통합 내지 공존을 모색하는 담론으로 생산하고, 각 학문 분야에서 젠더 관점

석/평가하는 사회학이다. 그렇다면 젠더는 일종의 인식론이자 방법론이다. 그래서 젠더(페미니즘 관점)는 인문학과 사회학과 법학, 경영학, 경제학, 간호학 등 어디에나 적용될 수 있다. 따라서 여성젠더학은 젠더를 인식론과 방법론에 적용한 모든 학문을 포괄한다. 젠더적 관점, 페미니즘 관점을 인식론과 방법론으로 사용할 줄 아는 연구자는 모두 여성젠더학자라고 볼 수 있고, 이들은 여성젠더학을 가르칠 자격이 충분하다.

그런데 젠더 사회학자만 여성학을 가르칠 수 있다? 여성젠더학이 베타적으로 오로지 사회학 이어야 한다는 오해는 이상하게도 우리 한국에서만 통용되는 다소 편협한 오해다. 미국의 경우 여성학과(Women's and Gender Studies)의 교수진은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이고, 인문학자 특히 영문학자의 비중이 매우 크다. 우리네 여성젠파드학이나 페미니즘 운동이 성폭력과 사회 경제적 성차별 현상에만 집중했기 때문이 아닐까 싶다. 성폭력과 성차별과 성착취가 벌어지는 근본적인 원인을 살피려면 인문학이 제격이다. 페미니즘이 진정 성차별과 성착취를 종식하는 운동이라면, 걸출한 인물의 인간과 세계관의 남성중심성을 분석해내고, 가부장제와 전가부장제의 역사를 밝혀내는 것도 성차별과 성착취를 근절하는 보다 근본적인 연구일 수 있다는 사실을 정녕 모르는 것일까?

충남대학교 여성젠파드학과는 사회학뿐만 아니라 인문학을 비롯한 다양한 전문성을 지닌 교수들이 교수한다. 성차별과 성착취라는 사회 현상의 표피뿐만 아니라 심층부터 건드려야 가능하다.

충남대 여성젠파드학과에 대한 비아냥, 의심, 공격은 다각적으로 지속된다. 상관없다. 백래쉬도 상관없다. 우리는 여성의 자유롭고 행복한 사회를 만들고자 한다. 그 목표의 타당성을 의심하지 않는다. '여성이 행복한 대전'을 표제로 선택한 여성가족정책센터의 목표와 동일하다. 각종 비판에 귀 기울이되 우리는 타당하다고 최종 판단한 목표를 향해 뚜벅뚜벅 걷는다.



지역

# 배려, 시민이 행복한 도시를 만들다

백효진\_한밭대학교 도시공학과 연구교수

consideration



'여성이 행복한 도시는 어떤 형태일까'를 뜨문뜨문 지속적으로 생각해 본다.  
 어쩌다 보니 여성 한부모 가족 주거복지 관련 활동에 참여하게 되고, 대전에서 성별영향평가 컨설턴트로 활동하게 되었다.  
 도시계획을 전공한 여성으로서, 나에게 '젠더'는 '하나의 숙제이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몇 달 전 소수 여성 모임을 만들어 '여성친화도시'는 어떠해야 하는지 공부하기 시작했다.  
 정립하기 어려운 몇 가지 생각을 적어본다.

## 도시공간과 여성

도시계획은 효율성을 중심으로 전개된다. 국토기본법에서 정의하는 '공익'에는 기본적으로 경제 관념이 포함된다. 통근 비용을 낮추는 방향의 교통 계획, 지불 가능한 주택의 공급계획 등 비용을 낮추고 효율성을 높이는 방향이다. 합리적 계획이 경제활동 인구를 중점적으로 고려하다보니, 결국 경제주체로 먼저 진출한 남성 위주의 도시계획이 이루어졌다는 의견이 있다. 한편에서는 너무 비약하는 것이 아니냐고 반문한다.

근대 도시계획의 첨두에서 페리의 근린주구(C.A.Perry, 1924)는 자녀 중심의 커뮤니티를 이야기한다. 초등학생 자녀와 그 학부모 커뮤니티가 지역 사회의 최소단위가 되고, 이로 인해 초등학교 중심의 도보권역이 도시의 최소단위로 자리매김한다. 하지만 백여 년이 지난 지금 과연 근린주구 내에 통과교통은 배제되고 있으며, 자녀-부모 커뮤니티 안전망은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가? 제인제이콥스는 미국대도시의 죽음과 삶(Jane Jacobs, 1961)에서 대답해 준다. 마당에서 부엌에서 상점에서 각자 일을 하는 개인들의 안전감

시망은 사라진 지 오래고, 자동차로 인해 아이들은 길에서 뛰어놀지 못한다. 도시로 모여드는 인구를 수용하기 위해 지어진 고층 주거 빌딩, 집 앞까지 다니는 많은 자동차는 지하로 들어갔다. 아파트가 현재 근린주구의 변화된 모습이다.

더 좁은 집 안으로 들어가 보면, 여성의 공간은 은밀하고 폐쇄적이었다. 논산 윤재 고택은 여성이 부엌에서 일을 보며 사랑방을 담 넘어 훔쳐보는 공간 구성이며, 며느리가 쉴 수 있는 곳은 부부방 뒤로 마련된 뒤태였다. 부엌이 거실과 일체화된 오픈형이 주택구조가 공급된 것은 얼마 되지 않았다. 고맙게도 실내 공간은 휴먼스케일 모듈을 고안해 낸 건축가들 덕분에 그나마 여성이 편한 공간이 되었다.

남성복과 여성복이 구분되듯이 남성용 주택과 여성용 주택이 있다면 아마도 다른 공간 구성과 형태를 나타낼 것이다. 도시 역시 남성용 도시와 여성용 도시가 있다면 규모와 형태, 기능면에서 달라질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공간

규모가 커질수록 남녀뿐 아니라 인간의 다양성을 반영하는 것은 어려워진다. 경제적 효용성이 최우선 가치인 자본주의 사회에서 이러한 접근방식은 합리적이지 않다. 그래서 다른 가치 중심의 접근이 필요하고, 포용, 가족 친화 등 다양한 방안들이 제안되고 있다. 즉, 여성이 행복한 도시는 어떤 '가치'를 중점에 두느냐에 따라 모습이 달라질 것이다.

## 생물학적 여성을 위한 공간 배려

여성은 안전에 민감하다. 엄마가 되면 안전은 더 중요해진다. 범죄와 사고 발생 시 여성 사망률이 더 높다. 성별영향평가 컨설팅을 할 때, 이게 '안전'이지 왜 '성별영향'이냐고 묻는 공무원이 더러 있었다. 성별영향은 새로운 것 아니라 기존 시스템의 가중치가 달라지는 것이라고 보는 것이 맞다. 방재 시스템, 셉티드(CPTED) 및 무장애 설계까지 많이 발전했지만 충분한 것 같진 않다.

수도권 거주 한부모 가정 주거복지 활동에서의 일이다. 대부분의 가정이 건조기를 지원받고 싶어 했다. 빨래가 안 마르는 게 이유인데, 빨래는 왜 안 마르는가 하니, 창문을 활짝 열고 살 수 없는 것이다. 건너집 할아버지가 쳐다본다,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보인다는 이유였다. 인동간격, 셋백(set-back), 대지 내 차폐 조경 등 건조물 환경의 규제가 민간의 개발이익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현재의 수준에서 합의된 것이다.

복잡한 것은 일단 뒀어두고 그냥 좀 배려해주면 안 될까? 단기적 경제 효율성보다 장기적인 지속성을 보고 그저 따뜻한 마음 하나 얹어 주면 안 되는 것일까 싶다. 그런 의미에서 거주한 집과 그 주변 환경, 그리고 집주인 및 부동산업체까지 평가해버리는 일본의 주택 리뷰(口コミ;Kuchikomi) 시스템이 부럽다.

청년주거 사례에서는 혼자 사는 여성의 불안도가 높았다. 그나마 현관에 번호키와 CCTV가 있는 집은 양호하다. 건물 내에서 낯선 이들과의 공동 주

거가 불안해 CCTV를 달기도 한다. 안전과 방재에 있어서 공공시스템의 확대는 더 해도 아깝지 않을 것이다. 성인지 통계와 분석이 발전하고 있는 만큼 대처 방안에 있어서도 항상된 디테일을 기대해 본다.

## 사회적 여성을 위한 공간 배려

종종 길을 묻는 할머니를 만난다. 예쁘게 디자인한 공공표지판의 작은 글씨는 나도 잘 안 보인다. 65세 고령자의 교육 수준은 낮고, 여성의 경우는 더 낮다. 한글을 못 읽는 경우도 있는데, 심지어 영어 표기와 작은 글씨는 할 말을 잃게 한다. 디자인은 기능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미만을 추구하면 예술이다. 과하다 싶은 일본의 촌스러운 도시디자인은 오히려 지역색을 만들어낸다.

여성의 사회적 진출이 신장되면서 일과 양육 병행이 중요한 가치가 되고 있다. 여성은 남성보다 다목적 통행이 높다. 자녀와 관련된 시설로의 이동, 생필품 소비 통행 등이다. 주거입지 선택 시 회사까지의 거리 외에도 고려 요소가 늘어나는 것이다. 근거리 범위의 생활 SOC 환경을 강화하는 국가 정책, 회사 내 양육복지시설을 확충하는 기업 정책은 참긍정적이다.

일본 한부모 쉐어하우스 답사에서 만난 미성년 엄마는 임신 후 가족 및 친구들과 단절되고, 고향을 떠나 쉐어하우스를 찾아왔다고 했다. 복지시설과는 다른 개념의 주거 형태로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이들의 주거 안정과 사회적·경제적 자립을 돋는 쉐어하우스이다. 주로 NGO가 주축으로 운영하며, 한부모 가족이 필요로 하는 공공·민간의 서비스를 연계해 제공한다. 개인 및 민간이 봉사 차원에서 운영하기도 한다.

도시는 공유공간이다. 서로 배려하는 만큼 살기 좋아진다. 공간은 연쇄적으로 주변에 유무형의 영향을 미친다. 여성이 행복한 도시는 배려하는 마음에 달렸다. 아내, 딸, 그리고 노년의 어머니를 생각하는 따뜻한 마음이 필요하다. ☺



지역

## 하지만 대전에 여전히 잘 머물고 있습니다

임다은\_로컬샵·동네책방 '머물다가게' 대표



사진집 '대동에 머물다'

'머물다가게' 외부

'머물다가게' 내부

2020년 6월,『여성이 행복한 도시 대전』(이하 여행대전) 31호에 '머물다가게'가 소개되었다.  
서점을 시작한 지 1년쯤 되었을 때였다. 벌써 올해로 꽉 채운 4년을 보내고 5년 차에 접어든 지금,  
그때의 기사를 다시 읽어 보니 풋풋한 그때의 기억이 새록새록 떠올랐다.  
그 기사를 계기로 '머물다가게'에도 여행대전을 꾸준히 보내주신 덕분에

대전여성가족정책센터의 소식도 계속 전해 들을 수 있었다. 항상 여러 권을 보내주셔서  
가게에 오신 손님들께도 종종 소개해 드리곤 했다. 그런 여행대전이 이번 마지막 호를 끝으로  
더 이상 만날 수 없다니 아쉬운 마음이 크다. 여행대전의 마무리 호에 실을 원고 청탁을 받고서 많은 생각이 들었다.  
그동안 어디에도 공개적으로 꺼내지 못했던 이야기를 이곳에서는 할 수 있을 것 같았다.

말로 표현하면 모든 슬픔이 사라질 거라는 믿음으로.

### 여성이 홀로 머무는 공간

어눌한 말투에 알아보기 어려운 글씨체여서 겨우 해석해서 읽고는 답장을 굳이 하지는 않았다. 그 후 12월 말에 받은 편지는 또 다른 지역의 다른 이름의 재소자 편지였다. 첫 번째 편지와 달리 두 번째로 받은 재소자의 편지는 어딘지 모르게 내용이 깨름칙했다. 두 번째로 받은 편지는 30대 남성 재소자가 보낸 것이었다. 편지를 읽어 보니 그는 내가 30대 여성이라는 걸 알고 있는 듯했다. 편지에 '머물다가게'라는 상호를 언급하며 출소 후에 찾아가 물건을 많이 팔아 주겠다는 등 자기 재산과 직업을 어필하는 내용도 담겨있었다. 그리고 편지와 함께 50문 50단이라는 종이가 들어있었는데, 50개의

질문에 대한 대답과 친필 사인을 적어서 답장과 같이 넣어 보내라는 글이 적혀있었다. 그 질문 중에는 나의 개인정보를 묻는 질문과 함께 좋아하는 남성 스타일이나 자신 있는 신체 부위, 사워 순서 등 이상하고 불쾌한 질문들이 여러 개 섞여 있다. 이 편지를 읽고 난 뒤에 나는 신년의 설렘과 기쁨 대신에 두려움과 공포를 느끼며 사해를 맞이했다.

### 혼자가 아니라서

며칠의 고민 끝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도통 가라앉지 않아 결국 나는 경찰서에 신고했다. 때마침 스트킹 범죄가 이슈였는데, 그 덕분인지 나는

경찰에서 받을 수 있는 온갖 종류의 도움은 모두 받을 수 있었다. 두 번째 편지를 보낸 재소자의 출소일인 3월이 되기까지 나는 경찰의 보호를 받으며 가게를 겨우 운영했다. 주변에서는 가게를 잠시 쉬거나 접는 것이 낫지 않겠냐고도 했다. 하지만 경찰에서 순찰 강화와 CCTV 설치, 스마트워치 제공, 범죄 심리상담 연결까지 범죄 피해자로서 받을 수 있는 모든 조치를 다 해주었다. 그사이 수사도 이루어졌고, 다행히 첫 번째 재소자와 두 번째 재소자의 관계와 편지를 보낸 이유가 모두 밝혀졌다. 악의로 편지를 보낸 것이 아니라 '머물다가게'의 신문 칼럼을 보고 편지를 했다는 것이다.

수사 결과가 밝혀지고 마치 해프닝처럼 느껴지니 마음이 한결 편해졌다. 하지만 범죄 심리상담을 받으면서 알게 된 사실이 하나 있다. 1인 가게를 운영하는 많은 여성 대표들이 생각보다 많이 범죄 피해자가 되고 있다는 점이다. 어쩌면 나는 그동안 혼자만 가게에 머물고 있지 않은 덕분에 협한 일을 겪지 않을 수 있었는지도 모른다. 늦은 밤까지 서점에 머물게 될 때도 항상 곁에 함께 하는 사람들이 있어 안전했다. 하지만 상담사 선

생님은 수사가 종결된 이후에도 스스로 자신을 지킬 수 있는 대비를 해둬야 한다고 조언했다. 슬픈 일이지만 그래야 했다. 연초부터 겪은 여러 사건으로 마음이 계속 힘들었던 나는 범죄 심리상담이 끝난 이후에도 대전시에서 지원하는 청년 심리상담과 독서치료 집단상담까지 이어받았다. 그러다가 요즘에는 독서치료에 관심이 생겨 공부도 하고 있다. 지우고 싶은 안 좋은 사건이라고만 생각했던 일이었는데, 어쨌든 새로운 경험과 배움을 얻는 계기가 되었다.

### 대동에 머물다

좋은 일은 나쁜 일은 모든 일은 지나고 나면 어떤 의미가 남는다. 범죄 사건을 계기로 상담을 받게 되었고, 그 상담을 계기로 최근에는 독립도하게 되었다. 여성 1인 가구로서의 삶을 살아 보며 또 새로운 세계를 잔뜩 경험하고 있다. 누군가의 마음을 온전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직접 경험하는 것만큼 빠른 것도 없다는 생각이 든다. 그렇다고 모든 일을 다 직접 겪을 수는 없지만, 그게 나쁜 일일지라도 이왕 겪었다면 내가 이해할 수 있는 세계가 한층 더 넓어졌다고 생각하기로 했

다. 올해 상반기에 힘든 일이 많았지만, 돌아보니 나는 여전히 내 삶을 사랑하고, 내가 사는 동네와 이 도시를 아낀다.

한동안은 두려움에 휩싸이기도 했지만, 내가 머무는 대동을 떠나고 싶지는 않다. 오히려 더 잘 지키고 싶다. 좋아하는 이들과 도란도란 관계를 이어가고 마음을 부대끼며 오래오래 머물고 싶다. 그 마음을 담아 옮가을에는 그동안 미루어 작업하지 못했던 대동의 사진집을 드디어 완성했다.

『대동에 머물다』라는 이름의 사진집에 그간 4년여 동안 대동을 거닐며 찍었던 사진을 담았다. 그리고 이 사진집을 서울과 대구에서 진행되는 '퍼블리서스테이블' 행사에 들고 나가 판매하고 홍보도 했다. 그곳에서 열심히 나의 도시 '대전'과 나의 동네 '대동'을 소개했다. 더 많은 이들이 이곳의 매력을 알아주길 바라는 마음으로.

올해는 정말 파란만장한 해로 기억될 것 같다. 비온 뒤에 땅이 굳는다는 뻔한 말이 이토록 와닿은 적이 없다. 씩씩하게 버텨온 올해의 시간이 자양분이 되어 '머물다가게'의 다음을 이끌어 가주기를 간절히 기대하는 마음이다. 여기, 오래, 함께 잘 머물 수 있었으면 참 좋겠다. W



## 우리를 반기지 않는 곳에서 우리의 터전 만들기

권사랑\_대전 여성주의 기획자 그룹 'BOSHU' 공동대표/  
대전 비혼 여성 커뮤니티 '비혼후깜' 운영자



- 2018년 말 여성주의 문화기획자 그룹 BOSHU(보슈)의 '비혼후깜' 기획 시작
- 2019년 대전 비혼 여성을 대상으로 한 강연/워크숍 시리즈로 '비혼후깜' 시작
- 2020년 커뮤니티 운영에 집중하기 시작한 '비혼후깜' 운영 및 회원 모집
- 2023년 약 100명의 대전 비혼 여성들이 함께하는 중

'비혼후깜'은 다음과 같은 목적을 가지고 회원을 모집했다.

비혼 여성은 사회제도적 차별을 받지 않도록 대전시의 정책을 개선하고자 하며 동시에 개인이 경제적 기반과 끈끈한 유대를 가질 수 있도록 다양한 모임을 기획합니다. '비혼후깜'에 속한 다양한 배경의 여성들은 이 안에서 다른 비혼 여성 대상으로 모임과 클래스를 주최 할 수 있으며 문화예술, 창작과 관련하여 생각 하던 것을 실현할 수 있습니다. 정책을 모니터링하며 정책 결정과정에 개입할 수 있습니다.

비혼 여성 청년은 지역에서 어떤 존재로 비추어지고 있을까?

"개인의 선택은 존중하지만 그래도 저출산 시대에 좀..."

"고생 안하고 자기 혼자 잘 살려는 거 아니야?"

"남자, 여자 사이좋게 지내면 되지 왜 혼자 홀나서 그러고 있는 거야?"

"지방 인구도 감소하는데 젊은 여자들이 비혼이니 뭐니, 책임감 없이 굴어서 문제야."

까지 싸우겠다. 하는 투쟁심이라고 생각했는데 '이렇게도 살 수 있는 거구나' 깨달았죠. 즐겁고 행복하고, 공동체와 함께하면서 갈 수 있는 거구나 알게 됐죠. 이 공동체에 속하고 싶다는 생각이 컷던 것 같아요. 늘 저는 떠돌이였고 외톨이였기 때문에.

비혼 여성 커뮤니티에 속하며 새로운 관계 맺기를 경험한 이들에게 대전이라는 지역은 어떻게 인식될까? 커뮤니티를 거치는 이들에게 단순히 지리적 위치, 출신지, 대학/직장 소재지였던 지역은 새롭게 '재인식'되며, 재인식은 '지역 정주'에 대한 희망으로 이어진다.

### '대전에서 같이 잘 살아보자'는 결심

비혼을 결심한 이후, 나를 비롯한 '비혼후깜' 회원들은 이런 말들을 자주해야 했다. 지방 소멸과 저출생 시대를 이야기하는 자리에서 우리는 그 문제의 원인으로 겨냥당했고 '해결해야 하는' 골칫거리로 여겨지는 듯했다. 외로운, 이기적인, 한 치 앞을 못 보는...

같이 운동하고 강의를 듣고 식재료를 나누고 함께 밥을 나눠 먹고 서로의 건강과 안녕을 빌어주며 대전에서 같이 잘 살아보자 서로를 챙기던 우리는 얹을 할 때를 이었다.

실제로 '비혼후깜'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 '비혼후깜' 멤버들은 이 커뮤니티의 존재를 보고 대전으로의 이주를 결심하거나, 다니게 될 직장의 지역을 결정하거나, 지역에 더 큰 애정을 가지게 되었다.

**대전 토박이 김비캡** 다른 지역이 아니라 대전으로 직장을 지원한 건 진짜 '비혼후깜' 때문인 게, 2019년도 말에 인스타그램에서 '비혼후깜' 모집 공고를 봤어. 대전에서 살면 그런 커뮤니티에 속해서 마음을 불일 곳이 생길 것 같았

어. 의견과 방향성이 잘 맞는 사람들이랑 친해지면 좋을 것 같다고. 직장에서는 내 정체성이나 관심사를 드러낼 수가 없으니까 이 사람들이랑 친해질 수 없다는 생각을 많이 했어. 근데 '비혼후깜'에서는 나를 숨기지 않아도 괜찮으니까 가장 편안하게 느껴져.

**충북 출신 신비캡** 같은 의제로 얘기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주변에 모여있어야 한다는 생각을 엄청하게 된 것 같아. 생각하는 가치관을 유지하는 데에 주변의 영향력이 크다는 생각을 많이 해왔어. 세종에서 음악 하는 친구도 커뮤니티가 있는 게 너무 부럽다는 얘기를 했거든. 커뮤니티가 있고 없고의 차이가 그 사람 생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해.

**타 지역에서 대전으로 이사 온 비캡** 대전에 왔는데 진짜로 유대감이 깊은 지역 기반 커뮤니티에 속한 사람을 만나니까, 여기가 되게 유토피아처럼 느껴졌어요. 가까이 살면서 반찬 같은 거 나눠 먹고 이런 모습들이 정말 좋아 보이더라고요. 저는 비혼을 결심했을 때 엄청 비장하고, 정말 정말 외롭지만 끝

**김비캡** 커뮤니티 안에 있는,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이 이 지역을 좋아하고, 이 지역에 살고 있고, 그걸 안다는 것 자체가 대전에 대한 애정을 더 많이 갖게 하는 것 같아.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 자체가 미래를 생각하게 하잖아. 이 사람들에게 계속 대전에서 살아야지. 대전에서 박세리 선수처럼 집 만들어서 다 같이 동 하나씩 잡고 살아야지.

### 비혼 여성, 새로운 돌봄을 상상할 수 있는 공동체로 인식돼야

전희경(2014)<sup>1</sup>이 언급한 바 있듯, "인간은 감정과 신념을 공유하고 비슷한 삶의 방식을 향유하는 사람들 사이에 있고자 노력하며, 특히 사회적 약자나 소수자들에게 이러한 노력은 중요하다. '정상가족' 바깥에서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 밀접하여 거주하고 일상적인 관계망이 형성되면서, 이들의 거주지는 건조한 행정구역이 아니라 '우리 동네'로 변환되며 '장소'에 대한 특별한 애착과 '정주함'의 정서를 만들어 낸다. 장소감(sense of place), '정주함'의 정서는 단순히 '이곳에 오래 살고 싶다'는 마음뿐 아니라 이들과 지역에서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지 추상적으로도, 구체적으로도 상상하게 만들기"도 한다. '비혼후깜'의 이들 역시, 자신의 존재를 지켜가며 이곳에서 오래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다양한 방식으로 모색하고 있다. 우리는 서로의 담을 넘으면서도 서로의 담을 지켜줄 수 있는 사이다.

저출생, 지방 소멸의 시대에 비혼 여성 집단은 그 원인이나 지역의 골칫거리로 호명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청년의 지역 정주와 새로운 돌봄을 상상할 수 있는 가능성을 지닌 공동체로 인식되어야 한다. '비혼 여성'이 행복한 대전은 이들이 나누고 있는 새로운 형태의 애정을, 애정을 나누는 새로운 방식을 들여다보는 것에부터 시작될 것이다. ☺



공동체

## 우리가 해야 할 일 'The Next Right Thing'

권인호\_(주)윙윙 로컬커먼즈 이사



### 3년 뒤의 대전을 꿈꾸며

대전의 의미 있는 발간물 「여성이 행복한 도시, 대전」(이하 여행대전)이 올해로 마지막 발행이라고 한다. 아쉬운 생각이 들면서도 그동안 여행대전을 통해 던져진 여러 젠더 관점의 이슈들이 머릿속에 떠올랐다. 이 이슈들이 다음 한 세기 동안 우리가 가져갈 일상과 삶의 주제가 되지 않을까?

돌이켜보면 나와 여행대전은 세 번의 인연이 있었다. 2017년 25호, 2020년 31호, 이 글이 실린 2023년 37호. 이렇게 세 번의 글이 실렸다. 재미있는 우연일까? 3년마다 한 번씩 만난 셈이다. 앞선 두 번은 기획대담으로서 각각 청년 세대에 대한 이슈와 비혼에 관한 이슈를 나누었다. 공교롭게도 다음 3년이 지나면 2026년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있는 해가 된다. 지역의 이슈와 시민의 삶을 만들어 가는 중요한 기점이다. 대전에서 꿈꾸고 살아가는 이들의 삶은 이전보다 더 나아졌을까? 다음 3년 뒤의 대전은 '여성과 모두가 행복한 도시'가 될 수 있을까?

여행대전과 만났던 지난 6년은 젠더 관점과 이슈에 대한 나와 동료-시민들의 성장기이기도 하다. 우리가 이 이슈들을 잘 이해하고, 실천하고, 해야 할 일(The next right thing)을 한다면 우리가 꿈꾸는 행복한 도시에 한 걸음 더 가까워질지도 모른다.

### 동네에서 젠더는?

지난번 비혼에 관한 기획대담 때만 해도 나는 행정안전부가 새롭게 추진하는 주민자치회 전환 사업의 지원관으로 일하고 있었다.

지난 몇 년간 동네의 삶에 가장 밀접한 조직인 주민자치회 사업에 참여하면서 더 많은 권한과 자원을 가지게 된 주민분들이 만들어 가는 새로운 자치

의 가능성을 보았다. 이전에는 잠만 자려 들어가던 마을의 '하숙생'들이 이제는 동네 일에 하나부터 열까지 관심을 갖고 참여하게 되었다.

하지만 역사는 기대한 만큼 변하지는 않는 법. 더 다양한 세대와 성별, 계층이 함께 하길 꿈꿨던 지역활동의 문턱은 높았다. 전통적인 자생 조직이 갖고 있던 소통방식과 문화는 새롭게 참여하는 이들에게 때로는 어색함으로, 때로는 불편함으로 찾아왔다.

동네에서 열리는 회의나 모임에서 청년 세대는 언제나 "결혼했어?", "얼른 장가가야지."라는 이야기를 들어야 했다. 자생 조직 활동의 성별 분업화도 매우 전통적인 형태가 두드러졌다. 조직 대부분 위원장이나 회장은 중년 남성이지만, 실무를 담당하는 간사는 모두 젊은 여성이었다.

충분히 역량이나 경험이 있는 여성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통적으로 조직의 리더는 남성이 해오던 관습의 영향으로 느껴졌다. 뿐만 아니라 큰 축제나 행사가 열리면 요리를 대접하거나 식사를 준비하는 일은 여성으로만 구성된 자생조직이 맡을 때가 많았다.

동네와 마을에서 하는 주민자치 활동에서도 젠더 관점을 갖고 새로운 세대가 함께 할 수 있도록 만들어 가는 것은 여전히 우리에게 남겨진 과제이자 미래다.

### 모두가 해야 할 일을 하는 행복한 도시

이렇게 어려움이 있음에도 우리가 동네와 지역에서 살아가는 이유는 역설

적이기도 사회 변화의 씨앗이 이곳에서 시작되기 때문이다. 이 모든 이슈가 개인만의 문제, 국가만의 문제도 아닌 실천 가능한 공동의 학습과 변화가 일



어나는 지역의 커뮤니티에서부터 해결해 가야 할 문제이기 때문이다.

지난 9월 대전청소년위캔센터 대강당에서 2023 대전성평등문화제가 열렸다. 이 문화제에서는 매년 의미 있는 활동을 한 개인이나 단체에게 성평등어워즈를 시상하고 있다. 이런 성평등어워즈에 올해에는 신선한 단체의 이름이 올라왔다. 바로 '남성과 함께하는 페미니즘 대전'(이하 남함페)이다.

나도 함께하고 있는 이 단체는 드물게 남성과 여성이 함께 모여 페미니즘을 공부하고 성평등 문화를 만들어 가기 위한 다양한 실천 활동을 하고 있다. 적극적인 홍보나 모집 활동이 없음에도 매년 함께하는 이들이 늘어나는 이 모임에 사람들이 참여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주요한 시대적 젠더 이슈에도 관심을 두지만, 함께 책을 읽고 건강한 음식을 나누며 평등한 문화를 일상과 지역에서 향유하는 모임이기 때문일 것이다. 어쩌면 내가 사는 동네에서 이웃들과 젠더 이슈를 토론하고 삶에서 실천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인지도 모른다.

대전시와 대전여성가족정책센터 또한 이런 새로운 취향과 삶의 다양성을 지향하는 커뮤니티들이 더 많아질 수 있도록 정책을 뒷받침하는 연구와 제도적 기반을 만들어 가면 좋겠다.





## 우리가 걷고 난 자리에는

임유진\_대전 에코페미니즘 커뮤니티 '피스어스' 대표 /  
싱어송라이터 '유진솔'



**여성-생태-예술이라는 가치가 유보되지 않는 삶**  
겨우내 얼었던 땅에 고랑을 만들어 감자를 심었다. 이것이 3년째 봄을 맞이하는 방식이다. 경운기로 간편하게 하면 될 것을 쟁기로 느릿느릿, 직선으로 고랑을 만들면 될 것을 곡선도 만들고 달팽이 모양으로 텃밭 모양을 디자인해가면서. 사부작사부작 봄을 움직여 가면서 봄을 맞는다.

이것이 봄을 맞이하는 방식이 된 것은 모농숲과 '피스어스' 덕분이다. '피스어스'는 여성, 생태, 예술이라는 가치가 유보되지 않는 삶을 꿈꾸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다. 2021년 유성구 제로웨이스트샵 '온영상점'의 사적 모임으로 시작했던 '피스어스'는 2022년 비영리임의 단체로 설립되었고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에코페미니즘 커뮤니티'라는 정체성을 표방하기 시작했다. 자연과 서로를 돌보면서, '생존(살아남음)' 너머 '생활(삶을 꾸림)'이라는 감각을 깨우길 바라면서 유성구 대정동을 기반으로 공유텃밭 공동체 「모농숲」을 꾸리는 활동을 열고 있다. 「모농숲」은 '모여봐요 농사'

의 숲'의 줄임말으로, 땅에 해롭지 않은 방식으로 농사를 짓고 때때로 채식요리를 해 먹는 사람들이 모여 있다. 또한 「뜨거운 뜨개방」이라는 이름으로 여성의 몸을 긍정하고자 뜨개질로 브라렛을 직접 만들기도 하고, 여성의 몸은 물론 지구를 해치지 않는 면 생리대를 바느질로 직접 만드는 활동도 종종 연다.

### 쑥국쑥국

지난해 겨울에는 「달팽이계절」이라는 이름으로 '피스어스' 활동 기록전시를 열었다. 마당극패 우금치의 '2023 오색찬란 별별축제'의 연계프로그램을 열었다. 올해 봄에는 '피스어스' 친구들과 올 한 해 무얼 하고 싶은지 나누는 자리에서 이렇게 말했다. 이번에는 쑥국과 함께 '유진솔' 공연을 열고 싶다고 말이다. 나는 '유진솔'이라는 이름으로 노래를 짓고 부른다. 누군가 공연에 불러주기만을 기다리지 않고, 하고 싶은 공연을 직접 만들겠다는 마음이 싹텄다. 그 마음의 시작이 언제부터인지는 뚜렷하지 않으나, 이날 친구들에게 말

### 달팽이계절

지난해 겨울에는 「달팽이계절」이라는 이름으로 '피스어스' 활동 기록전시를 열었다. 마당극패 우금치의 '2023 오색찬란 별별축제'의 연계프로그램으로 진행되었던 「달팽이계절」에 모농숲 주민들의 일기, 사진, 직접 일군 농산물, 뜨거운 뜨개방 작품들, 면 생리대, 텃밭 근처에서 주운 자연물로 만든 만다라 등을 전시했다.

그때 여성인권티움 '그냥공방'(위기청소년 지원원) 사람들이 방문했는데 그렇게 연이 시작되어 올해 상반기에 텃밭을 함께 돌보았다. 똑같은 장화, 봄빼바지, 밀짚모자를 맞춰 입고 주뼛대



『쑥국쑥국』포스터  
그날 모인 피스어스 친구들과 뜯은 쑥을 손에 쥐고 사진을 찍었다. 그 사진을 배경으로 『쑥국쑥국』포스터를 만들었다.



『달팽이계절』전시



『모농숲』시농제



『춤추는 토마토』공연



9. 23. 기후정의 행진(출처: 사진\_sunny)

며 땅의 고랑을 만들고, 힘이 듦다면 노동요를 틀어달라고 말하고, 냉이를 보면서 쑥이라 말하던 모습에 금방 친해지고 싶은 마음이 일었다. 갈수록 더워지는 여름에는 함께 심은 감자 옆에 이름 모를 풀들이 마구 자라났기에, 열심히 풀을 맴다. 뜨거운 햇볕을 아스팔트 길 위에서 날 때면 무력감이 치밀었지만, 흙을 만지고 풀을 뽑은 날이면 작은 뿌듯함이 일었다. 장마가 오기 전, 감자를 모두 캤다. 비가 오던 날에는 감자를 부쳐 먹고 제철 채소인 오이와 토마토로 샐러드를 해 먹었다. 처음 요리해보는 이가 있어, 요리하는 기억이 즐거움으로 자리 잡길 바랐다.

함께 요리를 하고 음식을 먹는 일은 내게 꽤 소중하고 특별하다. 그래서 모농숲 친구들과 채식요리를 해먹을 때면 늘 'Food Blessing'을 했다. 이는 음식이 오기까지 과정-정성껏 요리한 이들의 손길, 농사지은 이들의 노고, 함께 농사를 도와준 바람, 비, 햇빛, 땅-에게 고마움을 곱씹는 시간이다.

### 춤추는 토마토

음식이 오기까지의 과정을 헤아리다 보면, 육식을 하는 게 어려워졌다. 비인간 동물이 착취당하는 현실이 떠올라서였다. 자연스럽게 채식 생활을 한 지 5년 차가 되어간다. 채식을 하면서 다양한 요리를 창조하게 된다. 그러다 채식 생활을 하는 유튜버 '초식마녀'에게 스며들었다. 그가 토마토비빔밥을 해 먹는 영상을 보았는데, 제철 채소이면서 불을 쓰지 않아 여름에 요리하기 제격이었다.

쑥국쑥국에 이어 비건ダイ닝 공연 여름편의 메뉴는 토마토 비빔밥으로 결정했다. 이번에는 하우스신시어와 함께 공연을 준비했다. 하우스신시어는 대전 맞배집에서 새롭게 출범한 공연 기획사 겸 애이전시다. 유진솔로 협력 아티스트 계약을 맺었다. 하우스신시어 친구들과 여러 회의를 거치고, 토마토 비빔밥을 해 먹는 영상을 공개하고, 테미오래 옛 도지사공관 야외정원에서 라이브 영상을 찍는 등 준비과정을 거쳤다.

그리고 공연일인 8월 10일, 절기상으로는 말복인 이날 현실에서는 열대성 태풍 '카누'가 전례 없이 한반도를 관통한다는 뉴스가 휙휙 아쳤다. 그날 공연이 있던 나/우리는 불안에 떨었다. 공연을 보려고 오기로 했던 관객과 친구들 또한 그랬다.

사실 8월 10일이 오기 전 다른 걱정이 있었다. 제철 채소인 토마토로 비건 보양식을 먹고 음악을 즐기는 말복을 보내자는 이 기획이 초라하게 느껴졌기 때문이다. 토마토 농사를 지으며 수해 입은 이들에게 이 공연이 어쩌면 불편하지 않을까 두려워하는 마음이었다. 그런데 8월 10일이 되니 태풍은 나에게 직격타로 다가온 그 무엇이 되어 있었다. '타인'에게 다가온 문제가 아닌 '나'에게 다가온 무엇.

우리는 당일 티켓 환불이 가능하도록 다시 안내했고 몇몇 이들은 발걸음을 포기했다. 공연이다를 무렵 다행히 태풍은 지나가고 공연은 '무사히' 한여름 밤의 꿈처럼 소중한 기억이 될 수 있었다.

"저기 가는 여름아 먼 길 잘 가렴아 / 비록 덥긴 했지만 나는 알고 있다오 / 그대 더운 열기로 꼭 식들은 자라고 / 열매들도 익어서 추운 겨울 잊게 해/그대 환한 빛으로 우리는 꿈꾸네 / 긴긴 어둠 맞이할 마음의 빛을 / 잘 가라 여름아 너도 수고 많았어 / 다시 만날 때까지 안녕 안녕"

- 잘 가라 여름아(김희동 작사·작곡 청요) 노랫말 중

### '생존' 너머 '생활'이라는 감각을 깨우길

너무 덥고 너무 많은 비가 내리던 여름은 잔혹한 한편 고마움을 주었다. 직접 뜨개질한 바끼니를 입고 가까운 강변에서 친구들과 헤엄치던 기억, 우쿨렐레 함께 치며 두 계절을 연습하고 사람들에게 선보였던 기억, 커다란 흰색 천에 주황색, 빨강색, 연두색 토마토를 함께 그려 넣은 기억 등. 인간 때문에 지구가 이 지경이 되었다지만, 인간으로 살면서 만난 사람들의 온기에 기대어서 여전히 살아간다.

9월 23일에는 많은 이들이 으능정이 거리에 모여서 "기후재난으로 죽지 않고, 모두가 안전하게 살아갈 권리를 보장하라"는 목소리를 외쳤다. 나도, 피스어스도, 친구들도, 가족도 함께. 감을 따는 장대와 입지 않는 옷으로 만든 깃발을 높이 세우고 거리를 걸었다. 우리가 걷고 난 자리에는 '차별 없는 세상', '사랑'과 같은 글자가 새겨졌다. 그게 꼭 함께 늙어가는 약속처럼 느껴졌다. W



# 나는 장애인입니다 그리고 여성입니다

문진영\_대전여성장애인성폭력 상담소 활동가



## '차이' 없는 '차별적' 환경에서 지낸 시간

나는 태어난 지 6개월 무렵 뇌병변장애를 갖게 됐다. 2022년 진단으로 '근간장이상증'이라는 정확한 병명을 알게 됐다. 7세가 되던 해 특수학교에 입학하려 시도했으나 특수학교 측의 권유(우리학교에 입학하기에는 너무 '양반'이니...)로 비장애 학생들이 다니는 학교에서 비장애 학생들과 '차이' 없는 차별적인 환경 속에서 학령기를 보냈다. 특히, 신체활동이 많은 체육, 미술, 음악 시간에는 다른 친구들이 활동하는 모습을 맨 앞줄 끝 자리 또는 구석진 곳에서 조용히 바라만 보아야 했다. 그때는 차별이 무엇인지, 권리가 무엇인지 모르고 자책과 원망 속에서 자신을 괴롭히며 지냈다.

초등학교에서 중학교,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로 진학할 때마다 교사와의 관계는 물론이고, 교우관계 및 학교생활이 힘들어 몇 번이고 학업을 포기하고 싶었다. 하지만 무뚝뚝하면서도 어색한 관심으로 늘 한결같이 지지와 희생을 도맡아 준 가족들 덕분에 무사히 인문계 고등학교를 졸업할 수 있었다. 사실 성적이 우수해서 인문계 고등학교를 들어간 것이 아닌 장애가 있는 학생이 상업계 고등학교를 다니면 양손을 사용하는 수업이 많아 수업 시간에 자연스럽게 참여하지 못하고 배제될 것이라는 담임교사와 양육자의 예상과 우려로 이뤄낸 결과이다. 졸업 후 무기력한 상태로 20대를 맞아 집콕 생활을 했다. 그러던 중 어머니의 권유로 컴퓨터를 배우게 되면서 스스로 무언가 할 수 있고, 무엇을 하고 싶다는 생각을 처음으로 갖게 됐다. 비장애인처럼 근육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없고, 대화할 때 음성을 막고 또렷하게 내뱉을 수 없지만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주어진 하루 24시간을 잘 활용하여 노력한다면 '얼마든지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찾아낼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겼다. 그렇게 조금씩, 천천히, 차곡차곡, 단단히 쌓아온 자신감으로 하나하나 조심스럽게 시도해보며 가족들의 염려를 덜어 내줄 수 있었다.

우리 사회가 정해놓은 '정상인', '일반인', '비장애인' 틈에서 나의 뜻을 해내기 위해 잠재력을 발견하고 최선을 다해 자격을 갖추어 사회에 나왔을 땐 서른을 코앞에 둔 나이였다. 어쩌다 운이 좋게 면접의 기회가 생겨 나의 뒤틀린 몸과 떨리는 음성을 면접관에게 드러내면 첫눈에 평가절하하는 사회적 폭력에 좌절했다. 어렵게 입사를 하게 되더라도 장애인 근로자를 부르는 호칭, 근무환경, 임금차별을 겪는 것은 다반사였으며 장애에 대한 고용자의 물이해와 배려 없는 환경은 경제활동을 오랜 기간 유지할 수 없게 만들었고 그 구간이 반복되기도 했다.

## '여성장애인'으로 산다는 것

그런 어려운 구간을 지나고 십 년 가까이 흘러 지금의 나는 대전여성장애인연대 부설 대전여성장애인 성폭력상담소에서 활동하고 있다. 일터 그 이상으로서의 가치가 있고 의미 있는 현장에서 신체적, 정신적, 환경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에 놓여 있는 다양한 사람들을 만난다. 그들이 더 좋은 구간에 놓여지기를 바라며 경험을 나누고 서로를 지원하고 있다. "여성이라서", "가족이 있어서", "신체적 장애가 있어서", "정신적 장애가 있어서", "아이가 있어서", "지원조건에 맞지 않네요", "일을 하면 수급자격이 박탈 돼요", "근로능력이 없다고 되어있어요" "재진단 및 평가를 받아오세요" 등 그들을 지원하기 위해 여러 서비스 제공기관에 문의하게 되면 가장 많이 듣게 되는 이야기들이다. 이렇듯 여성장애인은 복합적이고 다중적인 차별을 겪는다.

### 사례 ①

출산 한 여성장애인이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위해 기관에 아이와 함께 방문한 적이 있다. 아이를 돌봐줄 수 있는 환경이 갖춰져 있지 않아 활동가들이 시간대별로 순번을 정해 아이를 돌봐가며 업무를 보았다. 어린아이와 여성장애인이 함께 안전하고 편히 즐기며 이용할 수 있는 기관을 찾아보았지만 찾지 못했다. 여성장애인과 아이는 한 달 남짓 프로그램에 참여한 후 지금은 기관을 이용하지 않는다.

### 사례 ②

기분장애(우울증)를 가진 내담자를 1년이 넘는 시간 동안 지원하게 됐다. 어렵게 라포가 형성되고 내담자에게 하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 물으니 내담자는 '네일아트를 배우고 싶다'고 했다. 오랜 시간에 걸쳐 내담자의 욕구를 확인했고, 내담자가 직업교육과 취업에 대한 의지가 보여 취업성공패키지 프로그램과 연계해 직업교육과 직업훈련 참여를 돋기로 했다. 프로그램 진행을 위해 필요한 내일배움카드를 발급받으려 내담자와 함께 고용지원센터에 방문하여 상담을 받았다. 그러나 고용지원센터에서 조회한 내담자의 개인정보에는 '근로능력 없음'으로 기재가 되어있었고, 내담자는 내일배움카드 발급이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다. '근로능력이 없다'는 것은 어느 시점에 누가 무엇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인지 궁금했다.

### 사례 ③

타 지역을 오가기 위해 교통약자 이동지원서비스(장애인 콜택시)에 회원가입을 시도한 경험이 있다. 어느 지역은 장애인복지카드를 요구하고, 어느 지역은 장애인증명서를 요구하고, 또 어느 지역은 장애 정도 결정서를 요구한다. 장애를 계속해서 증명하라고 한다. 다른 지역에 가면 장애가 바뀌거나 없어지는 것이 아닌 것을 알면서도 말이다.

모든 사례를 구체적으로 이야기할 수 없지만, 위의 사례와 장애가 있는 개인적 경험을 통해 알게 된 점이 있다. 개인의 의지와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이동을 위한 경사로, 장애인 이용시설 내 아이놀이방, 장애인식과 장애감수성, 인권감수성 등 물리적 환경과 인식이 갖춰져 있지 않으면 개인이 가지고 있는 기능이 고착되거나 퇴행될 수 있다는 것이다.



장애인들은 외출 시  
비장한 마음으로 집 밖에 나온다.  
늘 차별에 어떻게 대처할지  
생각해야 한다.  
비장함을 내려놓고 일상을  
살아내는 날이 오길 바라본다.

## '장애'가 '장애'가 되지 않길

모든 사람이 같은 선상에 놓일 수는 없지만 간극과 격차를 줄여 상대적 박탈감과 무력감은 낮춰질 수 있다고 생각된다. 행복감은 크기가 아닌 빈도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장애인들은 외출 시 비장한 마음으로 집 밖에 나온다. '마주하는 이들이 나와는 다르다는 이유로 시혜와 동정의 시선 폭력을 하지는 않을까', '언어폭력은 당하지 않을까', '누가 내 경계를 허락 없이 침범하면 어쩌나', '장애인 콜택시는 또 얼마나 기다려야 할까' 등 차별에 어떻게 대처할지 생각한다. 현명하고 지혜롭게 피하거나 용기 있고 정의롭게 맞서거나 늘 비장함이 일상에 녹아 있다. 비장함을 내려놓고 일상을 살아내는 날이 오길 바라본다.

인간은 자연스럽게 노화되고 병들고 어려움을 겪는다. 누구의 삶이든 장애가 있고 장애를 겪는다는 의미다. 장애를 느끼지 않게 하려면 환경을 장애에 맞춰야 한다고 생각한다. '장애인이 편하면 모두가 편하다'라는 말처럼 포용적인 환경이 만들어진다면 누구도 배제되지 않는 환경 속에서 살아갈 수 있다. '정상인', '일반인', '비장애인'은 임시적인 정체성일 뿐이라는 것을 많은 사람이 알고 있다면 차별적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더욱 적극적으로 하지 않을까. ☺



## 갑질 업무는 대학인권센터 업무가 아니다

이주현\_KAIST 인권윤리센터 부센터장

대학인권센터를 둘러싸고 여러 정부부처와 교내의 관계부서들이 센터에 숨가락을 얹고 있다.  
대학인권센터가 이처럼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저마다 다른 입맛을  
다 맞춰줄 만큼의 밥상을 차려낼 수 없다는 점을 알리고자 한다.



**갑질, 인권침해를 초월해 훨씬 많은 문제 포함돼**  
지난해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는 '갑질 전 담부서'로 '대학인권센터'를 지정하겠다는 사업을 추진한 적이 있다. 이후 간담회 등을 통해 입장 을 수정하고 올해 7월 17일 그 결과를 발표했다. 이를테면 "대학별 행동강령책임관이 갑질 신고를 처리해야" 한다고 명시한 것이다. '갑질의 신고와 처리'에 대한 대학의 의무는 사라지지 않겠 으나, 이를 인권센터가 전담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것을 권익위가 인정한 것이다.

지난해 11월에 공개된 권익위 보고서는 '2024년 6월까지 '고등교육법' 제19조의3(인권센터) 제2항의 개정조치'를 교육부에 요구하는 내용과, '갑질신고 업무를 인권센터로 통합하도록 관계 근거를 명확화'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그러나 올해 7월 17일 권익위 보도자료는 '행동강령'이 갑질 처리의 근거임을 밝히고 있다. 즉, 대학별 '교직원 행동강령'에 갑질 행위 금지 규정을 마련하고, 위반 시 신고처리 절차, 조사위원회 구성·운영 등의 세부 규정을 보완하도록

권고한 것이다.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이다. 인권센터는 갑질신고센터의 역할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갑질의 예를 들면 '인허가 승인, 낙찰자 선정 등 을 조건으로 금품·향응 수수', "발주기관 감독이 특정업체와의 하도급 계약을 강요", '승진·인사를 빌미로 하급자로부터 금품·향응 수수', '기관장이 인사팀장에게 특정 응시자 합격 시지 및 채용공고 변경' 등이 있다. 다시 말해, 갑질은 인권 침해를 초월하여 훨씬 많은 문제들을 포함한다.



전담창구의 기능에 맞춤한 적정한 예산과 인력을 대학 당국이 지원해야 한다. '유명무실함'을 지적하고 있으니 실속 있는 기구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적정한 업무 범위를 정립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반 쪽자리 인권기구'가 되지 않고 온전한 기구가 되려면 센터 담당자에 대한 온전한 대우가 먼저 실현되어야 한다.



즉, 이는 부조리, 부패, 부정청탁, 금품수수, 이해충돌, 행동강령 위반 등과 직접 연결되기에 반부패 총괄부처인 권익위가 갑질의 전담기구가 되는 것이고, 대학은 반부패 청렴 전담부서(감사실 등) 가 그 역할을 해야 할 것이다.

### 대학인권센터에 지원진 과중한 부담

권익위 외에도, 대학인권센터는 다양한 정부부처와 연관된다. 기본적으로는 교육부, 여성가족부 등과 연결되고, 국가인권위원회와도 협력 중이다. 무엇보다도 지난해 3월 24일 시행된 「고등교육법」으로 인해 대학은 각자의 현재 능력과 무관하게 무조건 인권센터를 설치해야 하는 의무가 생겼으며, 이를 근거로 교육부는 대학인권센터를 감독한다. 또한 이미 대학은 약 20년 전에 성고충전담 창구를 만들었고, 「성희롱·성폭력」에

대한 피해 예방과 대응을 하고 있었기에, 여성가족부의 감독을 받고 있다. 고용노동부와 연관이 생긴 것은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조항이 2019년 7월 16일 신설된 이후이다. 간혹 신고인 또는 피신고인이 센터의 처리에 불복하면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고용노동부에 민원을 제기하는 경우도 생긴 것이다. 그래서 때로는 센터 담당자가 고용노동지청을 방문하여 근로감독관에게 조사를 받는다. 「고용노동」에 관한 분야이므로 인권의 범위를 넘어서기 위해 일부 대학은 인사·총무부서 등이 전담하는 경우도 있고, 어떤 대학은 해당 업무를 인권센터로 떠넘기려고 시도 중인 경우도 있다. 한편 어떤 대학들은 '장애인식개선교육'이나 '아동학대방지 예방교육'을 떠 안은 경우도 있고, 심지어 '갑질처리업무'를 인권센터에 떠넘긴 대학들도 있다.

그러나 다시 말하지만 '갑질'은 인권센터의 업무영역이 아니다. 한때 권익위는 '갑질신고센터를 인권센터로 통합하고, 인권센터 전담번호 지정, 대학 메인 홈페이지 내 신고센터에 노출하고 정기적인 홍보 실시'라는 계획을 세운 적이 있었다. 이처럼 대학인권센터에 많은 의무를 부담시키려는 시도들이 대학 안팎에서 벌어지고 있다. 결국 인권센터 담당자의 절반 이상이 비정규직인데, 이들에게 가혹할 만큼 업무를 전가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즉, '인권'이란 이름에도 깨비방망이의 성격을 부여한 셈이다. 또한 다르게 비유하면, 핸드폰 판매점(성고충)에서 종합가전매장(인권고충)으로 바뀌었는데, 이제는 대형마트(갑질민원)까지 맡기는 식이다.

해야 한다. 또한 얼마 전 세상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초등학교의 악성 민원 사례들에서 보듯이, 인권고충 처리 과정에서 종종 발생하는 악성 민원에서 센터 담당자들을 보호하는 데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인권고충을 처리하면서 민원이 사회적 문제로 커졌을 때, 센터가 제 기능을 못 한다는 비난을 하는 것은 예사로운 일이지만, 그 너머에서 제 기능을 할 수 없는 다양한 상황들이 있다는 점 역시 감안해야 한다. 다시 말해서 인권센터의 부실한 구조를 외면한 채, 장밋빛 미래를 그리면서 인권센터에 더 많은 책임을 부여하거나, 인권의 본질과 벗어난 업무부담을 지우려는 행위는 의무화가 채 2년도 되지 않은 센터 운영에 불합리한 결과만 낳을 뿐이다. 사실 답은 문제에 숨어 있다. 가장 큰 문제는 예산과 인력운용이니, 해결책은 전담창구의 기능에 맞춤한 적정한 예산과 인력을 대학 당국이 지원해야 한다. '유명무실함'

을 지적하고 있으니 실속 있는 기구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적정한 업무 범위를 정립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반 쪽자리 인권기구'가 되지 않고 온전한 기구가 되려면 센터 담당자에 대한 온전한 대우가 먼저 실현되어야 한다.

결론적으로 너무 많은 이해관계자들이 센터를 활용하는 데에만 관심을 두는 게 가장 큰 문제라는 점을 강조하겠다. 그래서 주무 부처인 교육부는 인권센터의 업무 정체성을 훼손하는 교내외의 다양한 시도들을 막아줘야 한다.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갑질'이다. 이는 권익위가 말하듯, '교직원행동강령'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 인권센터는 인권침해를 당한 대학 구성원의 회복을 우선하는 회복적 정의를 추구하는 연성기구이기 때문이다.

끝으로 대전광역시가 해야 할 일이 있다. 「고등교육법」 제19조의3(인권센터) 제3항은 "... 지방자치단체는 ... 인권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지원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라고 한다. 대전에는 전부 약 16만 명이 대학에 다닌다. 대전시 인구 대비 10%를 넘는 의미 있는 숫자이다. 가까운 미래에 대전을 책임질 이들을 생각한다면, '모두가 존중받는 인권도시 대전'을 실천하는 방안이 고등교육법에도 담겨있는 것이다. W



## 퇴근도 월급도 경력도 없는 '가사와 돌봄' 그림자 노동에서 사회적 가치를 인정받는 노동으로

김난희\_HR연구센터 대표노무사



매년 9월 1일부터 9월 7일까지 양성평등주간이다. 대전시청은 가족 친화 직장문화 확산을 위해 '2023년 돌봄 콘텐츠 공모전'과 성별근로공시제에 관한 성인지 포럼을 개최했다. 대전지역 시민단체에서 여성영화제, 성평등 문화제, 여성주의 강좌 등 다양한 행사를 했다. 필자는 대전여성포럼에 참여해서 '노동시장과 직장 내에서 임신, 출산, 육아에 대한 인식과 차별적 처우 개선 방안'에 대해 토론했다.

토론자로 대전지역 기혼 직장인 여성이 참여했는데 마지막 발언으로 "임신이 당연한 나라, 출산이 반가운 나라, 육아가 행복한 나라"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토론자의 마지막 발언은 인상적이었다.

토론회에 참가한 사람들은 토론자의 마지막 멘트를 구호로 외쳤다.  
힘찬 구호와 환호 속에서 토론회를 마쳤고 박수 소리가 끝나질 않았다.

### 전업주부는 어쩔 수 없는 선택?

토론회에 참가하면서 저출생과 고령화 시대에 임신, 출산, 육아에 대한 보호가 절실했는데 여전히 인식의 변화를 가져오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의문이 들었다. 최근 드라마에서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신청한 직원에게 암묵적으로 퇴사를 종용하는 장면이 방영됐다. 유능한 상사는 과거 회사의 결혼·임신 포기각서를 강요받은 적이 있다. 부당한 처사에 몹시 고통받았던 과거를 잊은 채 이사로 승진한 후에 더 은밀하고 비가시적으로 퇴사를 시시한다. 출산을 앞둔 주인공도 휴직 동안 조직에서 도태되는 것은 아닌지 직책을 유지할 수 있을지 두려워한다.

복직 후에 성과를 낼 수 없다고 생각해서 결국 자발적으로 퇴사를 결정하고 자녀 양육을 선택한다. 전업주부를 선택한 주인공은 끊임없이 눈물을 흘린다. 드라마에서 보여준 한국 기업문화에 대한 서사는 매우 현실적이고 강렬했다.

노동의 관점에서 본다면 주인공은 임금노동을 중단하고 가사노동, 돌봄 노동으로 전환한 것이다. 그러나 눈물을 흘려야 할 만큼 슬픈 일이고 어쩔 수 없이 선택한 일이라고 여긴다. 임신과 출산은 고귀한 일이며, 가사와 돌봄은 필수적 노동이다. 회사 대신 가정을 선택한 것인데 새로운 출발이 아니라 인생의 끝처럼 느껴지는 이유는 무엇일까?

### 가사노동과 임금노동에 대한 다른 가치평가

K-며느리만 호소하는 K-질병이 있다. 명절 가사노동에 의한 신체적 피로와 가족갈등으로 인한 정신적 스트레스 즉, '명절증후군'이다. 가부장적 가족문화에서 형성된 질병이다. 철학자 이반 알리치(Ivan Illich)는 가사노동, 가족돌봄 등 무급 노동을 '그림자 노동(Shadow Work)'이라고 한다.

K-며느리는 명절에 임금노동이 아닌 그림자 노동을 한다. 임금노동에서 휴일노동은 휴식을 보장하지 못한 점을 감안하여 가산수당을 별도로 지급 한다. 가사노동은 장시간의 휴일노동임에도 당연한 것으로 여겨지고 사회적 가치가 있는 노동으로 평가하지 않는다.

오히려 조금만 소홀하면 도리를 운운하는 차가운 비판이 돌아올 뿐이다. K-며느리의 노동은 노동시간으로 계산되지 않고, 보수도 지급되지 않으며, 연금에서 어떠한 혜택도 받을 수 없다. 가사노동에 대한 가치평가는 임금노동과 동일한 가치를 부여하지 않는다.

노동의 관점에서 같은 노동임에도 불구하고 가치평가를 달리하고 있다. 사회에서 가치라는 것은 인간에게 얼마나 유용한가에 따라 평가가 달라진다. 유용성의 측면에서 가사노동과 돌봄노동은 가족과 사회를 유지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노동이다. 필요노동에 해당하는 그림자 노동은 임금노동과 동일한 가치를 부여해야 한다.

### 가사·돌봄 노동의 월급은 얼마인가?

사회학자 마리아 미즈(Maria Mies)는 자본주의에서 여성은 경제적 활동을 위해 그 여성의 가사와 돌봄을 다른 여성에게 위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가사와 돌봄은 한 여성에서 다른 여성의 노동으로 대체되고 있다. 제도적으로 여성의 가사노동에 대해 가치를 평가하기 시작한 것은 1996년 국제노동기구에서 '가내근로에 관한 협약'을 채택하면서 돌봄노동을 포함한 가사 노동에 대해 임금 노동자와 동등한 대우가 되도록 국가의 의무를 부과한 시점이다.

2005년 재산분할 청구사건에서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전업주부의 가사노동 가치를 일반인부가 아닌 숙련도 높은 특수인부의 일당 65,734원으로 인정하는 판결을 했다. 가사노동의 가치를 일당으로 계산한 최초의 판결이다. 통계청 2023년 하반기 특별인부 일당은 208,527원이므로 전업주부의 월급을 대략 가늠할 수 있다. 판결 이후 노동시장에서 가사도우미 및 간병인 수요는 증가했다. 가사노동은 이제 무보수의 그림자 노동으로 취급할 수 있으며, 숙련된 기술이 요구되는 필요노동이다.

가사노동의 월급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가사노동시간을 산출해야 한다. 통계청 조사에서 2019년 맞벌이 부부의 가사노동시간은 남성 54분, 여성 187분(3시간 7분)이다. 동일하게 경제활동에 참여하지만 여성의 1일 가사노동시간은 남성보다 133분 더 길다. 2019년 한국여성정책연구원『가사노동 시간 측정과 행동평가 기준의 젠더불평등성 개선방안』의 보고서에 의하면, 월간 가사노동시간은 남성 약 99시간, 여성은 약 301시간이다. 1일 시간으로 환산하면 여성의 가사노동시간은 10시간이다. 통계청 조사 결과와 확인한 차이를 보인다.

보고서에서 기준 통계청 자료와 달리 가사노동을 7개 영역, 총 64개 항목으로 구분했고, 영역별로 기획노동과 실행노동을 구분하여 조사했다. 즉, 통계청 조사에서 반영하지 않은 가족과 친인척 돌봄시간, 명절 및 제사준비, 기획노동을 포함했다. 맞벌이 여성의 가사노동은 퇴근 이후 또는 휴일에 수행하므로 가사노동의 가치는 상당히 높게 평가된다.

### 가사노동을 사회적 가치로 인정하는 돌봄크레딧 제도 도입

2019년 연금개혁 특별위원회에서 국민연금의 돌봄크레딧 신설에 대해 제안 했다. 2020년 공단은 주요 OECD 국가의 크레딧 운영 현황을 분석했다. 독일 및 영국은 양육크레딧, 돌봄크레딧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독일은 돌봄수준을 5단계로 구분하여 돌봄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프랑스와 스웨덴도 양육크레딧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유럽 일부 국가에서 주부의 양육 및 돌봄 노동에 대해 사회적 가치로 인정하고 돌봄크레딧 제도를 운영한다. 공단도 양육크레딧, 모성크레딧, 노인돌봄크레딧, 장애인돌봄크레딧의 순차적 도입 방안을 제시했다.

역사적으로 많은 직업적 노동은 생성되고 소멸을 거듭했지만 가사·돌봄 노동은 한번도 소멸한 적이 없는 필수 노동이다. 이제 그 가치를 인정해야 하는 것이 시대적 요구이다. 가사·돌봄 노동의 사회적 가치를 인정한다면 전업주부도 직업이며, 노동시간을 인정하고 연금크레딧 혜택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법률과 제도가 구축될 때 여성의 양육과 돌봄노동은 어쩔 수 없는 선택이 아니라 더 중요한 기준에 따라 선택한 직업이 될 수 있다. W



## 감정노동자의 마음을 '공유'하세요 당신의 '좋아요'가 올라갑니다

홍춘기\_대전광역시 노동권익센터장



대전광역시 노동권익센터에서는 얼마 전 '감정노동 슬로건 공모전'을 진행했다.

위 제목은 대상을 받은 슬로건이다. 감정노동자의 마음을 '공유'하면, 당신의 '좋아요'가 올라간다.

SNS 시대에 잘 어울리는 슬로건이다.



2023 소규모 사업장 노동자를 위한 노동대학

### 콜센터 노동자의 열악한 노동환경이 공유되길

올해 대전의 콜센터 노동자들은 조례안을 만들고, 시민들의 청원을 받아 시의회에 제출했다. 콜센터 노동자 노동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한 대전시의 역할과 지원을 요구하는 주민발의 조례였고, 대전시민 9,825명의 서명을 받아 대전시의회에 제출했다. 대전지역은 유독 콜센터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많은 도시다. 대전의 많은 여성 노동자들이 일하고 있는 곳이지만, 콜센터가 일하기 좋은 직장인지는 모르겠다. 대부분 용역업체, 파견업체 소속으로, 극심한 감정노동과 방광염 등 직업병까지. 콜센터는 이직률이 높은 직장 중 하나이기도 하다.

지난 10월 4일에는 대전지역의 하나, 국민, 현대해상 콜센터 노동자들이 총파업을 선언하기도 했다. 하청노동자들에 대한 차별을 없애고, 열악한 처우 개선을 위한 원정의 노력을 요구하는 파업을 진행했다. 어느 토론회에서 있었던 일이다. 발제자가 콜센터 노동자들에 대한 연구를 발표하면서 이런 질문을 했다. "인도에 영국의 콜센터들이 많이 있는데 이유를 아나요?" 이어서 발제자는 "인도는 영국의 식민지였기에 영국식 영어를 사용하고 있고, 인도 여성들은 순종적이어서 민원인이 화를 내도 잘 참한다"고 하면서, "대전에 왜 콜센터들이 많이 내려왔을까요?"라는 질문을 던진 적이 있다. 대전지역 노동자들은 사투리를 거의 사용하지 않고, 말투가 표준어에 가까우며, 여성들이 순해서 민원인의 화를 잘 참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건 아닐까?

노동권익센터에서도 2016년, 2018년과 코로나 시기에 콜센터 노동자들에 대한 실태조사를 진행했다. 코로나 시기 방문 민원이 줄어들면서 콜센터 노동자들의 업무량은 급증했다. 콜센터의 덕분인지, 은행권은 코로나 시기 많은 이익을 냈다. 하지만 전국의 콜센터 77% 노동자들은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성과급 미지급 등 각종 차별을 받았다. 지난해 국민은행은 성과급 280%, 하나은행은 1,300만원 성과급, 현대해상은 월급의 750%를 상여금으로 직원들에게 지급했다. 그러나 정작 가장 수고한 콜센터 노동자들에게는 성과급이 지급되지 않았다. 또 용역업체와

6개월 단기 계약을 맺는 하나은행 하청업체 노동자들은 성과압박과 고용불안에 시달리고 있다고 한다.

안전공단 콜센터 노동자들의 경우, 높은 업무 강도로 2시간마다 15분 휴식을 권고하고 있다. 하지만 현대해상 콜센터의 경우 하루 30분의 휴식 시간도 주지 않고 있다. 노동자들은 각종 차별과 노동환경 개선을 위해 총파업을 선언했고, 서울 본사를 찾아갔다. 원청이 나서서 해결하라고 요구했다. 콜센터 노동자들의 노동환경은 작년에 '다음 소희'라는 영화로도 소개된 적이 있다. 실적압박으로 콜센터 노동자들은 아직도 높은 업무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대전 지역에 유독 많은 콜센터 노동자들에 대해 지역에서 좀 더 많은 관심을 가져줘야 할 때다. 감정노동자의 마음 공유뿐만 아니라, 노동환경에 대해서도 공유했으면 한다.

### 콜센터 외 대전지역 여성 노동자들의 상황은 어떨까?

대전지역 여성들의 취업률은 전국을 약간 상위하고 있다. 광역시별 여성 경제활동참가율(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을 보면 21년 기준 전국은 53.3%이며, 부산 49.5%, 대구 50.8%, 인천 53.8%, 광주 51.7%, 울산 47.6% 대전 53.7%로 나타났다. 다른 광역시에 비해 여성 취업률이 높은 편이다. 대전지역 여성들이 더 진취적이고, 자기개발에 적극적이며, 고학력으로 경력단절 여성이 적어서일까?

대전지역 여성들의 취업 현장은 대부분 어느 곳일까? 대전지역 여성들이 가장 많이 취업해서 일하는 곳을 산업별(2021년, 통계청)로 보면,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에 7만4천명이 일하고 있으며, 다음으로 교육서비스업 4만6천명, 도소매업 3만9천명, 숙박 및 음식업 3만2천명 순으로 종사하고 있다. 반면 전문가 중 여성 비율은 대전 45.3%로 17개 시·도 중 끌찌다. 관리자 중 여성 비율은 15.3%로 전국 7위다.

대전지역 여성 노동자들이 주로 일하고 있는 노동 현장의 특징을 보면 대표적으로 저평가된 노동들로, 저임금의 노동 현장이다. 보건업 및 사



회복지서비스업의 경우 중년여성들이 다수인 직종이다. 돌봄노동의 경우 돌봄노동에 대한 저평 가와 전문성을 인정받지 못해 대다수 저임금과 높은 노동강도로 노동자들이 힘겨워하는 곳이다. 나머지 직종들도 서비스 직종이다 보니, 감정노동과 저임금, 높은 노동강도 등 대부분 노동환경이 비슷한 상황이다.

적극적으로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대전지역의 여성 노동자들, 그들의 삶의 질은 어떨까? 대전에 살고 계신 여성 노동자들은 행복할까? 삶에 얼마나 만족하고 있을까?

노동권익센터는 여성 노동자들의 노동환경 개선을 위해 실태조사를 통해, 개선과제를 찾고 정책대안들을 제시하고 있지만 아직 많이 부족하다. 무료노동법률상담과 교육지원, 감정노동심리상담과 힐링 프로그램 지원 등을 하고 있지만, 34만명 대전지역 여성 노동자들이 체감하기에는 갈 길이 멀기만 하다.

앞으로 대전여성가족정책센터와 함께 할 일들이 많을 듯하다. 대전지역 여성 노동자들의 삶과 노동환경의 질을 높이기 위해 더 많은 협력과 교류가 필요해 보인다. 지속적인 교류와 협력으로 대전지역 여성 노동자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함께 기여하기를 희망한다. W



## 여성과 가족이 행복한 도시를 그리며

김세연\_대전여성단체협의회 사무처장

벌써 10년이 되어간다.

남아선호사상이 강한 시어머니는 항상 좋은 음식이나 물건은 무조건 남편과 아들에게 먼저 주었다.  
명절 때나 생신 때 시댁에 가면 “왔니!” 하시면서도 눈은 남편과 아들에게 가 있는 시어머니를 지켜봐 왔다.  
자연스럽게 ‘나의 딸은 절대 성별에 따라 차별받지 않는, 평등한 사회에서 살아갈 수 있게

작은 힘을 보태자’라는 목표를 갖게 되었고, 2014년부터 대전광역시여성단체협의회 사무처장으로 일을 시작했다.



### 대전여성단체협의회의 어제와 오늘

실질적인 양성평등이 실현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 마련을 꾸준히 요구했던 여성계의 바람과 노력이 2015년부터 성과를 보이기 시작하며, ‘여성 발전기본법’이 ‘양성평등기본법’으로 개정됐다. 법적·제도적 기반과 더불어, 여성들이 현실에서 직접 느낄 수 있는 여성정책이 마련되고 또 실현될 수 있도록 여성단체에서는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예로, 대전여성단체협의회가 전국에서 여덟 번째로 여성의 역량 강화와 인재 육성을 위한 ‘여성인재 아카데미’의 거점 교육기관으로 선정되어 한국조폐공사, 대전보훈병원의 여성 중간관리자 리더십 역량개발과 기관의 특화교육을 진행했다. 또한 일·가정의 양립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여 두 개의 중요한 축이 양립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하는 방안에 대해 고민하고, 남성 육아휴직 제도의 활성화에 대해 고민하는 시간을 갖는 등 여성의 적극적인 사회참여와 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했고 성과를 거두었다.

2020년 초부터 시작된 코로나19의 여파로 최근 몇 년은 일을 시작한 이래로 가장 힘들었을 정도로 어려운 시기였다. 행사가 연이어 취소되고, 모임을 하기 어려운 시간도 있었지만, 많은 노력과 관심, 그리고 의견을 나누는 장에 대한 바람이 합쳐지면서 몇몇 행사를 다시금 시작할 수 있었다. 먼저 ‘일상에서의 평등, 돌봄을 말하다’라는 주제로 시민과 함께하는 토크쇼를 개최했다.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진행을 하게 되면서 원활한 의견교류에 한계가 있긴 했지만, 대전의 워킹맘, 워킹대디들이 직면하고 있는 어려움을 확인하고 대책 방안에 대해 함께 고민해보는 시간을 가졌다. 아이가 있는 맞벌이 부부를 포함하여 현재 일과 가정 사이에서 어려움에 직면한 시민들의 이야기를 직접 들어볼 수 있었고, 이 의견들이 시에 곧바로 전해지면서 정책적으로 개선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뜻깊은 행사였다.

그리고 양성평등 주간에 ‘양성평등 4행시 공모전’과 ‘양성평등 스마트폰 사진전’을 개최했다. 9월 1일부터 7일까지 진행되는 양성평등 주간은 1898년 9월 1일 발표된 우리나라 최초의 여성 인

권 선언문인 ‘여권통문’과 ‘여권통문의 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정해졌다. 여성의 사회적 권리가 잘 보장되고 있는지 생각해보고 진정한 양성평등이 무엇인가에 대해 고민해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하는 의도에서 대전여성단체협의회는 매년 양성평등 주간 기념행사를 개최해왔다. 코로나19로 큰 행사를 개최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행사는 축소할 수밖에 없었지만, 이것을 기회로 삼아 좀 더 많은 사람이 양성평등에 관심을 기울일 수 있는 방법을 찾으려고 했다. 고민 끝에 생각해낸 방법이 4행시와 사진 공모전이었다. 시민들이 4행시를 짓고, 어떤 사진을 찍을지 고민하는 과정에서 양성평등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를 생활 속에서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지 생각해볼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자 했다. 간편하면서도 접근하기 편리한 방법을 통하여 다양하고 많은 사람이 손쉽게 양성평등 주간을 즐기고, 가족, 친구들과 함께 양성평등이 무엇인지 이야기 나눌 수 있는 시간이 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큰 행사였다.



진행했고, 분석된 결과에 따라 맞춤형 교육을 각자치구별로 진행했다.

### 지역 여성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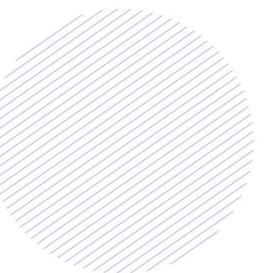
양성평등의 정의 및 내용이 끊임없이 변하는 상황에서 양성평등은 평생에 걸쳐 고민해야 하는 과제이다. 한 번의 교육으로 끝나는 것이 아닌 지속적인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렇기에 양성평등 교육이 초등학생부터 정규 교육에 도입되어, 인식 개선을 효과적으로 이루고 생애과정 전반에 걸쳐 양성평등 교육이 진행되는 미래를 그리고 있다.

여성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여성의 눈으로 바라보는 생활 속 이야기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고 모니터링하는 것이 여성단체의 의무라고 생각한다. 양성평등과 일·생활 균형이 실현되고 여성들이 맘껏 역할을 발휘하고 꿈을 펼칠 수 있는 사회가 되도록 말이다. 앞으로도 여성과 함께 모든 시민이 행복한 사회가 될 수 있도록 따뜻한 연대의 길에 함께해 주길 바란다.



## 활동가가 바라본 대전, 그리고 평등한 대전을 위해

전한빛\_대전여성단체연합 사무처장



### 대전여성단체연합이 만들어가는 길

대전여성단체연합은 인권·정치·평화·복지·장애·풀뿌리주민운동과 같은 각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대전 지역의 여성 단체들이 모여 2012년 3월 창립했으며 회원 단체로는 대전여민회, 대전여성장애인연대, 대전여성정치네트워크, 대전평화여성회, 실천여성회 '판', 여성인권티움, 풀뿌리여성 '마을숲'이 함께하고 있다. 여성폭력·차별·노동·정치 등 지역사회의 젠더 이슈 대응과 더불어 대전시에 성인지 정책 제언을 통한 거버넌스 구축에 앞장서고 있으며 성평등 문화 확산을 위한 캠페인과 문화제를 진행하고 있다.

여성운동이 매끄럽거나 쉬웠던 적은 단 한 번도 없겠지만 작년과 올해에는 정치적 상황에서

의 소모와 부침을 겪으면서 우리 지역사회 안에서 '여성'과 '성평등'에 대해 다시 한번 불씨를 지필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했다. 따라서 매년 진행하던 3.8 세계 여성의 날 대회의 폭을 넓혀 반성폭력·반성매매 활동과, 대학 여성주의 동아리, 연구노동자, 콜센터 노동자, 성교육 강사, 남성 페미니스트 등 성평등을 지지하는 다양한 시민구성원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연대하며 300여 명이 넘는 대전 시민의 참여를 이끌어냈다. 양성 평등 주간인 9월 첫 주에는 대전여성문화제를 통해 우리 지역 안에 성평등 문화를 확산하는 기회를 만들어냈다. 매년 조금씩 살을 채워 '대전여성 영화제', '여성주의 시리즈 강좌', '대전성평등문

화제' 등 다양한 구성의 문화제를 진행 중이며 올해에도 500여 명이 넘는 대전 시민이 참여하여 자리를 빛냈다. 대전시의 여성/성평등 정책에 대한 평가와 논의를 이끌어 내기 위해 올해 처음으로 '민선 8기 여성/성평등 정책 모니터링'을 시도하여 보고서를 만들었으며, 정책 워크숍 및 평가 토론회를 개최하여 대전 시민에게 이에 대해 알릴 수 있도록 노력했다. 해당 모니터링 작업을 통해 대전시의 조직이 개편되면서 정책이 어떻게 변화했는지, 또 더 보완되어야 할 부분이 있는지에 대해 기록했다. 앞으로도 매년 모니터링 결과를 차곡차곡 쌓아 시민사회와의 역할을 다하고자 한다.

### 지금 우리 대전은

과연 대전시는 성평등한 도시인가? 만약 평등하다면 어떤 지표 아래 그렇다고 평가할 수 있는가? 매년 여성가족부에 발표하는 지역성평등지수는 성평등한 사회참여, 여성의 인권·복지, 성평등 의식·문화 3개의 정책 영역 안에 경제활동, 의사 결정, 교육·훈련, 복지, 보건, 안전, 가족, 문화·정보 등 8개 분야 23개 지표로 구성되어 있다. 대전시는 해당 순위에서 매년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으므로 나름대로 성평등한 도시라고 생각할 수 있겠으나 언론 보도에 따르면 2022년 기준 대전은 가족 분야 등에서는 하위권을 차지했다. 가족 분야의 지표는 가사노동 성비, 가족관계만족도 성비, 셋째아 이상 출생 성비, 육아휴직자 성비 등이다. 뿐만 아니라 성 격차와 관련한 국제통계 순위에서 늘 100위권에 자리하는 대한민국 내 상대적 지수에서의 순위이니 더욱욱 평등하다고 단언하기에는 어려울 것이다. 대전여성가족정책센터에서 매년 발표하고 있는 「통계로 보는 여성의 삶」만 보더라도 대전의 여성은 돌봄과 가사노동으로부터 여전히 얼마나 자유롭지 못한지, 혹은 남성에 비해 여성이 얼마만큼 불안정한 노동

환경에 놓여있는지 알 수 있다.

성차별이라는 거대한 사회 문제는 결코 단순하거나, 한두 가지의 요인으로 발생하지 않는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모든 면에서의 혁신이 필요하며, 오랜 역사 안에서 시행해왔던 단순 복지 중심의 정책으로는 한계가 있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목표지향점을 분명히 하는 컨트롤타워의 존재이다.

야 한다. 대전시 현실에 맞는 성평등 정책을 만들 어내고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대안이 우리 모두에게 지금 바로 필요하다. 또한 행정은 언제나 시민과 달아있어야 한다. 시민의 요구를 보고 들으며 문제를 짚어내고 분석해서 해결 방법을 정책으로 제시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기적이고 지속적인 정책 연구가 반드시 필요하다.

하지만 결국 이 모든 것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시민 사회의 구성원 모두가 성평등 실현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 성차별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개인인 시민은 물론이겠거니와 행정과 의회는 현실을 회피하지 말고 반드시 주체로써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 출생율 0.7%, '젠더 갈등'이라고 불리는 끊임없는 격차와 대립 속에서 우리는 이제 '성평등'을 다음으로 미룰 수 없다. 대전여성단체연합 또한 앞으로도 계속해서 구성원으로서 책임을 다하여 끊임없이 목소리를 내고, 연대하고, 요구해나갈 것이다. 각자의 자리와 위치에서 역할을 다하며 '성평등한 도시 대전'이라는 목표지향점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보태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함께 나아가야 할 정도(正道)가 아닐까. W



3.8 세계여성의날 기자회견



3.8 세계여성의날



## 여성 활동가의 눈으로 본 지역사회

박이경수\_대전여성단체연합 정책위원장

『여성이 행복한 도시, 대전』의 마지막 호가 발행된다는 소식을 접했을 때

가장 먼저 떠오른 말은 '아! 지금 폐간한다니 아쉽다.'였다.

그런데 그런 생각이 든 순간 스스로 참 우스웠다.

이유는 당연히 그동안 발간된 호들을 꼼꼼히 읽어오지 않았던 내가 그런 생각이 들었다는 것에  
약간의 미쓱함이 느껴졌기 때문이다.

### '성주류화 전략 실천 모니터링' 활동의 경험

마지막 호에 담길 글을 의뢰받았을 때 대전여성가족정책센터 활동에 참여하기 위해 만났던 첫 미팅 장면이 머리를 스쳤다. 2018년 9월 3일, 성주류화 전략 실천 모니터링 활동을 위해 모니터단이 모여 인사도 나누고 교육도 받는 시간이었다. 당시 첫 미팅 때의 장면이 선명하게 기억에 남아있다. 지역에서 여성단체 활동가로 활동하면서도 센터의 활동에 참여하는 기회가 없었기 때문에 모니터링 활동에 대한 기대가 있었고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 함께 활동한다는 것에 대한 설렘이 컸다.

당시 모니터링 주제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여성참여 활성화 방안모색'이었다.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던 탓에 센터에서 해주는 교육을 열심히 들으면서 공부를 했던 기억이 난다.

특히 젠더 관점으로 도시를 들여다본다는 것이 성평등한 일상을 만들어 가는 중요한 부분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모니터링 활동에 꽤나 열심이었는데 내가 맡았던 도시재생사업은 대덕구 신탄진동 「지역활성화의 새여울」을 여는 신탄진 상권활력UP 프로젝트로 2017년 국토교통부 주관 도시재

생 뉴딜사업 공모에 선정된 사업 중 하나였다. 당시 3곳의 도시재생 사업 중 이 사업을 모니터링하게 된 것은 반성매매 운동을 해온 나의 활동과 연결되어 있었기 때문이었다. 신탄진의 도시재생사업 추진 지역은 유통주점과 마사지샵 등 소위 산업형 성매매 업소들이 모여있는 지역으로 아웃리치 활동을 자주 나갔던 곳이다. 도시재생사업을 통해 그 지역이 변화되길 누구보다 바랐다. 그래서 모니터링 활동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모니터링 활동을 통해 만난 주민들과의 인터뷰를 통해 여성의 안전하고 평등한 공간에 대한 기대를 느낄 수 있었다. 다만, 도시재생 과정에서 여성들의 참여가 높지 않다는 현실적인 어려움도 마주하게 되었다. 도시재생 과정에서 참여하는 주민들의 대부분은 주민자치위원회를 중심으로 활동하는 주민들이었고 여전히 여성의 참여보다는 남성이 다수 참여하다 보니 여성의 의견을 개진하거나 의견을 하는 권한이 적을 수밖에 없는 구조였다. 나는 성주류화 전략 실천 모니터링 활동을 통해 마을 단위에서 구성된 조직들의 성비, 의결권이 얼마나 불균형한지 목격하게 되었다. 물론 일상의 많은 것들을 통해 항

“  
성주류화 전략 실천 모니터링 활동을 통해 마을 단위에서 구성된 조직들의 성비, 의결권이 얼마나 불균형한지 목격하게 되었다

“  
다양한 사람들과 소통하고 연결할 수 있는 연대의 장을 끊임없이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연결된 연대의 장에서 더 많은 시민을 만날 수 있기를 바란다

상 목격하고 마주하고 있다. 남성 중심의 마을단위 조직구성과 의결권, 남성중심의 도시환경 등 당연하게 여겨왔던 것들을 젠더 관점으로 들여다보고 변화를 만들 어가는 것이야말로 여성이 행복하고 안전한 도시를 조성하는 데 중요한 과정이라는 것을 알았다. 나의 활동 영역을 넓히고 정책에 대한 관심을 높일 수 있었던 소중한 기회였다.

### 연구를 통한 정책 시행 기틀 마련 중요

대전시는 '여성이 행복한 도시'라는 슬로건을 패 오랜 기간 사용해왔다. 그러나 대전에 사는 여성들은 행복하다고 생각할까? 내가 만나왔던 여성 친구나 여성 주민들을 만나면 "대전이 여성이 행복한 도시라고 생각해요?"라는 질문을 가끔 던진다. 그러면 대부분은 "글쎄... 잘 모르겠는데?!"라는 답변이 온다. 많은 여성 시민들이 위의 슬로건처럼 느끼지 못하는 것 같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대전여성단체연합 여성 활동가로서 여성 시민에게 필요한 정책, 지역 여성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성평등한 일상을 만들어가기 위한 정책 등을 수립하는데 역할을 하고 싶었다. 여성/성평등 정책을 들여다보고 대전시 여성친화도시 시민참여단과 젠더 관점으로 정책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시에 의견을 개진하는 활동을 했다. 다만 일련의 모니터링 활동을 통해 개진된 제안들이 대부분은 시정에 반영되지 않고 의견 개진으로 끝나버리는 한계에 부딪혀 왔다. 2021년 정책 모니터링 활동으로 대전시 산하 공공기관 성별임금에 대한 모니터링을 진행했다. 이를 통해 성별임금 관련 연구 실시를 제안했고, 나아가 성평등 임금공시제가 도입되어 추진되어질 기대했다. 하지만 예산 부족이라는 걸림돌을 넘어서지 못했다. 제안되는 정책은 많지만 실제로 시정에 반영되지 못하는 현실은 좀처럼 나아지지 않는다. 당연히 실행력을 가지려면 예산이 있어야 하지만 늘 예산 부족이다. 대전시가 여성과 성평등 정책 연구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길 바란다. 특히 여성 노동환경 개선과 관련한 연구가 전무하다. 연구를 통한 정책 시행의 기틀을 마련했으면 한다. '여성이 행복한 도시, 대전'이 되길 기다려 본다. 기나긴 기다림의 시간이 될지라도.

### 끊임없는 연대의 장에서 소통하기

필자가 소속되어 있는 대전여성단체연합의 중요한 활동 중 하나는 여성/성평등 사안에 대해 문제 해결과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것이다. 사안이 터지면 가장 먼저 하는 일은 성명서를 작성하고 필요에 따라 연대체를 꾸려 흩어진 목소리를 모아내는 일이다. 한 명의 목소리는 흩어지지만 여럿의 같은 목소리는 힘을 얻는다. 같은 목소리를 내는 사람들과 소통하고 연대할 수 있다는 것은 더 나아갈 수 있다는 희망이다.

대전여성단체연합은 매년 7개의 회원단체(대전여민회, 대전여성장애인연대, 대전여성정치네트워크, 대전평화여성회, 실천여성회 '판', 여성인권티움, 풀뿌리 여성 '마을숲')와 대전여성문화제를 개최한다. 문화예술로 성평등 인식을 확산하는 활동으로 여성영화제, 성평등문화제(토크&공연), 토론회나 전시회 등 프로그램을 구성해 진행해오고 있다. 문화예술로 많은 시민과 소통하고 서로가 연결되고 연대를 확인하는 희망의 장이다. 따라서 다양한 사람들과 소통하고 연결할 수 있는 연대의 장을 끊임없이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연결된 연대의 장에서 더 많은 시민을 만날 수 있기를 바란다. ⓧ





# 오랫동안 머물던 도시, 대전 이곳에서 나는 꿈을 꾸고 있다

이단비\_㈜아트먼트 대표 / 마술사

## 굳이 일을 만들고, 하고 싶은 일만 하는 사람

나는 초등학교 때 우연히 접한 마술이 현재 직업 까지 이어져서 마술사로 활동하고 있다. 학창 시절 친구들에게 취미로 시작한 마술을 보여주며 특별한 사람이 된 것 같은 기분에 심취해 있었다. 고등학교 시절, 마술은 나에게 하나의 탈출구이자 아무것도 아닌 내가 특별해질 수 있는 도구라 생각했다. 대학보다는 마술사로 유명해지고 싶다는 생각이 커지고, 대학 진학에는 관심이 없었다. 부모님의 반대가 있었고, “대학은 가야 한다”는 말씀에 뒤늦게 고민하던 중 마술학과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

대학을 들어가며 나의 독립이 시작됐고, 내가 마술을 제일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 재능이 있는 사람들이 넘쳐 난다는 것을 깨닫게 됐다. 함께 다니는 친구들과 동료가 되기도 하고, 라이벌이 되기도 하며 시도해 보고 싶은 것은 모두 해보면서 1년 내내 마술과 함께 살았다.

1년 정도 학교생활을 하다 마술 소속사에 취직 했다. 취업했지만 가장 배고팠던 시기였다. 무대에 서고자 하는 학생들의 열정을 악용하는 회사였으며, 월 30만 원을 받아 가며 나는 무대에서 마술공연을 쉬는 날 없이 진행했다. 무대 경험을 쌓기 위해 돈보다는 공연하는 것을 택했고, 무대에서는 너무 즐거웠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내가

하고 싶은 마술보다는 회사 대표가 원하는 컨셉 의마술로 무대에서 되는 날이 많아지고 그것이 정답이라는 듯 배우고 무대에 섰다. 나는 로봇이 된 것 같았다. 마술사로 살고 있다는 생각이 들지 않았다. 나에겐 미래가 보이지 않던 소속사의 생활을 정리하고 다시 대전으로 돌아왔다.

2014년부터 대전에서 다시 처음부터 혼자 시작했다. 작은 공연업을 하는 나에게 큰 변화를 가져다주었다. 마술하던 친구들은 마술을 포기하고 다른 사업을 시작하기도 했다. 코로나 때 포기하지 않았던 이유 중 하나는 지금도 함께하고 있는 동료 덕분이다.

나와 함께 일을 하고 있는 동료는 고등학교 친구이다. 고등학교 때 마술동아리에서 만난 친구였고, 그 당시에는 친하게 지내진 못했었다. 성인이 되어 동아리 친구들을 만날 기회가 생겼고, 혼자 마술을 하는 나를 찾아와 가끔 도와주던 친구였다. 서로 말이 잘 통하고 함께 하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자연스럽게 같이 일하게 됐다. 혼자였다 면 시도하지 않았을 일들을 함께이기에 할 수 있었고, 지금도 여전히 나의 단단한 기둥으로 흔들림을 잡아주고 있다. 우리는 2019년부터 본격적으로 ‘아트먼트’라는 이름으로 활동하며 마술을 기반으로 다양한 사업 아이템을 진행하던 중 코로나로 인해 주춤하게 된다. 사람과 대면하여 진행하는 사업들인데 만날 수 없으니 수익은 제로

로서 살기를 원한다. 아직 학창 시절 꿈꾸던 마술사의 삶이 지금의 나의 모습은 아니다. 하지만 조금씩 다가가고 있다는 것을 느낀다. 앞으로도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며 살아갈 예정이다.

## 코로나로부터 시작된 것들

코로나는 공연업을 하는 나에게 큰 변화를 가져다주었다. 마술하던 친구들은 마술을 포기하고 다른 사업을 시작하기도 했다. 코로나 때 포기하지 않았던 이유 중 하나는 지금도 함께하고 있는 동료 덕분이다.

나와 함께 일을 하고 있는 동료는 고등학교 친구였고, 그 당시에는 친하게 지내진 못했었다. 성인이 되어 동아리 친구들을 만날 기회가 생겼고, 혼자 마술을 하는 나를 찾아와 가끔 도와주던 친구였다. 서로 말이 잘 통하고 함께 하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자연스럽게 같이 일하게 됐다. 혼자였다 면 시도하지 않았을 일들을 함께이기에 할 수 있었고, 지금도 여전히 나의 단단한 기둥으로 흔들림을 잡아주고 있다. 우리는 2019년부터 본격적으로 ‘아트먼트’라는 이름으로 활동하며 마술을 기반으로 다양한 사업 아이템을 진행하던 중 코로나로 인해 주춤하게 된다. 사람과 대면하여 진행하는 사업들인데 만날 수 없으니 수익은 제로

가 됐다. ‘잠깐이면 지나가겠지.’라고 생각한 시간이 거의 3년간 지속됐다. 하지만 다른 일을 할 생각은 하지 않았다. 아니 못했다. 오히려 코로나 시기 마술공연 외의 일을 시도하게 되었다.

## 수익창출을 위해 시작한 ‘마술도구 키트’ 개발

첫 번째로는 비대면 마술도구 만들기 키트를 출시했다. 비대면으로 할 수 있는 수익 방법들을 고안했고, 비대면 마술 공연과 마술도구 만들기 키트를 개발해 코로나 시기에 수익을 충당했다. 마술도구 만들기 키트는 대전시민창작센터에서 활동을 할 때 만들어보았던 키트인데 제품으로 상용화하지는 않았다. 그러다 코로나 시기에 비대면 키트에 관한 문의가 많아져 상용화하기 위해 발품을 팔아 기자재를 구입하고, 여러 번의 수정으로 누구나 만들 수 있는 키트로 견고하게 제작하게 됐다. 마침내 키트는 KC인증까지 완료하여 제품으로 출시했다. 와디즈에서 문의가 와서 펀딩도 진행해 봤으며, 유성 진로진학센터와 연계하여 중학교에 대량 납품도 진행했다. 공장처럼 주문받은 물량을 맞추기 위해 부모님과 친구들을 동원하여 키트 생산을 진행하기도 하며 꽤 높은 수익을 냈다.

## 로컬복합문화공간 ‘제로사이’(zer042)

두 번째로 ‘제로사이’라는 로컬 브랜드를 만들었다. 우리는 우연히 연구사업으로 들려온 대동에 마음을 빼앗겨 한 달여간 공간을 찾아 나섰다. 임대도 쓰여있지 않은 빈 공간, 그 공간이 맘에 들었다. 주인 할머니를 설득한 끝에 그 공간을 확보했고, 마냥 좋았다. 임대 계약서를 작성할 때까지도 나는 거기서 무엇을 할지 정하지도 않았다. 친구는 인테리어 유튜브를 한창 보고 있을 시기였다. 직접 다 해보고 싶다는 그의 말에 자재를 지원하고 가벽부터 계단, 창문, 도배 모든 것을 다 직접 해나갔다. 싸우고 웃고 또 신나고를 반복하여 조금씩 모습이 바뀌어 나갔다. 여자들이 매일 똑똑 거리는 모습을 보던 이웃들은 월 하려고 그러나며 매일 물으셨다. 그때도 시원하게 말을 하지 못했다. 공사를 하며 이웃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친해지면서, 이 곳의 주민들이 궁금해지고 대동이



공연 ‘마술같은 시간’



대동 벽화기획

궁금해졌다. 공사가 마무리 될 때쯤, 우리 바로 앞에 있는 동네 목욕탕인 동부탕의 철거가 확정됐다. 그게 ‘제로사이’ 활동의 시작이 됐다. 철거되면 아무도 기억하지 못할 주민들의 추억을 기록하는 것이 취지였고, 동료와 함께 ‘제로사이’의 첫 번째 아카이브 전시 동부탕을 시작했다. 이후 ‘제로사이’의 활동은 대동을 중심으로 다양한 작업을 해나갔다. 주민들을 주제로 한 두 번째 아카이브 전시 ‘대동소담’을 진행했고, 이후 대동을 게임하며 여행하는 로컬미션투어 ‘카밍시그널’이라는 여행 키트를 만들어 사람들이 대동에 머무는 시간을 늘리는 작업도 진행했다. 또한 대동 현장지원센터와 협업하여 두 가지 주제로 벽화 기획을 전반적으로 맡아 진행했으며, 지금은 12명이 소규모로 마술을 즐길 수 있는 공연 ‘마술 같은 시간’도 진행 중이다. 나에게 ‘제로사이’는 스케치북이었다. 미술학원에서 배우는 입시용 그림을 그리는 스케치북이 아닌 내가 쓰고 싶은 소재로 내 멋대로 그리며 공유할 수 있는 공간, 그것을 나누는 것이 큰 행복이었다. 하지만 3년 동안 공간에서 수익은 내지 않고 오로지 개인 스스로 투자하며 유지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다. 현재 아트먼트는 ‘제로사이’를 포함하여 3개의 공간을 운영하고 있기에 임대료가 만만치 않다. ‘제로사이’는 적절한 수익모델을 찾지 못하여, 계속해서 유지하기에는 부담이 있어 현재는 ‘제로사이’의 오프라인 공간은 정리를 고민하고 있다. 하지만 3년간의 시간이 수익을 떠나 나에게

유의미한 공간이었고 행복한 기억이 가득한 곳이다. 내가 ‘마술사’로서의 작업이 아닌 로컬크리에이터로서의 작업을 한 시간이었다.

사실 우리는 지금 두 명이 하기에는 조금 많은 일을 하고 있다. 선택과 집중을 못하는 게 아닌 하고 싶은 일이 많다고 표현하는 것이 더 맞다. 그렇기에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것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 앞으로의 ‘아트먼트’의 지속성을 위해 정리를 시도하고자 한다. 하고 싶은 일을 줄이는 것 이 아닌 계속하고 싶은 일을 하기 위한 정리를 말이다.

## 새로운 만남과 기회

마지막으로 대전여성가족정책센터와의 만남을 이야기해보자면, 기획대담에 간단한 인터뷰 형식으로 대전에서 활동하는 여성 예술가들과 교류할 수 있는 자리가 있었다. 모두 따뜻하게 환대해주시고 딱딱하게만 느껴졌던 자리도 편히 이야기할 수 있도록 잘 이끌어주셨다. 사실 그 전까지는 센터에 대해 알지 못했지만, 활동하시는 방향이나 여성들의 발언 기회를 늘리기 위해 노력하는 기관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든든함이 생겼다. 기획대담을 통해 무엇보다 같은 대전에서 활동하지만 알지 못했던 여성 예술가분들을 알게 되어 좋은 시간이었다. 뿐만 아니라 글을 쓸 수 있는 이번 기회는 나와 같은 지역 청년의 활동에 관심을 가져줬다는 것이므로 큰 의미가 있다. 앞으로 오랫동안 대전에서 머물 예술가로서 말이다. W



## 계속 나아갈 반향

한은성\_소외된 모든 것을 조명하는 팀 '오토' 연극인 / 연극치료사

어렸을 때 대전은 하루빨리 벗어나고픈 곳이었지만 삽막한 서울 생활을 정리하고  
도망치다시피 다시 돌아온 대전은 안정감을 주는 '고향'으로 탈바꿈돼 있었다.

혼자 살 수 있는 독립체로 자라난 것과 대학 전공과 현장 경험에서 어느 정도의 기술을 습득한 덕분이었다.  
그렇게 5년 전 대전에서 나는, 다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자고 마음먹었다.

### 비수도권에서의 활동, 더 큰 실현 가능성 제공

어떻게 살아가고 싶은지는 어렸을 적부터 현재까지 같은 맥락이었기 때문에 많은 고민이 필요하진 않았다. '가부장제'에서 탈피하고, 짓눌려 있는 소수의 목소리를 보란 듯이 꺼내어 놓는 것이었다. 그렇게 고향이란 이름을 되찾은 5년여 시간 동안, 앞으로 같이 나이 들어가고 싶은 사람들을 만나고 공연을 통해 하고 싶었던 응어리진 말들을 무대 위로 꺼내 외쳤다. 내 곁에는 언제나 삶을 지지해주는 여성들이 있었고 서로의 자원이 되어 노래하고 공연을 만들며 차별과 혐오에 대해 즐겁게 대향했다.

나는 이 글에서 차별과 혐오를 씻어내고자 소동했던 그간 작품 활동에 대한 회고와 자본이 없는 가난한 문화예술인들의 슬픈 눈, 후들거리는 다리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 보고 싶다.

2021년 치료적 공연『마이 민』을 시작으로 대전에서의 창작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2022년 중증 뇌성마비 여성장애인 자전 공연『진희의 꿈』, 2023년 여성 노동자 1인극『당신이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까지. 일 년에 한 편씩 무대 위에 올리

는 것을 목표로 소외된 모든 것들을 하나씩 조명하고자 한다.

그 밖에 활동으로는 에코페미니즘 커뮤니티 '피스터스' 안에서 다양한 친환경 활동으로 사람들을 모으고 함께 밥을 만들고 먹으며 가까운 사람들에게 진정 가족다움을 찾아나가는 중이다.

나의 모든 예술 활동들은 멀리서 바라보면 한 마디로 '반향 중'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다.

### 차별과 혐오에 맞서는 '문화예술'의 힘

『마이 민』을 만들 당시 여성들로 구성된 팀 '오토'

이름으로 지원금 없이 사비로 제작에 들어갔는데 당시 나는 어디서 굴러들어온 지도 모르는 어린애들이(심지어 연극 경험이 없던 스텝들) 사랑과 진정성으로 사람들에게 충분한 감동과 울림을 주는 작품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을 보수적인 대전 연극계에 보이고 싶었다. "연극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야"라는 연극에 대한 견고한 정의로부터 누구든 배우가 될 수 있고, 연극을 만들며 치료적 경험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싶었다. 공연 안에서 객석과 무대의 경계를 없애고 모든 관객과

배우가 함께 연극치료 작업을 진행했다. 이때 관객들과 함께 느낀 감동과 연극의 치료적 힘은 그 다음 해『진희의 꿈』을 만들 수 있는 큰 동력을 제공했다.『진희의 꿈』은 중증 중증 뇌성마비 여성 박진희 님의 실제 삶을 연극을 통해 대본화한 치료적 자전 공연이다. 처음 만난 인터뷰 날, 진희 님은 매 순간 웃음을 짓고 있었지만, 성장기 내내 받아온 무시와 차별, 현재까지 달라지지 않는 주변의 시선 등 당신 삶을 말할 땐 자주 큰 분노를

뿜어냈다. 나는 어쩐지 진희 님과 내가 비슷한 목적을 갖고 이 공연을 시작한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중증 뇌성마비인이 주인공으로 정식 공연에 오르고, 훨체어석이 없는 극장에 배리어프리 를 시도하고, 여성들이 모여서 무대를 만들고 공연의 처음과 끝을 자력으로 진행한『진희의 꿈』은 모든 것이 사회에 대한 반항이자 짜릿한 복수였다. 한 여성의 삶에 대해 관객들은 우레와 같은 박수를 보냈고 커튼콜에 선 진희 님은 태어난 이래 가장 활짝 웃었다. 아주 오랫동안 준비된 진희 님의 복수가 영리하고 아름답게 완성된 순간이었다. 내게『진희의 꿈』을 설명하는 가장 강렬한

한 장면이 있다. 공연이 시작되기 전, 소대(무대 밖에 배우들이 대기하는 통로)에 앉아 문을 열고 줄줄이 입장하는 훨체어들을 보았던 장면이다. 그동안 대전에서 볼 수 없었던, 민간 소극장에 훨체어가 들어서는 장면을 보고 웃각 눈물이 났다. 이렇게 당연하고 별것도 아닌 일이 일어나기까지 얼마나 많은 땀과 노력이 필요해야 하는지. 그 이미지는 이 공연의 존재와 앞으로 내가 가야 할 방향을 명징하게 가리켜 주었다. 그 후 제작한 공연은 대전여민회 후원의 밤에서 올렸던 1인극,『당신이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다. 공연을 위해 다양한 직군의 여성 노동자들을 직접 찾아가 인터뷰했다. 그리고 '일'에 대한 여성들의 입장을 대본으로 만들었다. 프리랜서 예술활동가 당사자로서 느낀 가난함에 대한 회의와 노동자로서 인정 받지 못하는 현실, 임신, 출산, 육아마다 겪게 되는 불안과 차별, 가치와 안정을 찾기 위해 발버둥 치지만 과다한 업무와 날 선 평가에 점점 목표와 멀어져 가는 하루하루를 보고 담았다. 요즘 현대인의 삶은 대개 어렵다. '일' 자체가 갖는 정적인 의미는 물론 '나'라는 개인의 의미 또한 점차 흐려지는 현실이다. 나는 공연을 통해 노동자가 자신이 숭고한 가치를 느끼고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응원의 메시지를 보내고 싶었다. 공연 막에서 배우는 이렇게 말을 하고 사라진다. "나는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송고하고 아름답다. 사회의 현실에서 삶이 어려울지도로, 헛되지 않아. 헛되지 않아. 헛되지 않아" 모든 노동자와 내 친구들 그리고 내가, 자신의 헛되지 않음을 잊지 않고 다리가 후들거리고 어깨가 뻣뻣하게 굳어도 존재 자체가 주

는 희망으로 남은 모든 날을 살아가기를. 올해 마지막으로 제작한 공연을 통해 빌었다. 비수도권 대전에서의 활동은 도리어 더 큰 실현 가능성과 역동을 제공한다. 여기에서 꿈틀거림은 금방 동네를 넘어 대전 전체로 전파되고 보수적이고 얌전한 울타리가 무엇이든 깨부수고 싶은 도전정신을 주기 때문이다. 더 많은 이유가 있지만 어쨌든 대전은 나의 정체성이자 변화의 출발과 종착지의 접점이 되었다.

### 가난한 문화예술인의 슬픈 눈, 후들거리는 다리에 대해

마지막으로 가난한 문화예술인들의 슬픈 눈과 후들거리는 다리에 관한 이야기를 꺼내고 싶다. '가난'이란 표현을 쓰는 것은, 나를 포함해서 내 친구들 모두 가난하기 때문이고 우리가 일하는 대부분 활동이 임금 보장 밖에 있으며 문화예술

인에 대한 지원이 턱 없이 부족하다는 것을 의미 한다. 올해부터 경기도에서 '예술인 기회 소득'이란 이름의 시범사업을 시작했다. 경기도에 거주하는 예술인들에게 창작 지원금으로 75만원씩 2회, 연 총 15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내용이다. 이 소식은 예술 활동을 포기할까 고민에 놓인 많은 예술인에게 희망을 주었다.

하지만 우리가 사는 대전은 실효성 있는 문화예술 지원 시스템은 물론이고 대책 마련 단계에 도 들어가 있지 않다. 더 많은 문화예술인들이 자신의 아이디어와 열정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장을 마련해 주어야 한다. 지원 형태와 영역의 세분화가 필요할 것이고 더 많은 지원 부문의 카테고



리가 생겨야 할 것이다. 대전의 문화의 질을 일당백으로 옮겨주었던 복합문화공간 '맞배집'은 최근 인스타 게시글에 재정적 이유로 사라질 위기에 처해 있음을 알렸다. 맞배집은 여러 곳의 지원을 문의해 봤지만 어디서도 도움을 얻을 수 없었다. 이것은 나의 이야기이고 대전의 모든 문화인의 이야기이다. 많은 이들이 거대한 삶을 지고 후들거리며 버티고 있다. 대전이 좋아 뿌리를 뻗는 이들에게 차마 삶을 내려놓으라 하지 않았으면 싶다. 나는 정말 마지막으로 '문화예술인도 행복한 도시 대전'이 되기 위해서 지속적이고 실효 가능한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이 글을 마치고 싶다. W



공연 '마이 민' 연습 현장



공연 '진희의 꿈' 단체 사진



## 글로벌 공존의 도시, 대전

김윤희\_ 대전시 외국인주민 통합지원센터장

행정안전부 통계자료에 따르면 대전에 거주하고 있는 장기체류 외국인은 2021년 기준

23,263명으로 귀화자와 외국인주민 자녀까지 포함하면 총 외국인주민은 33,078명에 이른다.

외국인주민 1만명 이상 또는 총 인구의 5% 이상 거주하는 외국인주민 집중 거주지역은 2019년 기준 유성구(10,347명)가 해당된다.

법무부 출입국 외국인정책본부에 의하면 2023년 6월 기준 대전지역 유학생은 7,510명으로

관내 외국인의 30%를 차지하고 있으며, 동구와 유성구에 많다. 외국인유학생, 외국국적동포, 결혼이민자등의

거주 비율 순위 대전의 외국인주민 특성은 외국인근로자, 외국국적동포, 결혼이민자, 외국인유학생의 순으로

나타나는 수도권뿐만 아니라 타 지역과는 확연히 다른 특성을 보인다.



### 외국인주민의 정착을 돋는 곳

필자는 여성가족부 다문화가족 지원기관(현 가족센터)에서 5년 5개월을 근무하고 현재는 대전시 사회서비스원 소속으로 위탁운영 중인 대전시 외국인주민 통합지원센터에 2년여 근무하고 있다. 이전에는 다문화가족지원법 법적 대상자인 결혼이민자, 다문화가족, 다문화가족 자녀를 대상으로 가족 서비스를 지원하였고 현재는 외국인주민 전반(외국인근로자, 외국인유학생, 외국국적동포, 결혼이민자, 외국인가정 등)을 대상으로 장기 정주를 지원하고 있다.

현재 대전시는 글로벌 도시로서의 대전을 지향하고 있으며 이것은 장기 정착을 원하는 외국인의 지역 활동 등 선순환을 위한 유입과 정주 환경 조성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전에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근무 시 다문화가족 대상 상담을 진행하면서 많은 가족문제를 접했고, 부부갈등으로 이혼하거나 결혼이주여성으로 겪는 심리적 어려움 등을 함께하면서 초기 정착에 중심을 두었다면 이제는 다문화가족의 자녀 성장에 따라 장기 정착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현 센터에서는 가족 중심이 아닌 외국인 개인 측면의 다양한 문제를 접하고 있으며 특히 많은 외국인유학생이 대전에서 계속 정주를 원하고 있다는 사실을 체감한다.

본 센터의 외국인주민 지원사업을 통해 등록한 외국인주민 회원 수는 2년 만에 1,300여 명을 넘어섰으며 지역통합, 지역복지, 생활적응, 문화공존의 영역별 정주 환경 조성사업을 추진 중이다. 지역의 전통시장도 돋고 외국인에게 전통문화도 알리는 '전통시장 문화소통', 지역활원의 주도적 역할을 하는 '외국인주민 봉사단', 생활한국어, 국적취득을 위한 '한국어교육' 등 다양한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외국인의 대전 유입을 돋는 '국제교류협력' 사업도 운영 중으로 민간단체, 청소년 등 다양한 영역에서 국제교류를 통해 대전을 알리고자 노력하고 있다.

지역 내 외국인주민 정주 환경을 마련하고, 지역의 외국인이 다시 해외에 대전을 알리는 매개자 역할을 함으로써 대전을 찾는 연결고리인 정주와 유입이라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외국인주민 사업 참여자가 국제교류를 연계하는 당사자가 되기도 한다.

작년 UCLG 기간 동안 16개국의 통역지원 리에종을 연결하고 글로벌 대전 문화축제 운영 및 그동안의 외국인주민 지원으로 센터가 국무총리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또한 올해 0시 축제 기간에는 외국인 퍼레이드와 해외방문단 대상 문화체험 프로그램, 친선교류전 등을 운영하는 등 지역 내 외국인이 대전을 알리는 해외홍보 역할을 했다.

### 지역에 정주하는 외국인, 국제교류의 매개자

지금 우리나라로 지역특화형 비자를 시범운영하고 있으며 장기 정주 중인 외국인근로자 대상 거주 혜택을 주는 등의 외국인 유입과 정주 환경 구축을 위해 여러 가지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대전은 외국인 수가 많은 경기도, 서울, 경남, 충남 등과 다르다. 국제결혼의 결혼이민자 취업환경 조성과 외국인유학생의 정착을 위한 취업환경 조성 등 또 다른 과정과 설계가 필요하다.

얼마 전 센터를 찾고 대전에서 취업을 하고자 노력했던 외국인유학생들이 졸업을 한 후 서울로, 독일로, 타 지역으로 갔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역량을 대전에서 펼쳤으면 좋았겠다는 생각이 들어 안타까운 마음이 컸다. 외국인이 대전에 정착하면서 지역에 활동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한다.

올해 대전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외국인 창업환경 조성에 관심을 가지고 본 센터와 협력하기로 했다. 체류자격 제한 때문에 창업으로 바로 이어지지 못하는 경우 순차적 과정을 설계하여 외국인 창업을 위한 교육 및 워크숍을 실시한다. 정주를 위한 외국인주민의 창업 역량강화의 첫 단계를 시작한 것이다. 대전산업단지 조성을 앞두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외국인주민의 유입은 큰 폭으로 증가할 것이다.

체류자격 변경은 법무부의 고유 영역이나, 정주를 원하는 외국인의 체류자격 변경에 필요한 조건들을 지역 내 초기 유입단계부터 갖출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외국인주민이 지역의 인적자원이 되어 대전을 알리는 국제교류의 매개자 역할이 가능하도록 말이다.

외국인주민이 정착 단계별로 지속적인 정주를 선택할 수 있도록 지역 차원의 지원체계와 취업 및 창업 환경 조성 등 맞춤형 글로벌 공존도시, 대전으로 더욱 관심이 모아져야 한다. ⓡ





## 폭력 없는 다문화 사회를 향한 여정

박민정\_대전기아대책이주여성쉼터 소장



### 이주여성의 안정과 자립을 위한 울타리

대전기아대책이주여성쉼터는 대전지역의 이주배경을 가진 폭력피해 여성들에게 인권보호와 폭력 예방의 보호막이 되고 있다. 다문화 사회에서 폭력 없는 공존을 실현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이주여성 폭력 피해자와 그 가족 구성원에게 필요한 보호와 지원을 제공하며 이주여성 및 다문화 가족의 사회통합을 촉진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대전기아대책이주여성쉼터는 2008년 12월 대전시로부터 위탁을 받아 사회복지법인 희망친구 기아대책이 운영하고 있으며,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스토킹 등 다양한 폭력 피해를 입은 이주여성과 그 가족 구성원을 보호하고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지하 1층과 지상 3층으로 구성된 주거 공간을 제공하여 입소자들의 신변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고 있으며, 정서적 안정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또한, 의료, 법률, 수사, 자립 지원 등 다양한 방법으로 이주여성이 한국 사회에 조기 정착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이주여성 폭력 피해자들은 전국의 여성긴급전화1366센터, 다누리콜센터 1577-1366, 가족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가정폭력상담소, 성폭력상

담소 등의 연계 기관을 통해 각 지역에 있는 이주여성쉼터에 입소할 수 있다. 보호 기간은 기본적으로 1년이며, 필요한 경우 6개월 단위로 연장하여 최장 2년까지 보호받을 수 있다.

### 이주여성이 가장 우려하는 문제, 경제적 어려움

전국 보호시설에 거주하는 이주여성(2014년, 155명) 대상으로 가장 시급한 어려움이 무엇인지에 대한 설문 조사를 한 결과, 대부분 응답자가 '경제적인 자립'을 가장 우려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어서 주거 문제, 자녀 양육 및 자녀 문제로 나타났다.(1위 경제적 문제, 2위 주거 문제, 3위 자녀 양육 및 자녀 문제)

경제적 자립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2015년 대전기아대책이주여성쉼터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사랑의 열매'가 기획한 「취약계층 여성의 경제적 자립 역량 강화를 위한 인턴십 지원사업」 공모에 지원하여 선정됐다. 폭력피해로 인한 후유증, 신변노출의 불안 등으로 자립에 어려움을 겪는 쉼터 입소자 및 대전지역의 취약계층 이주여성들을 대상으로 한국어 교육, 네일아트, 바



'多맛! 누룽지' 공장



'꿈 아시아' 카페

리스타, 헤어관리 및 염색 등의 교육을 진행했다.

이어서 2016년 '꿈 아시아' 카페를 개소했고, 인턴십 지원사업에 참여한 교육생 중 바리스타 자격증을 취득한 이주여성들을 채용하여 일자리를 창출했다. 바리스타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은 물론, 한국어가 서툴거나 서비스직 경험이 없는 이주여성들에게 카페 실무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한 후 외부 카페에 취업시키는 역할을 했다.

2017년에는 대전시의 도움으로 '多맛! 누룽지' 공장을 쉼터 내부에 개설하여, 폭력피해 이주여성 입소자들이 안전한 일터에서 소득을 얻도록 함으로써 경제적 자립능력을 키울 수 있는 기반을 다졌다. 그러나 소수의 종사자만으로 자력 사업을 하다 보니 종사자들은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게 되었고, 코로나19까지 겹치면서 3년 이상의 매출 부진으로 인해 2022년 12월 사업을 접게 됐다. 이후에는 주로 지역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이주여성들에게 일자리 기회를 제공하고 있지만, 전문기술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식당이나 공장, 농장 등으로 연계하고 있다.

현재 입소해 있는 이주여성들의 경우 여성인력개발센터나 고용센터의 상담을 통해 취업을 연계하고 있지만, 한국어 소통에 어려움이 있어 안정적인 일자리 확보가 어렵다. 쉼터에서는 생활 한국어 수준으로 소통할 수 있지만, 센터 상담 후 경제적 활동을 함에 있어 현실의 벽을 실감하고 적극적으로 한국어 수업에 참여하기도 한다. 쉼터에서는 자립 의지가 뚜렷한 입소자들을 위해 직업훈련 및 교육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취업 지원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 이주배경을 가진 여성들의 권리와 안녕을 위해

최근 현장에서는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시설의 통폐합으로 인해 혼란에 빠져 있다. 이주여성 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의 경우 2022년부터 여성가족부 지

침에 따라 이미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난민, 스토킹, 데이터폭력 등의 피해자를 통합하여 지원하고 있다.

이주여성들의 경우 피해 유형뿐만 아니라 이주배경에 따라 지원방식이 달라져야 한다. 이주여성 보호시설을 회복단계별(위기쉼터, 중장기쉼터, 그룹홈)로 구분하는 의미가 점차 축소되고 있다. 이제는 대상자의 욕구를 반영하기 위하여 한 가족에 하나의 독립 주거 공간이 보장된, 회복단계 유형을 초월한 서비스가 필요하다.

대전시는 다문화 사회에서의 폭력 예방과 인권 보호를 위해 다양한 정책과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추진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 이주여성을 위한 안전 관련 매뉴얼을 개발하고 보급하여 폭력 예방 및 대응에 필요한 정보와 자기 보호 방법을 제공해야 한다. 더불어 폭력 피해자 지원을 강화하고, 의료비 및 교육비 지원 정책을 개선하여 이주여성들이 폭력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한 경제적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주여성에 대한 교육 기회를 확대하고, 한국어 교육 프로그램을 강화하여 문화적 차이를 극복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하며, 다문화 사회를 위한 문화 축제와 행사를 개최하여 지역사회와의 다양성을 증진하고 상호 이해를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

대전시와 대전여성가족정책센터는 다문화 관련 기관 간의 협력을 촉진하고, 정보와 자원 공유를 원활하게 진행하여 서비스와 지원에 대한 수준을 높이고, 이주배경을 가진 여성들의 권리와 안녕을 보장하고 평등하고 다문화적인 대전을 만들기 위해 계속해서 노력해야 한다.

대전시와 함께하는 폭력 없는 다문화 사회를 위한 여정은 많은 어려움과 도전이 있겠지만 그 가치와 중요성은 더 크다. 폭력 없는, 평등한, 다문화적인 사회를 향한 우리 모두의 열정과 노력을 미래를 밝게 비추는 희망의 불씨가 될 것이다. W

# #엔딩\_크레딧

한 권의 「여성이 행복한 도시, 대전」(이하 여행대전)을 만들기 위해 다양한 분야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기획에 참여해왔다. 내부 편집진과 외부 편집위원들은 매호마다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테마 선정부터 콘텐츠 구성, 자료 수집, 기고자 섭외까지 모든 과정을 함께 고민했다.  
마지막 호를 통해 이들이 여행대전을 만들면서 겪고 느낀 경험을 담아 보았다.



권순자

『여성이 행복한 도시, 대전』  
편집위원



김순조

『여성이 행복한 도시, 대전』  
편집위원



서한나

『여성이 행복한 도시, 대전』  
편집위원



이유진

『여성이 행복한 도시, 대전』  
편집위원



브론테

『여성이 행복한 도시, 대전』  
편집진



카타리나

『여성이 행복한 도시, 대전』  
편집진



서류기방

『여성이 행복한 도시, 대전』  
편집진



## 여행대전, 훌륭한 자극제 덕분에

권순지\_『여성이 행복한 도시, 대전』편집위원



『여성이 행복한 도시, 대전』(이하 여행대전)의 편집위원 활동이 내 삶에 주는 의미는 단순한 보람 그 이상의 것이었다. 가부장제 성역할 구조에서 감내하는 것이 많은 여성으로서의 내 삶과 무관하지 않은 이야기를 꺼내 보여주는 일, 그것을 기획 단계에서부터 참여하는 일은 어떤 의미에서는 여성으로서는 나의 삶을 다시 디자인하는 일이라 생각되었다. 또한 여행대전을 통해 동시대를 사는 지역의 수많은 여성의 서사가 공명하기 바라는 마음도 있었다.

여성을 고통스럽게 하는 구조를 당장 완벽히 바꿔낼 수는 없어도 지역에서 여성의 문제를 담론화하는 일은 매우 중요한 일이라 생각되었고, 편집위원으로서 그에 일조할 수 있다는 생각은 주어진 역할에 최선을 다하게 했다.

편집위원으로 참여하고 나서 여행대전에 처음 쓴 글이 떠오른다. '코로나 시대의 돌봄과 관계'라는 제목의 글이다. 갑자기 아픈 아이를 돌봐달라고 편하게 부탁할 만한 어느 한 사람도 떠올릴 수 없는데, 일 때문에 집을 비워야 하는 상황에서 코로나 시대의 절망을 사유하며 썼다. 당시 지역 사회 공적 돌봄이 포용하는 범위가 좁다는 것을 체감했고, 코로나로 인해 사회적 거리 두기가 일상화되었던 시기인지라 관계의 단절 또한 체감하는 정도가 컸다. 감

염병 재난 시대에 발열 증세가 있는 아이를 데리고 공적 공간에 나간다는 것 또한 사회적으로 불가능하던 때였다. 당시 느꼈던 돌봄과 관련한 절망, 그 와중에 관계가 완전히 단절되지만은 않았다고 느끼게 해준 지인이 베운 최대 한의 호의를 떠올리며 글을 썼다. 이 글을 읽고 누군가는 공감하고, 또 누군가는 문제 해결을 위해 더 힘을 쏟길 바라며 쓸어낸 글이다.

한편 직접 겪은 일상의 경험이 아닌 이슈 더하기 섹션에 썼던 글도 꽤 또렷하게 기억에 남아 있다. 2021년 10월에 첫 방영되었던 드라마 『구경이』에 대한 리뷰 글이다. 단순히 배우 이영애의 복귀작이라는 점에서 주목받았던 『구경이』의 서사를 해체하며 해당 드라마가 여성 서사이면서 동시에 여성만의 서사가 아닌 사회적 연대로 확장되는 과정에 주목하며 리뷰를 썼다. 리뷰를 남길 만큼 드라마 『구경이』가 인상적이었던 것은 주요 캐릭터들이 기존 젠더 질서에 부합하지 않는 성격을 지녔다는 점 때문이었다. 특히 대중매체에서 일반적으로 재현하였던 중년 여성의 틀을 깨고 나타난 주인공 '구경이' 캐릭터가 사회가 요구하고 바라는 통념을 가볍게 무시하고 자신만의 삶을 떳떳하게 그려내는 모습에 몰입하였던 기억이 난다. 또한 '구경이' 캐릭터

여성으로서의 '나', 동시대 지역 여성으로서의 '우리', 그리고 시민으로서의 '모두'가 훌륭한 자극제 덕분에 성평등한 사회를 희구하는 시각을 잊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구경이를 중심으로 한 주변 인물들 간의 호혜적 장면, 그리고 그것이 연대로 이어지는 서사에 집중하며 성별화된 갈등 사회에 필요한 대안적 미래를 그려보기도 하였다. 보통 '여성의 일'이라 일반화되어 온 영역이 남성에 의해 실천되는 모습, 세대의 골을 가볍게 넘어 서로에게 생의 의지를 불들어 주는 중년세대와 청년세대의 연대를 지켜보며 그것이 드라마 속 희구가 아닌 현실이면 좋겠다는 상상을 참 많이 했다. 결국 '이건 꼭 써야 해!'라고 의지를 불태우며 현실 세계에서 글로 남겨두었던 일은 지금 생각해도 의미 있는 작업이었다고 생각된다. 여성이 행복한 삶은 기준의 질서가 전복되어야만 가능한 세계다. 그리고 그러한 세계가 만들어지면 여성 존재를 둘러싼 주변 모두가 고통받지 않는 삶을 살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린다. 『구경이』가 주는 메시지는 바로 그 지점에서 여행대전을 통해 담론화되어야만 하는 가치가 있었다.

편집위원으로 함께 활동하였던 서한나 님과 나눈 편지글이 여행대전에 실렸던 일도 잊지 못할 기억이다. 한나님에게 전할 편지를 쓰며 글을 쓰는 사람으로 살고 싶었던 오래된 꿈, 혹은 욕망이라 할 수 있는 기억을 되짚어 볼 수 있었다. 작가 일을 했던 사춘언니를 동경하며 품었던 어린 시절의 꿈을 이루지는 못했지만, 어떤 식으로든 글 쓰는 일을 놓지 않은 지금의 나는 또 다른 '글 쓰는 여자들' 덕분에 얻은 용기, 힘 덕분에 쓰는 일을 계속할 수 있었다. 2019년에 한나님과 함께했던 여성들이 모인 글방에서 나눴던 단단한 온기를 잊지 않고 쓴 글이 여행대전 35호에 실렸다. "어떤 강박도 없이 우리 자신이 되어요, 우리는 글을 쓸 수밖에 없게 태어났어요."라고 화답하였던 서한나 편집위원의 글을 읽으며, 아직 어떤 강박에서 벗어나지 못한 나의 삶을 자조하기보다 더욱 용기를 얻었다. 주어진 역할, 무게, 그로 인한 책임으로 인해 온전히 원하는 삶을 살고 있지 못한다는 비관에서 벗어나, 완전히 벗어버리지 못한 책임을 감당하면서도 스스로 바라는 삶의 모양을 희미하게라도 그려내자는 다짐을 했다.

함께했던 편집위원들을 포함하여 '우리'라고 칭할 수 있는 사람들을 만난 것에 감사함을 느끼며 여행대전에게 작별을 고하고자 한다. 여성이 행복한 도시로, 성평등한 사회를 이뤄내고자 하는 목적으로 발행하였던 여행대전의 기획과 발행 작업에 함께한 모든 분과의 시간은 개인의 삶에도 큰 동력이 되었다. 성평등은 사회에서 쉬운 지배 이데올로기로 군림한 젠더 권력을 비판하는 데 필요한 가치이다. 그런데 본질화된 젠더 권력이 오랜 기간 지속되어 온 사회에서 성평등 시각을 바탕으로 사유하기란 그만큼 어렵다. 여행대전은 성평등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비판적 사유를 놓치지 않게 하는 훌륭한 자극제였다. 여성으로서의 '나', 동시대 지역 여성으로서의 '우리', 그리고 시민으로서의 '모두'가 훌륭한 자극제 덕분에 성평등한 사회를 희구하는 시각을 잊지 않았다. 여행대전은 마무리 되지만, 또 다른 자극제가 시민에게 곧 당도하기 바라며 작별의 글을 마친다.

## 92년생 정원에게

김순조\_『여성이 행복한 도시, 대전』편집위원



“

양성평등 사회를 지향하는  
『여성이 행복한 도시, 대전』의  
편집위원으로서의 활동도  
나에게는 퍽 의미가 있었다.  
편집위원으로 활동하는 동안  
성인지 감수성을 점검해볼 수  
있었으니까.”

”

“아버님, 어머님 죄송해요.”

1992년 1월 13일 세상에 태어난 첫 손자를 만나러 병원에 오신 시부모님께 한 이 말이 내 평생에 걸쳐 가장 후회되는 말이 될 줄은 몰랐다. 지금 생각해도 얼굴이 화끈거린다. 12시간 넘는 진통 끝에 결국은 제왕절개로 너를 세상에 내놓고 기껏 한다는 말이 죄송하다니. 마취에서 깨어나 정신이 없었을 텐데 아들을 낳지 못했다는 죄송함이 그렇게 뻣속 깊이 박혀 있었던 것일까?

나중에 『82년생 김지영』을 읽으면서 지영 씨의 엄마 오미숙 여사가 1980년에 첫째 딸을 낳고 나서 시어머니에게 죄송하다며 눈물을 흘렸다는 대목을 접했을 때 정확히 12년 후가 지난 세월 속에서도 딸을 낳아 죄송하다는 인사가 유효한 사회 분위기였다는 게 놀랍기만 하구나.

아무튼 그 일은 너에게도 참으로 미안한 일로 남아있음을 고백한다. 그러나 마 다행이었던 것은 너도 잘 알다시피 할아버지 할머니는 큰아들 집에 아들이 없다는 사실에 크게 아쉬움을 내색하지 않으며 사셨다는 것이다. 그 후 너에게는 사촌인 손자들을 봤음에도 큰손녀라고 너를 각별히 예뻐하셨던 기억이 너에게 남아 있음도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출산 후 나는 너를 이모집에 맡기고 출산 휴가 2개월을 못 쓴 채 일터로 나

가야 했다. 신생회사였기에 출산휴가를 쓰는 최초의 여직원인 나에게 회사는 1개월의 출산휴가를 강요했다. 법적으로 엄연히 2개월의 출산휴가가 보장돼있던 시절이었는데도 말이다. 아기를 낳는다는 것이 어떤 건지도 모르던 서른의 나는 나를 위해서라기보다는 나를 바라보는 후배들을 위해서 이런 부당한 요구를 들을 수 없다고 생각해 2개월의 휴가를 요구했다. 어쩌면 그 시간이 내 삶을 통틀어 나의 페미니즘이 가장 강력하게 발동했던 시간이 아니었을까 싶다. 다행히 나의 주장은 관철됐고 2개월의 출산휴가는 당연한 일로 자리 잡게 되었다.

그러나 2개월의 출산 휴가를 다 사용하지 못했던 이유는 출산 전 너무 일찍 집으로 들어온 까닭이었다. 배려 깊은(?), 하지만 섬세하지 않았던 남자상사는 예정일보다도 한참 일찍 나의 일을 남직원들에게 모두 넘겼고 할 일 없이 일터로 나가 있는 게 힘들어 예정일 약 2주 전 집에 들어왔던 것이다. 한 달하고 보름 남짓 만에 나가야 하기에 서둘러 젖을 말리고 꺼지지 않은 배에 복대를 하면서 출근을 준비했다. 일터에서는 출산 후에도 여전히 쓸모있는 직장녀라는 사실을 증명해주기 위해 힘들어도 아닌 척 애썼다.

네가 10개월이 되던 즈음, 나는 워킹맘의 삶을 접고 전업주부로서의 삶을 택했다. 소위 경단녀가 된 것이다. 늘 일이 바빠 주말에만 너를 봐야한다

는 아쉬움이 커던 차에 내린 결단이었다. 하지만 새로운 직장을 잡기까지 3년간 전업주부로서의 삶은 그리 행복하지 않았다. 육아라는 고립된 섬에 오롯이 너와 나만 갇혀있는 나날이었다. 거룩한(?) 모성애만을 강조하며 육아에 대한 사회적 배려가 전혀 없던 인터넷 이전의 시간이었다. 그리고 ‘다시 일을 할 수 있을까’라는 미래에 대한 걱정도 컸다. 주변의 엄마들은 아이가 어린이집에 나갈 수 있게 되자 하나둘 일터로 나가기 시작했다. 대개는 보험회사 영업직부터 시작했다. 지금도 그렇지만 90년대 중반 경단녀들이 선택할 수 있는 직업은 지극히 한정돼 있다.

주변에는 아들 가진 집들이 많았다. 알게 모르게 태아 성감별과 여아 낙태는 한집 건너는 있을 정도로 흔한 일이었다. 집집마다 아들은 있어야 한다는 이데올로기가 팽배해 있었다. 너를 볼 때마다 사람들은 “응~ 첫째라고? 꼭 남동생 봐야겠네.”라는 말을 아주 자연스럽게 건넸다.

초등학교에 들어간 너는 학기 초마다 반장을 하고 싶어 했다. 그런 모습이 대견스러워 같이 연설문도 작성하는 등 머리를 맞대고 선거전략을 짰던 게 엊그제 같구나. 82년생 김지영은 초등학교 졸업 때까지 여자 반장을 보지 못했다고 했지만 92년생 김지영들은 반장선거에 나서기도 하고 활동도 했음은 그나마 변화라면 변화였다. 하지만 네가 중학교 고등학교로 진학했을 때 여전히 전교회장은 남자들의 자리였다고 이야기했던 기억이 난다.

네가 자랄 때 나는 가정에서 성평등 환경을 만들려 나름 노력했던 거 같다. 하지만 문제는 아빠였다. 육아와 가사에는 무관심했고 일을 핑계로 바깥세상에 더 관심이 많았던 아빠는 많은 날 술에 취해 들어오는 게 너무나 자연스럽던 전형적인 90년대 아빠였다. 너에게도 ‘지지배’라는 단어를 쓰던 성 감수성 제로이던 아빠와 직장 일에 가사와 육아에 큰며느리로서 시댁일까지 전담하는 슈퍼우먼 엄마의 모습은 너에게 좋은 그림들은 아니었을 것이다. 요즘 20~30대 여성들이 결혼이나 출산, 그리고 남성에 대해 갖는 부정적인 생각들은 많은 부분 어렸을 적 겪어온 가부장적인 가정으로부터 받은 영향이라.

네가 가정을 꾸리게 되면 엄마와 아빠의 삶을 반면교사로 삼아 성평등한 가정을 이루기를 바라본다. 엄마 세대는 제도도 미흡한 데다 도도한 관습의 물결이 거세서 결혼과 동시에 알면서도 큰소리 내기 싫어 넘어가거나 또 미처 의식하지 못한 채 한쪽으로 기울어진 가정을 꾸렸던 게 사실이다. 그게 너를 비롯한 또래의 딸들에게 얼마나 답답해 보였을까?

최근 본 두 편의 영화에서 느끼는 바가 컸다. 해변 피아노 연주장면으로 유명한 ‘피아노’(감독 제인 캠피온)와 칸 영화제 각본상을 수상했던 ‘타오르는 여인의 초상’(감독 셀린 시아마)이었다. 여성을 사람 취급하지 않던 19세기와 18세기를 배경으로 한 이 영화들은 남성 중심의 관습에 소극적이나마 저항하고 삶의 주인공으로서 당당히 서고 싶어 하던 여성들의 이야기다. 역사에 남을 여성들은 아니었지만 나는 이런 이름 없는 여성들이 불평등의 견고한 벽들을 깨트려왔다고 생각한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여성들은 일상 속에서 더욱 깨어있어야 한다. 평등사회로 나아가는데 우리의 사고 언어 행동 등이 보이지 않는 힘으로 작동하기 때문이다. 21세기를 살아가는 너와 나에게도 그런 사명이 있다고 얘기하면 너무 거창하다고 할까? 양성평등 사회를 지향하는 『여성이 행복한 도시, 대전』의 편집위원으로서의 활동도 나에게는 퍽 의미가 있었다. 편집위원으로 활동하는 동안 성인지 감수성을 점검해볼 수 있었으니까.

앞으로도 여성으로서 내 삶의 주인공으로 주체적으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서로 점검하며 살자꾸나. 네가 아내가 되고 엄마가 될 때 엄마보다는 훨씬 더 편안하게 일과 가정을 꾸려갈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 진짜로 대화하고 있다는 느낌

서한나\_『여성이 행복한 도시, 대전』편집위원



『여성이 행복한 도시, 대전』(이하 여행대전)을 떠올리면 책보다도 회의 장면이 먼저 생각난다. 매번 테이블 위에 커피와 쿠키가 준비되어 있었고, 그것들은 맛있었다. 돌아가면서 자기소개를 했지만 서로의 하는 일을 정확히 기억하지는 못하며, 그보다는 그가 준비해온 기획 아이디어가 더 중요한 것 같은 분위기였는데, 그게 마음에 들었다. 회의를 거듭할수록 사람들이 묘하게 더 반갑게 인사해 주는 것도 느꼈다.

편집장은 전문성이 있고 방향성이 명확했다. 편집위원과 실무자는 기간에 맞춰서 기획회의 때 정해진 것들을 최대한으로 완수했다. 목적성에 맞게 움직였기 때문에 쓸데없는 논쟁을 길게 할 필요도 없었다.

거기 모인 사람들은 인정하는 것 같았다. 우리는 각자 처한 현실이 다르다는 것을, 이 한 권에서 모든 걸 말할 수는 없다는 것을, 이 한 권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바꾸고 정책을 바꿀 순 없다는 것을. 하지만 이 일은 중요하고, 이 시간은 소중하다는 것을.

여성주의 활동가로 살면서 시민단체와 지자체에서 기획한 행사에 자주 참여했다. 나와 함께 참석한 사람들은 활동가, 정치인, 공무원, 학자였다. 진

짜로 대화하고 있다는 느낌은 자주 오지 않는다. 언젠가부터 나는 그런 자리에서 사람들이 뭘 얻고 싶어 하는 건지 알 수 없다고 생각했다. 발언하라니 준비는 하지만, 시작 전에는 다른 패널이 할 이상한 발언에 기운 빼지 않는 법에 대해 더 많이 생각했다. 진심을 가장할 수도 있었고, 진심이 아닌 채로 말하고 들을 수도 있었다. 하지만 진심이 아니면 어떤 것도 의미가 없다. 적어도 내게는 그랬다.

강남역 살인사건 이후, 이삼십 대 여성들이 얼마나 들고 일어났든, 이후 그들의 삶과 방향성이 얼마나 바뀌었든, 그들이 얼마나 성실한 시민이든 상관없이, 정책 결정 과정에 참여하는 여성과 권력을 가진 사람은 여전히 적다. 여성이 겪고 있는 문제는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한다는 것과 관계없이 이 문제는 늘 후순위였다. 하지만 그럴수록 공공기관에서 여성의 삶에 대한 연구를 지속하고, 관련된 이야기를 계속하는 것은 중요하다. 희망이 있다고 느끼게 하기 때문이다. 여행대전이 기획되고 실행되는 과정에 참여하는 것은 나에게도 그런 의미였다. 나에게 중요한 것이 세상에 중요하게 받아들여지는 경험이었다.

“

여행대전을 만들기 위해 사람들과 모여 있는 동안 종종 낯선 감각을 느꼈다. 순간의 진심일지라도 그 낯선 느낌은 타인과 나 사이를 생각하게 했다. 여행대전은 아마 기획할 당시에는 예상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누군가에게 오래 남을 것이다.

”

“당사자의 목소리를 담아야 한다.” “그가 올 수 없는 상황이라면 글이라도 받을 수 있도록 해보겠다.”라는 말은 회의 때마다 매번 들었던 것 같다. 나는 그 말이 가장 감동적이고 든든했다. 잘 가고 있다고 생각했다. 여행대전의 메인 코너라고 할 수 있는 기획대담에서 특히 섭외가 중요했는데, 그때는 서로 추천하기도 하고, 알만한 사람들에게 추천을 부탁하기도 했다. 지금까지 대담이나 인터뷰에 참여한 분 중에는 공적인 말하기가 처음인 사람들도 있었다.

그들이 일상 속에서 하고 있는 일들, 뉴스를 보고 침통한 기분을 느끼는 것에서부터 시작해 친구들과 이야기 나누는 것, 국민청원을 리트윗하는 것, 직장에서 작은 문제들에 개입하는 것, 바꾸기도 하고 실패하기도 하는 것. 그러면서 하게 된 생각들을 나누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다. 사람들은 다른 이들이 더 잘 살아보려고 움직일 때, 실행할 때, 진심으로 무언가를 바라는 모습을 볼 때 자신의 삶에 대해서도 애정을 갖게 된다.

한때 “사이좋게 지내요.”라는 말이 조롱의 의미로 쓰였던 것을 기억한다. 강남역 살인사건이 일어난 직후 추모하는 현장에서였다. 추모하기 위해 모여든 사람들 앞에서 인형탈을 쓴 사람이 말했다. 여자와 남자는 싸우지 말고 친하게 지내야 한다는 것이었다.

나는 지금 비건인 친구와 함께 대만을 여행하고 있다. 나는 논비건으로 살고 있다. 가판대의 생선 냄새, 야시장의 누린내를 친구가 감내하는 동안 나는 코를 썩 닦는 것으로 그 거리를 지나갈 수 있다는 말이다. 그리고 그럴 때 그가 느낄 고독감을 나는 알지 못한다. 내가 생각 없이 살 수 있다는 사실 자체가 누군가에게는 복잡한 감정을 안겨줄 것이다. 세상의 많은 강자들은 부당함을 짚는 약자 앞에서 “그럴 의도는 없었어…”라고 말하지만, 강자의 폭력은 바로 그 의도 없음에서 출출 새어 나온다.

내가 점심과 저녁 사이, 곱창국수를 먹기 위해 구글 지도에 ‘아종면선 선 중샤오푸싱점’을 검색하고, “5분이면 돼. 먹고 올게.” 말하고 10분 만에 뛰어서 돌아왔을 때, 그는 “좋겠다. 나도 그런 거 먹고 싶다.”고 했다. 본격적인 식사도 좋지만, 간단히 한 끼 해결할 수 있는 스낵바 같은 것이 필요했을 것이다.

그는 본인 때문에 내가 불편하지 않을까, 들어가고 싶은 가게에 들어가지 못 할까봐 걱정하고 있었다. 그 앞에서 식단을 숨겨야 하는 것이나 그와 함께 비거리니즘에 무지한 사회를 비판할 때 거기에 당연히 내가 포함되는 당혹스러움은 그가 겪는 괴로움에 비하면 너무 사소하고, 너무 드물게 일어나는 일이다.

성소수자에 대하여 앤라이가 갖는 태도나, 여성주의를 말하는 여성에 대하여 남성이 할 수 있는 태도, 비건에 대하여 논비건이 가질 수 있는 태도는 비슷하지 않을까. 자기가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알기, 헤아려도 헤아릴 수 없는 것이 있음을 알기, 헤아려보려고 하는 자신에게 취하지 말기. 그런 태도를 갖게 되면 자연스럽게, 말하기보다는 듣는 사람이 될 것이다. 아마도 내가 기획회의에서 느꼈던 매끄러움은 이러한 태도와 관련 있을 것이다.

기획회의에서 뵈었던 편집위원 한 분이, 여행대전 지난호에서 다룬 ‘탈코르셋’을 언급하시면서, 여행대전을 통해 당신이 지금껏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단어를 들어보게 되었다고 말했을 때 나는 순수한 기쁨을 느꼈다. 활동가로 살면서 느끼는 기쁨도 비슷하다. 누군가가 “지금까지 나와 상관없다고 생각했던 것이 사실은 상관있는 것이었구나. 무척이나 상관있어지겠구나 생각했어요.”라고 말했을 때, 인간에 대한 애정을 갖게 되었다.

여행대전을 만들기 위해 사람들과 모여 있는 동안 종종 낯선 감각을 느꼈다. 순간의 진심일지라도 그 낯선 느낌은 타인과 나 사이를 생각하게 했다. 여행대전은 아마 기획할 당시에는 예상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누군가에게 오래 남을 것이다. 이 세계에서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고 싶어 하는 사람들에게 진심으로 고민하는 타인이라는 존재는 생각보다 큰 힘이 되기 때문이다. W

# 다시 보니 잘 썼다

이유진\_『여성이 행복한 도시, 대전』편집위원



대전은 대학이 많은 도시다. 그러나 졸업과 동시에 학생들은 썰물처럼 대전을 빠져나간다. 그런 동기들 사이, 나는 대전에 남았다. 어쩌면 남겨졌다고 하는 게 더 적합할지도 모르겠다. 무엇이 목표인지도 모르고 무작정 대전을 떠나려던 나를 잡아줬던 건 『여성이 행복한 도시, 대전』(이하 여행대전)이었다. '여성이 행복한 도시, 대전'이라는 제목에는 물음표가 떠올랐지만, 이 책이 나를 조금이라도 행복하게 해주지 않을까 싶은 마음에 참여하게 되었다. 매번 글을 써서 제출할 때마다 이걸 공개해도 되는 걸까 싶은 생각을 했다. 너무 미흡한 글이라서 나의 부족함만 광고하는 꼴이 되지 않을까 걱정이 됐다. 여행대전의 마지막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되고, 그간 썼던 글들을 다시 읽어보았다. 그런데 웬걸, 다시 읽어보니 과거의 나, 꽤 잘 썼다?

## 여행대전 32호 ◦ 꺾이지마사이다: 김호연재, 한덕희 그리고 우리의 글 이야기

글을 썼던, 글을 쓰는 여성들의 이야기로 나의 글쓰기를 시작했다. 대전의 여성 문인에 대한 자료를 대전문학관에서 받아보았다. 90%의 남성 문인들 사이에서 여성 문인의 이야기를 발견했다. 나의 글을 내놓는 것은 마치 일기를 펼쳐 이마에 붙이고 다니는 기분이라고 했었는데, 그건 지금도 여전하다.

## 여행대전 33호 ◦ 직급이 '막내'인 직업

한때 방송작가가 되고 싶었다. 방송사에서 일하는 것에 대한 환상이 있었던 것 같다. 프로그램이 끝나고 올라가는 '엔딩 크레딧에 내 이름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다. 그렇게 방송작가가 보조 알바를 하게 되었다. 주 6일 백화점 아르바이트와 병행하며 밤새 촬영본을 정리했다. 그렇게 두 달 뒤, 내가 받은 돈은 25만 원이었다. '이걸 직업으로 삼은 사람들이 있다고?' 이 글은 거기에서부터 시작했다. 당시 이 글을 쓰기 위해 방송작가로 일하고 있거나 일을 했던 언니들을 인터뷰했는데, 지금 그 언니들 모두 건강에 문제가 생겨 방송작가를 그만두었다.

“

여행대전은 쉬었던 글을 다시 쓰게 해주었고, 익숙하다 못해 지겹게 느껴지던 대전을 다시 보게 만들어주었다.

”

## 여행대전 34호 ◦ 학교다움

초등학교에서 진행되는 성평등 수업 모니터링을 위해 학교로 출장을 갈 일이 있었다.

“뭐야, 너 여자나?”

“내가 여자면 축구를 하겠나?”

“너 그렇게 계속 시비 걸면 내가 너 '참교육'한다.”

10분이라는 짧은 쉬는 시간 사이, 복도에서 들려온 아이들의 목소리였다. 지금 초등학교는 어떤 상황이며,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 걸까

## 여행대전 35호 ◦ 내가 선택하는 가족: 생활동반자법에 대한 이야기

대전에서 사는 누군가, 생활동반자법이 통과되길 바라는 누군가와 이야기를 하고 싶었다. 인터뷰라는 명목하에 내가 혼자가 아님을 확인받고 싶었다. 그리고 인터뷰를 하면서 깨달았다. 혼자가 아님을 확인받고 싶었던 것도 나 혼자만이 아니었음을. 그리고 이런 얘기를 실을 수 있게 된 것만으로도 이미 혼자가 아니었음을.

## 여행대전 35호 ◦ 피부에 새기는 예술

청년 여성 예술가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자 했던 35호에서 나는 '여성 타투이스트'를 인터뷰하고 싶었다. 그러나 익명으로 진행을 하더라도 인터뷰에 참여하기는 어렵다는 답변들만이 돌아왔다. 인터뷰 참여를 꺼리는 이유를 모르는 것도 아니라서 그냥 내 이야기를 하기로 했다. 언젠가 기회가 된다면 타투가 있는 여성의 몸에 대한 이야기를 깊이 있게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 여행대전 36호 ◦ 동물이 행복한 도시, 대전?

대전시 동물보호센터는 전국에서 잘 관리되는 곳으로 손꼽히는 곳이다. 그러나 예전에는 그렇지 않았다. 지금의 새로운 동물보호센터가 생기기 전, 유성구 갑동에 있던 보호센터를 나는 기억한다.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얼마나 바뀌었는지 직접 가보고 싶었다. 그리고 오랫동안 입장이 되지 않은 동물들을 홍보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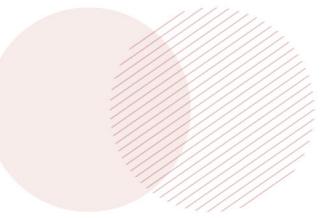
'청년'에서 여성청년이 배제되듯이, 도시에서 여성의 행복이 뒷전으로 밀려나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그러나 이게 끝이 아님을 안다.

여행대전은 쉬었던 글을 다시 쓰게 해주었고, 익숙하다 못해 지겹게 느껴지던 대전을 다시 보게 만들어주었다. 그 사이 동구에서 중구로, 중구에서 유성구로 이사를 했고 방송작가를 고민하다 세종여성을 라자로 왔다.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 잘 모르겠다. 내가 이곳에서 얼마나 일을 할 수 있을까 하는 불안함도 있다. 그러나 페미니즘을 알게 된 이상, 과거로 돌아가는 일은 없을 것이다. 내가 다른 분야에서 전혀 다른 일을 하게 되더라도 말이다. w

#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게 하려 했던 시간들...

브론테\_『여성이 행복한 도시, 대전』편집진



가장 염두에 둔 것은 '보이지 않는'이었다.『여성이 행복한 도시, 대전』(이하 여행대전)은 자연스럽게 혹은 빤히 보이는 것 뒤에 그림자처럼 서 있는 혹은 넘어져 있어서, 관심을 가지고 앞에서 거들먹거리는 것을 치우거나, 열정으로 오래 보아야 보이는 것에 집중해왔다.

그래서 우리는 장애 여성을, 고등학생을, 지역예술가 여성을, 여성 노동자를, 청년 여성을 만났다. 이들은 비장애인 중심으로 돌아가는 경제, 정치, 교육, 문화 구조 안의 장애인이고, 성인이 사회의 중요한 사안을 결정하는 사회에서 고등학생이며, 서울에 집중된 문화예술 인프라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한 지역에서 예술가로 활동을 이어가는 여성이다. 남성 중심의 노동문화와 조직사회에서 고군분투하는 여성 노동자이고, 서울에 거주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만들어지는 청년정책에서 잘 잡히지 않는 지역 청년 여성이다.

이들은 늘 조심스러웠다. 주변부에, 무대 뒤에, 뒷줄에서 있는 것이 익숙했고, 마이크가 오면 받아 손에 쥐기보다는 옆 사람에게 넘기는 것이 자연스럽고, 의견을 직접 피력하는 것에 노련하지 않다.

사진을 찍을 때, 대표가, 남성이, 비장애인, 어른이 맨 앞에 섰고, 이들 옆에, 뒤에 서서 배경이 되는 것에 적응되어 있다. 혹은 자리가 없거나 부족할 때도 불평 없이 카메라 앵글을 피해주는 것에도 습관이 되었다. 그래서 분명 참여한 행사에도 흔적을 찾을 수가 없다. 알아보기 어려운 크기로 사진에 점처럼 남거나 사진에 없는 경우도 부지기수다. 그곳에 있었으나, 알리바이가 없다. 그 시간과 공간에서 존재를 증명하기 어려운, 기록되지 않는 이들이 많다. 이렇게 어떤 이들은 존재하되 보이지 않는다.

이들을 만나기는 쉽지 않았다. 바빠서이기도 하지만, 드러나지 않아서 찾기 어려웠다. 가끔 숨은 그림을 찾는 것처럼 한 명, 한 명 컨택을 해야 할 때도 있었다. 건너고 건너 찾아낸 이들은 때로는 "제가요?" 라며 자신은 자격이 안 된다고 손사래를 친다. 어떤 이는 스스로를 드러내는 것, 자신이 어떤 범주의 사람들과 의견을 대표하는 것처럼 보이는 게 과잉이라는 지나친 겸손의 태도여서 이들을 끌어내는데 애를 먹었다.

실제로 바쁘기도 했다. 투잡을 뛰느라 잠잘 시간도 부족한 이들이 시간을 내는 것은 어려웠고, 아이를 돌보며 일하는 여성은 아이를 봐줄 사람을 찾지 못했다. 시간을 만들어 낸 장애여성은 정작 모임 장소로 오는 이동수단을 찾느라 애를 먹었고, 비정규직 청년여성은 연가를 내기 어려워했다. 이들과 시간을 맞추는 것은 어느 국제회의 일정을 조정하는 것보다 쉽지 않은 과정이었다. 그래서 우리는 가장 많은 이들이 참여할 수 있는 주말을 모임의 날로 정하고, 접근성이 좋은 장소를 선별하는 과정을 가졌다.

이런 지난한 과정과 조율을 거쳐, 마침내 모였을 때, 우리는 좀 더 커지고 성장했다. 조심스럽게 자신의 소개를 마친 뒤에, 한 명이 물꼬를 트기 시작하면, 이야기는 겉잡을 수 없이 번진다. 나의 이야기가, 옆 사람의 경험이었고, 그 옆 사람의 문제가 다음 사람의 어려움과 유사한 결을 갖는다는 것을 확인한다. 개인적인 문제들이 하나의 커다란 구조에 통합되고, 사회문제임을 인식하는 순간에 다다른다. '개인적인 것이 정치적인 것이다'라는 결론에 도달한다. '자격이 안 되어서' 혹은 '누군가를 대표할 수 없는 존재'로 스스로 작게 바라보던 동공은 확장된다. 내가 우리가 되는 경험 말이다.

**“보이지 않는 시민의 삶을 주류화하고, 가시화하려는 목표 아래, 한편으로 카타리나와 앨비스, 서류가방의 보이지 않는 열정과 노력이 여행대전을 만들어 온 것은 분명하다. 이렇게 우리는 누군가의 보이지 않는 수고와 열망에 빛지고 산다.”**

10년 넘게 달려온 여행대전은 보이지 않는 사람들의 서사를 활자와 사진으로 담아내 왔다. 그것은 타인의 경험이 아니라, 내가 집, 일터, 지역사회에서 실제로 보고 듣고, 느낀 것들이었고, 우리가 모두 문제라고 생각하지만 정작 나의 능력이나 노력 부족으로 돌리며 감내하며 살던 이야기였다. 사회는 나아졌다고 하지만, 또 자세히 보면 여전히 20여 년 전과 같은 문제로 고민 중이다.

모든 결과물이 그려하듯이, 종이로 만들어진 여행대전도 보이지 않는 노동으로 이어져 왔다. 대전여성가족정책센터의 카타리나와 앨비스, 그리고 서류가방의 지치지 않는 열정과 노력이 여행대전을 만들어왔다. 보이지 않는 시민의 삶을 주류화하고, 가시화하려는 목표 아래, 한편으로 카타리나와 앨비스, 서류가방의 보이지 않는 열정과 노력이 여행대전을 만들어 온 것은 분명하다. 이렇게 우리는 누군가의 보이지 않는 수고와 열망에 빛지고 산다. 나는 서류가방과 앨비스, 그리고 카타리나와 여행대전의 여성을 함께하면서, 많이 배웠다. 우리는 모두 미숙했지만, 주제를 제안하고, 의견을 말하고, 문장을 수정하면서 서로의 부족함을 채워나갔다. 티격태격보다는 까르르하는 웃음소리가 더 컸고 많았던 회의 시간들을 기억한다. 그 과정에서 우리는 부캐도 찾았다. 혁명적인 여성 카타리나도 알게 되었고, 앨비스가 되고 싶은 동료의 마음도 읽었다. 기능이 명확하지만, 뭐든지 넣을 수 있는 서류가방의 꿈을 가진 동료를 존중하게 되었다.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거들먹거리며 앞에 서 있는 것, 뻔하고, 자연스럽게 눈에 띠는 것을 치우고 낮게 있어 보이지 않거나 기둥에 가려져 있는 것들을 찾아내면서, 일에 치여 잠시 잊고 있던 당신의 열망 또한 찾아내길 바람! 폴라익스프레스의 외로운 소년이 갖고 있던 크리스마스 벨처럼 어쩌면 당신의 호주머니에 들어 있을 당신의 열망이 더 커지고 당신의 삶이 더 풍요로워지길 바람! w

## 후회 사용법, 틀림없이 달라졌다

카타리나\_『여성이 행복한 도시, 대전』편집진

『여성이 행복한 도시, 대전』(이하 여행대전)의 한쪽을 글로 채워보겠다고 호기롭게 말했지만 막상 빈 페이지를 앞에 두니 생각과 다르게 한 문장도 시작할 수 없었다. 그제야 떠오르는 생각이 이었다. '나의 이야기를 글로 써본 적이 있던가?' 나는 십 년도 넘게 매달 대전여성가족정책센터의 BRIEF를 만들어 오고 있다. 또 정책사업을 운영하고 보고서를 내는 일을 수없이 해 왔다. 이슈 선정, 자료수집, 현황 파악과 분석, 작성하는 일은 나에게 익숙한 일이다. 여행대전 발간 업무를 맡았을 때 나에게 주어진 꼭지는 인터뷰한 내용을 담는 것에 그쳤다. 학창 시절 일기를 썼던 이후로 나의 경험을 글로 풀어내는 일은 없었다. 이번 호를 통해 여행대전과 관련된 나의 에피소드를 나눠볼까 한다.

## #바꾸고 싶은

처음 대전세종연구원에서 맡은 업무는 여행대전 리뉴얼(renewal)이었다. 이때만 해도 나에게 잡지란 미용실, 병원에서 지루함을 메꾸는 수단 정도였다. 잡지를 읽기만 했지, 만드는 과정이 전혀 궁금하지 않았다. 시청에서 발간하기 시작한 여행대전은 11호 발행을 앞두고 연구원으로 넘어왔다. 1호에서 10호까지 천천히 살펴봤다. 왜인지 이거보다는 잘 만들 수 있을 것 같다는 묘한 자신감이 솟아올랐던 기억이 난다. 그러나 막상 시작하려니 목차 구성부터 난관이었다. 언제나 그렇듯이, 항상 시작은 막막했다. 새롭게 편성하고 그에 맞는 명칭을 붙여야 했다. 그 가운데 마지막에 실리는 콘텐츠들은 인물이나 공간, 레시피 소개 부분으로 앞과 달리 가볍고 눈길을 끄는 제목이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렇게 탄생한 게 '여우야 놀자'다. 지금 생각하면 유치하기 그지없고 속된 말로 손발이 오그라들 것 같았다. 흔히 남성 중심 사회에서 여성을 '곰과 여우'로 구분해 비유하고, 이 중에서도 눈치 빠르고 사회 생활 잘하는 여성은 '여우 같다'라고 하거나, 그래야 한다는 관점에서 '여우 같아야지'라고 표현한다. 나 또한 '여성=여우'라는 생각을 아무렇지 않게 여기고 썼었다. 글을 적는 이 순간도 참 부끄럽다.

## #말했어야 했는데

발간 호가 거듭될수록 점차 나에게 주어진 분량이 늘었다. 잡지에 실릴 소재를 찾은 뒤 소재에 맞는 사람이나 단체를 추천받아 글을 받고 각색했다. 또

는 직접 찾아가서 낯선 이들을 인터뷰하는 것들은 참 곤욕스러웠다. '내가 언론사에 취업한 것도 아닌데, 왜 이런 것까지 해야 하지?'라는 생각이 문득문득 들었다. 모범택시운전사 임남옥 씨, 여성밴드 '삼수니밴드', 어머니 합창단 '태평2동 어울림합창단', 대전시어머니테니스연합회, 대전시여성족구동호회 '스카이엔젤스', 대전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베트남 춤단 '베트남 마이 러브' 등 정말 다채로운 사람들을 만났다. 그땐 그들의 이야기가 크게 공감되지 않았고, 나와 상관없다고 생각했다. 2017년 12월 출산 이후 나의 일상은 달라졌다. 반복되는 돌봄노동에 시달리던 나는 이 전에 흘려들었던 이야기들에 대해 다시금 되짚어 보게 됐다. 왜 여성들은 언제, 어디서든 가족들의 끼니 걱정을 했는지, 육아에 치여서 운동할 시간조차 없었는지, 그나마도 간신히 하는 취미활동에도 가족들 눈치를 봐야 했는지, 일을 하면서도 경력 단절을 걱정했던 이유를 말이다. 지금의 환경이 얼마나 불평등한지 보이기 시작했다.

그때쯤 있었던 일이다. 만 5세 이하 아이를 키우는 직원들이 사용할 수 있는 육아시간 2시간이 있다. 딸의 직장생활을 유지시키기 위해 하루 종일 내 아이를 돌봐주는 친정엄마에게 조금 이른 퇴근을 제공하고 우리 가족의 돌봄 공백을 메울 수 있는 제도다. 그런데 어느 날 정신없이 퇴근하는 내 뒤로 "육아시간 쓰고 가세요? 와~ 좋겠다. 퇴근도 일찍하고."라는 말이 들렸다. 뒷통수를 얻어맞은 것 같았다. 나를 비꼬려고 한 의도가 아님을 알고 있다. 하지만 얼굴이 굳어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다. 그렇게 말하고 돌아서는 그를 그냥 보냈다. 지금도 단호한 표정으로 "저 지금 아이 돌보러 갑니다."라고 말하지 못한 내 선택이 후회스럽다.

어쩌다 보니 여행대전이 마지막 호를 맞게 됐다. 여행대전을 하면서 후회하는 일이 생겼고, 흘려들었던 타인의 서사는 내 일상과 맞물려 불편하고 후회하는 일로 남았다. 마음에 후회로 남았다는 것은 분명 다시는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라는 다짐과도 같다. 앞으로 평범한 이들의 굴곡진 이야기를 거침없이 담아낼 수 있는 일이 주어질지 모르겠다. 그러나 여행대전을 통해 다양한 상황과 다채로운 사람들의 이야기를 간접 경험했기 때문에 내 삶이 납작해지지는 않을 거라고 확신한다. 아니, 최소한 납작해지지 않으려 노력하며 살아갈 것이다. W

## 멈추지 않겠습니다

서류가방\_『여성이 행복한 도시, 대전』편집진

고백한다. 18년 하반기부터 22년까지 4년 6개월, 총 9호의 『여성이 행복한 도시, 대전』(이하 여행대전)을 제작하면서 나를 지배했던 주된 감정은 조급함과 두려움이었다. 누군가는 6개월에 한 번씩, 40페이지밖에 안되는 간행물 만드는 게 뭐 어렵냐고 할 수도 있다. 그러나 간행물을 보는 것이라고 만 인식했던 내가 직접 컨셉의 기획부터 매거진 발송까지 이어지는 일련의 과정은 생소하다 못해 창의적인 영역이었다. 또한 앞서 잘 만들어 왔던 여행대전을 내가 망치면 어쩌나 하는 걱정은 여행대전을 제작하는 기간 내내 나를 지배했었다. 그래서인지 올해 여행대전 발간을 중단하기로 결정하고, 편집의 역할도 내려놓게 되면서 가장 먼저 찾아온 감정은 이기적이기도 안심이었다.

센터장과 동료들, 편집위원들의 적극적인 도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매호 어떤 컨셉을 잡아야 할지, 기고자는 누구를 선정해야 할지, 관련된 자료들은 뭐가 있는지 등등 머리를 어지럽게 만드는 고민을 더 이상하지 않아도 된다는 현실이 반가웠다. 다른 업무들도 충분히 힘든 건 마찬가지인데 왜 유독 여행대전을 내려놓으면서 반가웠을까? 내 성격과 맞지 않아서? 신경 써야 할 일들이 너무 많아서? 그냥 하기 싫어서? 곰곰이 생각해보니 다른 업무들과는 다른 여행대전만의 특별함이 있었다. 18년 동안 오로지 대전시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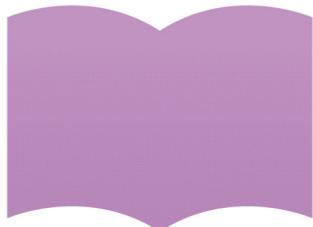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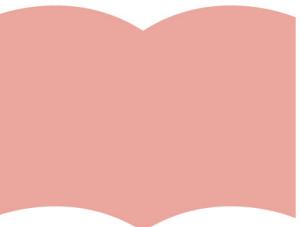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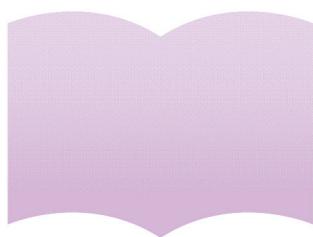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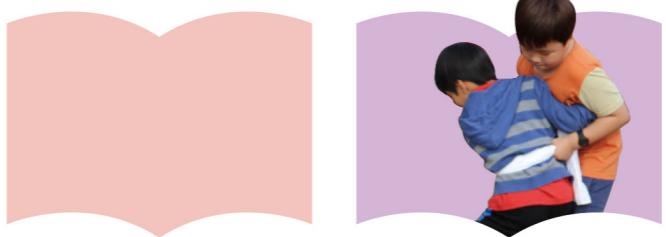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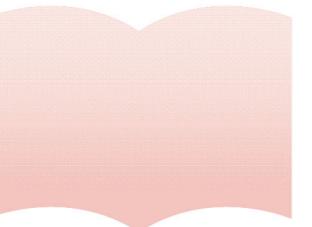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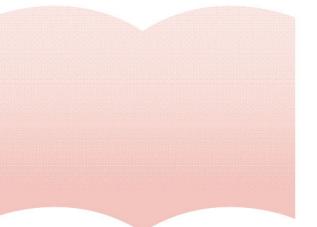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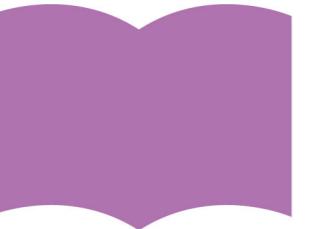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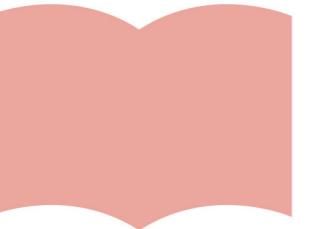
의 성평등 의식을 높이겠다는 단 하나의 목적만을 고민해 온 매거진이라는 점이다. 성평등을 대전시민에게 알리고 이해시키려는 유일한 매거진이었다. 여행대전에서 성평등은 진심이었고, 전부였다. 그리고 그 무게가 나를 놀렸던 것이다.

아이러니하게도 나를 짓누른 여행대전의 무게는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것, 배려와 존중, 나눔과 사랑의 의미를 내 안에 담게 만드는 누름돌의 역할을 했다. 부끄러운 말이지만 여성센터에서 근무하기 전까지의 나는 우리나라가 평등한 민주주의 사회라고 생각했었고, 눈에 보이는 밝은 면만을 보던 사람이었다. 그러나 여행대전을 통해 만난 다양한 인연들과 그만큼의 이야기들은 나를 성장시켰고 어둠 속에서 촛불을 들 수 있는 용기를 갖게 했다. 그리고 여행대전을 보는 대전시민들도 같은 경험을 공유하고 촛불을 이어붙일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리라 생각한다.

여행대전의 발걸음은 여기에서 멈췄다. 그러나 멈춘 이유는 신발끈을 단단하게 다시 묶기 위해서다. 대전시와 대전시민, 우리 모두의 성평등 의식 수준이 완연해질 때 신발끈을 풀게 될 것이다. 그동안 여행대전을 만들기 위해 도와주신 분들과 지켜봐 주신 독자들께 진심을 담아 감사 인사를 드린다. W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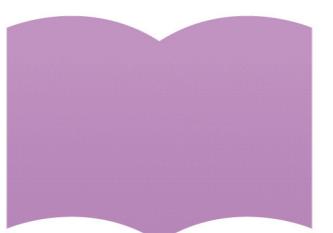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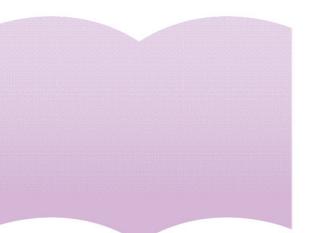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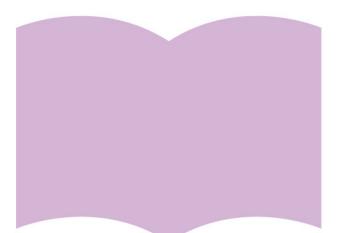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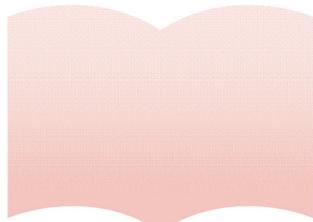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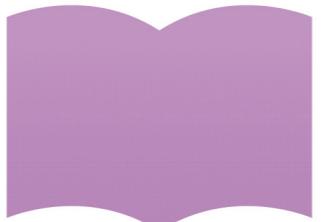
# 01



여성과  
가족의 문제와  
경험을 공유



센터와 함께한  
여행대전  
26 권



37

Vol.

발간 스토리를 돌아보다